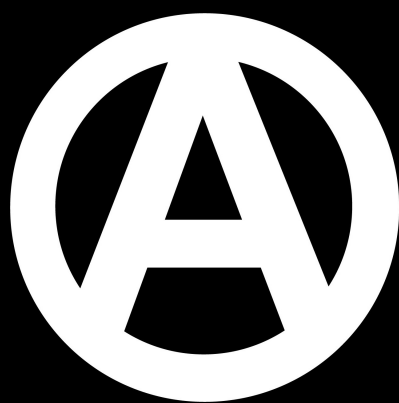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시리즈 2호

오늘의 아나키즘

오늘의 아나키즘

목 차

『오늘의 아나키즘』을 준비하며

1999년 시애틀에서의 반세계화운동 이후,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국내에서 부쩍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만 둘러보아도, 채 얼마되지는 않지만 아나키즘 관련 서적과 아나키즘을 매개로 한 학술적 밥벌이(활동)를 하는 학자들, 또 무슨무슨 학회.연구소 및 아나키즘 관련 웹사이트나 팜플렛 등등을 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이들을 접하고서 약간은 혼란스럽고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를 국내 아나키즘의 논의 지형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아나키즘'이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부합하는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간해서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특정 개인이나 개별 집단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는 데에서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 아나키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둘째, 아나키즘의 형상이 다채로운 듯 하지만,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구조적으로 단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아나키즘』(이호룡, 지식산업사, 2001)은, 한국 근현대 아나키즘의 역사를 '아나키즘의 본류[像, 精神]로부터 일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국내 아나키즘의 주류적 흐름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를 갖출지라도 하나의 획일적 구조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 두번째 측면은 첫번째 문제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면서, 아나키즘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접근하는 이들에게 괜한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여태까지 '오늘의 아나키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일탈과 왜곡의 역사로 인해 혼란과 오해에서부터 조롱, 외면, 배척의 대상으로까지 취급되어져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새롭게 '오늘의 아나키즘'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선 이 현실에 대한 자각과 인정을 그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출발선에 서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 때는 '아~,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반정립(反定立)의 과정과 '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자기검증 속에서 생겨난 정립(定立)과정을 통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을 더듬는 심정으로, 오늘의 아나키

즘을 찾아갈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뚜렷한 운동의 동기이자 현실의 실천과제이기도 한, 부시의 이라크 전쟁과 전지구적 규모에서 진행되는 세계화와 환경문제, 그리고 온갖 차별의 문제 등에 대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인가?', '우리가 모색하는 또 다른 세상과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끊임없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아나키즘을 대안적 방법론으로 상정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또 그 방향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색의 과정에서, 우선, 세계적인 아나키즘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과 더불어 우리들 가까이 있는 일본 친구들과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국내에서 새롭게 아나키즘에 접근하는, 또 적극적으로 모색중인 개인, 모임 단위와도 더욱더 교류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오늘의 아나키즘』소책자를 기획한 것이다.

『오늘의 아나키즘』은 상계동모임의 친구들과 대략 2년 가까이 함께 공부했던 자료를 중심으로,『환경과 反차별』편집동인이 이 소책자를 기획하면서 추가로 발굴하고 보완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글이 이가 빠진 듯도 해서 조금씩 덧붙여져야 할 내용도 있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잘 잡히지 않아 여러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논의하고픈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필요를 느끼는 때에, 각자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통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그 소통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겠다(이 소책자 뒤편에 연락처를 적어 놓았다).

덧붙여, 우리가 '오늘의' 아나키즘을 계속 고민하고 문제로 삼는 이상,『오늘의 아나키즘』은 이 소책자 한 권으로 끝나지는 않을 듯 하다. 우리와 우리의 친구들에게 '오늘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다.

2003. 3. 4.

『환경과 反차별』편집동인

전문과학주의라는 환상의 비판[1)]

-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구축을 위하여 -

야기 타다시(八木 正)[2)]

1. 실천적 과제와 사회학의 자기변혁

- '생활실천의 사회학'으로 가는 길

사회학이 사회적 현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1) 연구자가 연구대상 밖에서 파악한다(사회구조론).

2) 연구자가 연구대상 안에서 파악한다(생활구조론 또는 생활세계론).

3) 생활자(민중) 자신이 스스로의 생활상황을 파악한다(생활실천적 사회학의 가능성).

이 글은 필자가 위 세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 경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사회학자는 사회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천적 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버리고 민중(주민)과 서로 손을 잡고 연구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인식주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자각에서 사회학 그 자체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를 관념이 아니라 스스로의 활동경험에 입각해서 고찰했다는 것에서 이 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민중적 입장, 생활실천, 사회학의 자기변혁)

---

1) 『原發は差別で動く(원전은 차별로서 움직인다)』(八木 正, 明石書店, 1989) 2부 1 ~ 5절 중 1절과 2절을 번역한 것이며, 각주와 참고문헌의 대부분은 생략하였음을 양해바람.

2) 前 오오사까 시립대학 사회학과 교수.

(1) 사회적 현실로 파고 들어가는 사회학

사회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사회학이 사회적 현실에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론’, ‘일반화’라는 이름으로 현실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도피하는 자리에서 관념적 사변에 존립기초를 두는 따위의 사회학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현실적이라 해도 여기서는 논외로 할 수밖에 없다. 또, ‘실증’, ‘객관’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지상주의적 사회학에 대해서도 그것이 테크노크라트적인 입장에서 사회체제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문제삼지 않고 단순히 조사기술의 정밀성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상세하게 말할 여유도 없고 또 그러한 담론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 강조된 ‘이론과 조사’, ‘이론과 응용’의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문제삼는다는 그 자체에 위화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소 모가 나는 말을 해서 안됐지만 이러한 논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입장(‘과학주의’도 포함)에서든 간에 중앙주의적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발상이거나, 그 어느 쪽도 민중에게는 거의 관계가 없든가 기껏해야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가 거의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은, ‘지식인’의 우월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자기비판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학을 재구성하는 데 활로를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책에서는 기존의 사회학이 사회적 현실에 어떻게 관계했는가에 대한 사회학사적으로 재검토하는 등의 빛나간 작업을 당연히 단념할 수밖에 없다. 단지 나 자신이 지금까지의 사회학연구의 궤적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 내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은 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서술한 대로,

① 연구자가 연구대상 밖에서 파악한다 – 사회구조론
② 연구자가 연구대상 안에서 파악한다 – 생활구조(생활세계)론
③ 생활자(민중) 자신이 스스로의 생활상황을 파악한다 – 생활실천적 사회학의 가능성

이상 세 가지 단계는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해도 괜찮다. 세 가지 단계 중 앞의 두 단계에 대한 각각의 사회학의 특징은 새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①은 기능주의적

이든 구조주의적이든 또는 계급 투쟁적이든 사회복지적이든 그밖에 무엇이든 간에 연구자가 그 어떤 관점에서 생활자인 민중이나 그들의 생활을 연구의 '대상'(객체)으로 삼아 밖으로부터 해명하고 이론화한 사회학 이론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②는 어떤 의미에서 ①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것인데 연구자는 같은 연구대상을 가능한 한 안에서,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생활자의 차원에서 생활사회나 생활세계 등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사회학이론이다. 일본에서는 각종 '생활구조론'과 외래의 사회학이론으로 '생활세계론', '에스노메소달러지(Ethnomethodology)[3)]', '심볼릭(symbolic) 상호작용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자는 ①의 입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②의 관점에서 양자의 통합을 시도한 시기가 있었다. 주의해야할 점은 여기 설정한 ②와 ③의 제 단계는 각 전 단계인 ①과 ②의 모든 이론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 전 단계의 이론을 포섭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을 시도한데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②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는 바 연구대상 내부에 깊숙히 들어가면 갈수록 ①의 분석에서 밝혀진 사회의 객관적 구조가 더욱 절실하게, 더욱 정확하게 보였던 것이다. ①과 ②는 이론으로는 어떻든 간에 결국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시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번갈아 입장을 옮기면서 관찰을 되풀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깊숙하게 ②의 입장으로 파고 들어가려 해도 실제 연구자와 연구대상인 생활주체의 거리는 영원히 축소되지 않으며, '대상'과 '일체화'되었다는 착각에 자기만족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간격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단념하는 게 좋을 것이다. 교수자격이 주는 특권을 한동안 버리고 여공이 되어 사고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노예노동을 체험한 시몬느 베이유도 그게 아무리 감동적인 헌신이었다 해도 결국은 자신의 지식인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으며 불행한 사람들과 자기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다는 것을 통감하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침묵의 섬'을 굳게 지키는 개개 노동자에 대해서 그는 아마도 초조감을 느끼면서 체념해야 하는 경지로 빠져들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연구대상과의 '일체화'는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지식인에게 냉소를 퍼붓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비난이나 조소는 약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일은 드물고, 약한 입장에 있다고 자칭하는 투쟁적인 인텔리운동가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언동하는 지식인이 퍼붓는 일이 많다. 후자는 특히 '진보적 지식인'이 '유치한 편향'을 배제한다면서 결국은 자신이 ①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불과하다. 이때 나타나는 태도

3)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회학.

는 지적 오만으로 되돌아가는데 각자의 자유라고는 하나, 적어도 내가 선택할 길은 아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무의식중에 ②에 대해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연구대상이 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③의 생각으로 이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다. 나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진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더구나 어느 시기에 상대에게 무언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③의 입장으로 이행해서, 어느 의미에서 비로소 ②의 관점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교류에서, 인간적 신뢰관계에서 서로의 세계를 더욱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상호간 벽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 각자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관계는 도저히 없애기 어렵고, 오히려 해소를 바라는 것이 잘못이다. 서로 위치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겠는가? 한편,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 게 아닐까? 이런 데에 인간사이에 오가는 마음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③의 입장에서는 연구자로서의 자기는 소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도 생활자의 일원으로 그들 대중 속에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가 처음부터 져야 할 모든 책임을 생활자인 민중에게 전가하고 연구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연구자가 스스로의 방관자적인 입장을 극복하고 생활자로서의 자기 입장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민중의 입장에 의거하고, 더불어 민중의 일원으로 생활자로서의 투쟁을 해나가면서, 전문지식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권과 지식, 기술을 100%로 활용하여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입장의 민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협동의 자세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외재적으로, 다시 말해서 지식인으로서 우월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내려다보듯 민중에 대한 동정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고 자기자신이 민중의 하나로서 생활자임을 자각하고 생활자로서의 자기에게 회귀하는 것, 그리하여 철저하게 민중의 입장을 고수하여 연구자로서의 '학식과 능력'을 타자로서의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자신으로서의 민중을 위해서 이바지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자세는 '민중에 대한 봉사'라는 위선적 자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것은 '봉사'라기보다 생활자인

자기, 나아가서 어머니 대중에의 회귀와 협동이 될 것이다.

이처럼 ③의 입장에 철저하게 섬으로써 비로소 ②의 입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생활세계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민중과의 'Sympathy(연민.공감)'그리고 'Identity(동일성.정체성)'가 가능해진다. 거꾸로 말하면, ②의 입장에 머무르는 한 아무리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 한계성을 넘어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식인들이 갑자기 그들의 우월한 입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②에서 ③으로의 이행 내지 도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세는 사회학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회학은 '규범과학'이 아니고 '현실과학'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학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접근의 기본자세는 그만큼 엄격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수록 사회학의 사회적 실천과의 관련성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학의 시조라는 A.콩트의 학설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학은 본래 과학주의의 견지에서 '사회의 재조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본래 '실천과학'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회학이 그런 지향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시대적 전문화 추세에서 '전문과학'으로서의 자기확립에 오히려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것은 일단 실천과의 관계를 끊고 순수한 학문으로서 영역 확립과 과학적 유효성을 추구한 귀중한 노력으로, 사회학이 필연적으로 걸어온 길이라는 데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학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현실에서 멀어져 일부의 사회학을 제외하고 사회적 실천과 절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는 방법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회학과 사회적 현실의 관련은, 그저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 실천성과의 관계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사회적.실천적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학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무관한가. 이것이 이 학문의 현 상황에서 엄중하게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적 인식의 근본자세가 재검토되고 나아가서 발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단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2) 실천적 과제와 사회적 인식주체의 전환

'실천적 과제'라고 말하면 그럴싸한 급진적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러한 종류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학의 대응이 요구되는 현실의 제반문제는 날로 복잡해지면서 다양해지고 있다. 주요한 것은, 항상 예측을 웃도는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현대사회생활의 여러 모순이 다방면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 규모에서 전반적 획일화가 진행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에 고유한 다면적인 제반문제도 쏟아져 나와 사회학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을 요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와 실천적 과제 중에서 여기서 특히 문제삼고 싶은 것은 지방 또는 지역에서 일어난 갖가지 문제와 과제다. 그 이유는, 다소 딱딱한 말로, 중앙집권화가 가속되는 한편에서 지방으로 파급되는 문제의 영향이 강도를 더하면서 그 축소판이된 지방에서 단순하고 더욱 응축된 형태로 예민한 모순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자각에서 필자가 거주하는 지방에서 주민을 주체로 한 '호꾸리꾸 지역문제 연구회(北陸地域問題硏究會)'의 결성을 호소하고 활동을 펼쳤던 것이다. 이 연구회의 결성은 앞에서 논술한 ②에서 ③으로 시점의 전환과 도약을 상징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선 그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호꾸리꾸 지역문제 연구회(北陸地域問題硏究會)' 설립을 발기한 것은 1986년 9월이었으며 약간의 개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했다.

'호꾸리꾸 지역문제 연구회(北陸地域問題硏究會)' 설립취지서

전통적 지역풍토가 강한 호꾸리꾸 지역(北陸地域)도 최근 근대화의 물결을 따라 커다란 변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대응에 쫓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철 노또선의 제3섹터화, 호꾸리꾸 신깐센, 지방공항과 군사기지, 도시와 과소지(過疎地)간의 교통, 외지진출 품팔이노동과 젊은이의 유출에 따른 과소화와 취락붕괴, 공장유치와 공업단지조성, 원전부지결정, 지역산업육성, 어업재편, 상점가 활성화, 유통과 소비, 촌락 가꾸기와 소도시 가꾸기, 도시재개발 사업, 도시계획, 전통문화와 옛 거리 보존, 지역문화 계승과 창조, 자연환경보호, 배제설체제, 학교격차와 선별교육, 가정교육의 현황, 장애아 교육의 올바른 방식, 폭력단과 청소년비행, 고령자처우, 노동분쟁, 여성취업, 신체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의 자립, 피차별 지구 행정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호꾸리꾸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런 광범하고

다양한 지역문제에 뛰어들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부대조건이 없는 주민의 자주적 의지와 힘에 입각한 연구활동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나는 오랜 동안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회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노또(能登) 원전이 현실화된 이 시기를 택해서 널리 호소해 보려는 결의를 굳혔습니다.

이 회에는 이른바 정치적인 의도란 하나도 없습니다. 당파적인 운동체로서가 아닌 연구로서의 입장을 관철하면서, 공정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대강 이런 취지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호꾸리꾸의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연구회에 참가할 것을 호소합니다. 당신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지인들 중에 적절한 인사가 주위에 계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해 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모임을 키워 네트워킹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당면한 활동목표나 원칙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당 회는 호꾸리꾸 지역의 제반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주적 입장에서 연구할 것을 약속한다.

2. 회원은 호꾸리꾸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학식경험자'에 국한하지 않는 주민일반)에게 열려 있으나 회원은 자립한 개인의 자격과 책임에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3. 회원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 서서 상호계발과 상호학습을 한다. 당 회는 내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회원의 주체성을 존중한다.

4. 활동은 연구와 의견발표(구두, 문장, 영상, 일러스트, 기타)를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홍보, 조사, 상담, 연수, 교류, 강연, 출판 등을 한다. 회원의 획일적인 참가가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하기 쉬운 방법으로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살리는 활동이 기대된다. 우선 회지를 만들고, 각자가 의견을 발표하고, 우편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활동스타일을 선택한다.

5. 활동비는 회비와 자주적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연구자금에 대해서는 영리나 정략종교선전과 무관한 학술적, 복지적 성격의 조성금 기부금에 한해서 받는다.

6. 연락소는 카나자와대학 교양부 사회학 연구실에 두고 야기 타다시를 책임자로 한다.

1986년 11월 20일 '호꾸리꾸 지역문제 연구회(北陸地域問題研究會)'로 미니컴(minicom)[4] 지 『이로리바따(いろりばた)[5]』을 발간, 87년 11월 20일까지 20호에 이르렀다. 그 동안 집필자는 약간의 예외를 빼면 모두 일반주민이었으며 이것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대학 관계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활자로서 집필한 것이니 본 연구회의 소기의 목적은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필자는 농민, 건설노동자, 대학교원, 여관업 경영자, 경영지 발행인, 회사원, 학원 경영자, 농업.선종 승려, 도예가, 퇴직 선장(읍장 입후보자), 중학교원, 농업.진종 신도, 출판업 대표, 직물업자, TV 카메라맨, 박물교사(학원강사), 지구노동조합 간사 등 매우 다채롭다.

제기된 문제도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인심황폐, 지방폭력, 노동자 식당, 스파이크 타이어의 범죄성, 학교급식과 전래산업, 폭력단 항쟁과 분열지배, 문화농업 확립, 21세기를 바라보는 지역개발, 자급자족하는 생활의 실천, 농사꾼의 생각, 품팔이 진출 지대의 원전부지 문제, 이혼체험에서 본 가정론, 은인의 죽음에서 오는 허탈감, 도자기 제작판매 캐러번의 만남, 과소지의 원전입지와 마을 가꾸기, 가혹한 노또의 제염역사, 치매노인의 처우, 자원낭비의 문제점, 야스꾸니 신사와 진종신앙, 야스꾸니 신사와 반전맹세, 봉건적 호꾸리꾸 취락과 여성차별, 앙에하마 염전에서 보는 자연생태, 원전비판 영화제작, 폭주족 소년과 학교교육, 생명의 근원 자연소금, 탈원전을 향한 주민운동 구축,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의 윤리 등 매우 다양하다.

지금 호꾸리꾸 지역에서는 역시 가장 심각한 원전문제가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직접 원전을 테마로 한 것만 5건으로 제일 많고 농업실천(4건), 운동론(4건), 여성문제(3건), 반전사상(3건), 노동문제(2건), 지역개발(2건), 자연보호(2건), 교육문제(2건), 그리고, 공해문제, 전래산업, 폭력단, 가정문제, 인생문제, 노인문제, 자원문제, 학문론이 각각 1건이다. 또 예상했던 대로 분리된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각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지역문제는 그야말로 종합적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는 종합문제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회가 감히 연구과제를 설정하지 않고 제기할 문제나 관점을 자유롭게 한 것은 이런 생각에서였다. 말이 나온 터에 마츠에(松江)의 '신지꼬(宍道湖)의 물을 지키는 모임' 대표 세와님[6]인 호보 다께히꼬(保母 武彦) 시마네대학(島根大學) 교수는 주민운동 발전의 열쇠와 교훈의 하나는 '지역차원에서 과학의 종합을, 주민운동이 현대과학의 책임일꾼'이라면서 지역문제는 필연적으로 종합적 성격과 주민적 기반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중요한 지적을 했다.

4) 팜플렛, 소식지 같은 작은 매체.
5) '이로리바따'는 일본의 전통적 난방 방식에서 불을 때는 난로를 '이로리'라 하고 '바따'는 근처를 말함.
6) '세와님'이란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의 뜻.

‘호꾸리꾸 지역문제 연구회’의 회원은 호꾸리꾸 거주자와 호꾸리꾸 관련자로 이루어지고 각자는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이시가와현 회원이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원전문제와 지역 가꾸기’가 연구회의 출발점이자 원점이었던 관계로 네트워킹은 주로 노또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카나자와나 토오꼬오 거주자도 노또 출신자가 많은 게 하나의 특징이다.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노또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관계자로 하면 연구회의 중심은 오히려 노또에 있다고 하는 게 실제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애당초의 생각은 ‘노또 지역발전 연구회’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정도였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또 노또를 근거지로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교류의 범위는 토야마현, 후꾸이현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성질상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일정범위에서 회원확대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 실정이다.

약 60여명의 회원의 내역은 앞에 나온 기고자 이외에 어업선주, 문필가,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대학원생, 프리랜서, 진종승려, 사진작가, 공예작가, 트럭운전기사, 학원장, 주부, 안경점 주인, 퇴직 선원, 공무원, 연구소 주재자, 수필가, 치과의사, 요리점 경영자, 건설노동자, 유기농업 종사자, 잡지기자, 회사원, 소학교 교원, 서클 주재자 등이다.

각자 생활에 전념하면서 현장에서 갖가지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대응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연구회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같은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얼굴 맞대고 교류하는 일의 의의는 물론 크다. 그러나 일상적인 자기 일을 하면서 취미생활도 즐기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리해서 회합에 참가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한 모임형식에 어떤 정해진 틀을 만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서, 회보발행을 중심으로 우편.전화.잡담.개별모임.상호방문 등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의견교환이나 사람의 교류가 기획되고 또 기대되었다. 이러한 형식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어느 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다. 현 단계에서는 문제제기조차 아직 충분하지 않고 문제의 전개도, 문제의 천착도 아직은 미진한 채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천천히 서둘러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당면의 목표다.

그러면, 필자가 이러한 주민주체의 연구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는 실제적 계기와 학문적 계기가 있었다.

실제적 계기는 ‘호꾸리꾸 지역문제 연구회’가 발행하는 회보『이로리바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미니컴 『지역과 대학』의 발행주체가 된 '대학의 이상적 존재양식을 생각하는 모임'의 활동이다. 제 1호가 1980년 12월 18일 발행되고, 1986년 8월 29일까지 96호까지 계속 발행, 그 후 1년 휴간, 87년 11월에 97호 복간. 그런데, 이런 미니컴활동을 전개한 것은 80년 당시 카나자와대학(金澤大學)의 이전을 둘러싸고 기괴한 움직임이 대학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얼마나 지역사회와 떨어져 독선주의에 빠졌는가'를 통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대학이전은 '민주세력'을 자칭하는 모 혁신정당의 대학내 세력이 복합학부의 완전분리독립과 대학원의 설치를 도모하는 계책에서, 이것을 '대학의 민주적 발전'으로 탈바꿈시켜, 현정부의 여당세력(특히, 나중에 문부대신이 된 이시까와현 출신 국회의원)의 중간에서 정치적 거래가 성립되어, '종합이전'의 이름으로 이전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교양부까지 포함해서 이전을 추진시키려고 획책한 데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간의 사정을 토대로 한 다음 글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

발간취지에 대하여

최근 카나자와대학의 '종합이전'을 싸고 눈에 띄는 움직임이 대학내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과를 차분하게 짚어보면 유감스럽게도 정치와 행정이 앞장선 탓에 대학인의 예지와 양식이 발현되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압력에 움츠러들어, 혹은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말에 순응하여 학부의 이익을 얻어보려는 비굴한 태도가, 서글프지만 대학 교관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학장이 있으며, 그는 학부의 연합적 이익을 내세우며 소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현실의 이름을 내세우는 행정권력에 머리를 숙인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대학의 발전은 시설과 설비의 확충과 집중화이며, 학과의 증설과 교관과 학생의 증원이고, 대학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설치이며, 최종목표는 일본해쪽[7] '주요대학'으로 격상입니다. 여기 그들의 물신숭배라고 할 수 있는 물량적 확장주의와 효율본위의 집중관리주의와 권위주의적인 권력굴종의 자세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놀랄 일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조직'마저 권력과 손을 잡고 이전추진에 들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소수의견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혁신조직은 최후까지 보수적 이권세력과 설치한 링 위에서 각본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레슬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7) 일본의 경우, 한국 동해바다를 접한 면을 일본해쪽, 그렇지 않은 면을 태평양쪽으로 구분.

우리는 보수와 혁신을 불문하고 대학에 정치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학이전문제로 전개된 움직임은 '政'·'官'·'財'·'言'의 상호유착과 일체적 책동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학문과 의견의 본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이전문제는, 행정측에서 제한된 시한을 통보했고 문부성의 속뜻을 헤아리고 당황한 나머지 엉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학교 직원조합이 주장하는 '자주'·'민주'·'공개'의 3원칙은 행정관료에 의해 알맹이가 없어지고 완전한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본래 자주적이어야 할 대학인이 주장하는 이상적 대학에서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진정한 자주적 논의는 어떠한 기성조직에 의거하여 그것들의 이해에 입각한 발언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의 발상을 토대로 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꾸리꾸 쮸우니찌(中日) 신문」 문화난(1980.8.19)에 게재된 논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과 대학의 관계를 문제삼자는 기운이 가까스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이상적 존재양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카나자와대학에 대하여 결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대학 만들기는 이제부터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학강좌를 개방하는 시혜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대등한 입장에서 현민과 교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민이 바라는 생활상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원전, 화력발전건설, 공항소음, 신깐센유치, 역전재개발, 역서개발, 자연파괴, 타쓰미(辰巳) 용수 취수구(取水口)[8]의 매몰, 문화유적의 마구잡이발굴, 지역격차, 차별과 과소화, 학교격차와 차별, 스온병 등등 이상 어느 것이나 '대학인'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실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들의 학문도 더욱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연구자는 현민의 생활과 권리를 해치는 행정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문적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대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정한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종래 우리의 방법이 지극히 불충분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로 첫발자국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대학이전 문제를 통해서 대학지식인, 특히 '민주교수'를 자인하는 '대학인'이 권력에 아부하면서까지 '대학발전'에 광분하는 실상에 접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지방국립대학이란 도대체

8) 물을 끌어쓰기 위한 구멍.

어떤 존재인가를 자문하게 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대학인의 위선과 독선을 추궁하면서 나아가서 대학의 사회적 존재의식이나 '대학개방'의 의미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이론의 전개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되풀이할 여유가 없어서, 「시민과 대학이 공학하는 장을 찾아서」[9), 및 「지역진단학으로서의 사회학 — 대학개방의 하나의 존재양식을 찾아서」[10) 원고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 논문 끝부분에서 성인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사회학의 실천적 성격을 논하기 위해서 새삼 '만하임 사회학'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故) 신메이 마사미찌(新明 正道) 선생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학생시절부터 만하임의 '실천사회학'이랄 수 있는 진지한 연구자세에 주목한 나는 대학과 사회의 관계를 근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당연히 만하임의 언설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주민주체의 연구활동을 지향하게 된 학문적 계기라고 앞에 말한 것은 이것을 말한다. 지식인 주체의 인식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주체의, 주민활동의 입장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회학적 인식론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식사회학'에서 '시대진단학'나아가서 '민주주의적 사회계획론'으로 필연적 전개의 의의를 재평가하는 일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진실한 인텔리겐챠의 지적 정직성을 일직선으로 밀고 나간 곳에 전개되며 위선적, 당파적 지식인(그들도 민주주의를 소리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에게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찍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지만,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만하임이 말한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은 일본 사회학자의 대응방식은 그 자체의 타당성이 문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의 방향성은 어느 의미에서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성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식인 주체의 입장 그 자체를 방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발상의 역전을 의도하고 있다. 만하임과 같은 정직한 지식인도 끝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객관적 우월성이나 '지식지배'의 현실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생활세계론의 입장에 있는 P. L. 버어거의 지식사회학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식을 인식의 타당성의 차원에서 음미하지 않고 지식 특히 종교를 정치지배의 맥락에 두고 생활주체에게 그 의미를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인식에 따라서 더욱 발전적으로 부연한다면 지식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현실의 사

9) 「市民と大學との共學の場を求めて」, 『金澤大學大學教育開放センター紀要』 3호(八木 正, 1983).
10) 「地域診斷學としての社會學 — 大學開放のひとつのありらたを求めて」, 『金澤大學大學教育開放センター紀要』 6호(八木 正, 1986).

회구성질서를 용인, 수용하며 이러한 입장을 유포하거나 민중교화를 통해서 현행지배질서를 보강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지식의 조직적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생활자 민중은, 지식인이 제공하는 체제해석 이외의 해석 수단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도대체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렇듯 글자 그대로 '무식'한 민중은 도그마 세계 안에 갇혀 지배질서 안에 자진해서 참가한다. 이런 사태야말로 '지식지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확대해석이 될 수 있기는 하나 버어거가 지식을 단순한 사회질서의 해석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 그 자체로 보는 견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이 점에 관한 나의 기본적 견해는「전문직업인의 비희성과 권위를 둘러싼 일 고찰」[11] 및「지식과 정보.기술」[12]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하튼 이러한 파악을 더욱 실천적 입장에서 관철하면 지식지배의 허위성 내지는 한계성을 철저하게 추궁하는 것으로 민중측의 지식탈환 지향으로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말처럼 우월한 입장을 버린 게 아닌 '민주적' 지식인의 대리적 위임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민중이 본래 갖고 있는 건전한 생활지혜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식인이 만들어낸 작위적인 과학지식의 탈환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의 주체성에서 지혜의 재생 또는 창조에의 관여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민중 자신이 스스로의 손으로 생활의 뿌리에서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적 태도로 생활실천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고 협동하는 게 오히려 지식인의 책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⑶ 사회학의 자기변혁을 위하여

— '생활실천의 사회학' 제창

대충 이러한 경위와 모색에서 가까스로 도달한 새로운 지점에 서서 나는 기성사회학을 재검토하고 이제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사회학 연구의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 '생활실천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미지의 사회학은 아직 형태를 갖춘 체계화된 것은 아니다. 이제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함으로써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렇게 수필식 형식밖에 안되지만 최근의 생각을 엮은 논고를 전재해서 참고로 하겠다(『이로리바따』 14호(1987. 8. 27). 또 이 이전에 게재되었던 원래 원고는 동년 11월 2일의 호꾸리꾸 쮸우니찌 신

---

11) 「專門職業人の秘戯性と權威をめぐる一考察」, 『社會學硏究』 42·43 합병호(東北社會學硏究會, 1982).
12) 「知識と情報·技術」, 『社會學の視覺 — 個人と社會』 細谷昻 外 編著(アカデミア出版會, 1983).

문의 「사회학연구자의 눈(社會學硏究者の目)」의 이름으로 게재되었다).

살아있는 민중사회학

'사회학은 어떤 학문인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실은 이런 질문이 사회학 연구자에게는 큰 고통이다. 그건 사회학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 인간사회라는 대단히 종잡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고 '사회가 좀 복잡해진 거죠'라든가 호꾸리꾸 사람을 상대로 해선 '말하자면 사바세계의 학문입니다'라고 얼버무리게 된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한 사바세계라는 말은 딱 맞아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사실 sociology는 한때 '세태학'이라 불렸던 때도 있었다. 어렵게 말하면, 사회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구조를 종합적으로 해명하려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해서 세상,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있는 그대로를 해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왜 이런 데 신경을 쓰는가 하면 사회학이 그런 학문이라면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실은 세상 일반사람이지 전문학자라는 게 다소 이론적인 지식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나는 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세상을 고생고생 살아온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날카로운 생각을 말한다. 대포집이나 이발소나 택시안 그리고 난로가에서 그런 상념에 잠기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저런 생각에서 나는 최근 특히 공허한 말만 재치 있게 늘어놓는 학자에게 같은 입장인데도 역겨울 때가 있다. 사회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업적'쌓기에 바쁜 '학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내막을 알기 때문에 더욱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학자'의 허명이 권위로 통하고 행정심의회나 자문위원회에서 '학식경험자'로 중용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관계구조는 매우 기만적이고 행정의 뜻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유식자'만을 가려서(공정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소수 형식적 반대자를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견해가 객관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행정에 영합하는 이러한 학자를 '어용학자'라고 해야지 뭐라 하겠는가? 하기는 이런 일이 있는 게 사바세계인지 모른다. 그야말로 세상사는 깨끗한 (공정한, 정의로운) 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뭔가 뒤범벅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게 '사바세계'라고 생각한다. 사회학 연구자는 이런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진흙탕에서 흙투성이가 될 각오도 해야한다. 잘

난 척하여 자기정당화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실사회는 그런 곳이고 게다가 민중은 그런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다. 사회인식의 주체는 반드시 전문학자가 아닌 생활자인 민중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원전'문제든 '과소지'문제든, 또는 '비행'문제든, '도시재개발' 문제든, '유통'문제든 그 밖의 무엇이든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제3자'인 '학자선생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 '현지 운동자' 자신이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학자가 배워야할 실질적인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의 체험에서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후꾸리꾸(北陸)의 주민들에게 호소하여 '호꾸리꾸 지역문제 연구회'(北陸地域開發硏究會)를 결성하고 미니컴지 『이로리바따』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이상과 같은 생각에서 하는 일이다.

민중의 힘을 마음에서 신뢰하고 거기 의존하면서 자기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투쟁하고 배우는 것, 이렇게 해서 나의 학문과 인생에 살 길[活路]을 찾아가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편, 최근 일본의 사회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종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것 같다. 지면관계로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괄적으로 약간 말해둔다. 우선, 특기할 일은 '일반시민사회'의 가치관에 입각한 편견과 차별을 '과학'의 이름에서 보강하는 데 불과한 '사회병리학'을 뛰어넘어서, 일체의 차별현상과 싸우고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사회학의 구축을 표방하는 '일본 해방사회학회'의 결성(1985)이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회는 이제까지 사회학이 우월적, 방관적, 폐쇄적인 연구태도를 자기부정하고 각종 운동체에 실천적 입장에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제기되는 비판에서 배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학의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철저한 연구자세를 갖고 있다.

학회의 연구발표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단히 다양하지만, 이제까지 피차별 부락, '재일 한국.조선인', '요세바(寄せ場, 노동시장)'사회, 심신장애자의 자립, 차별의식, 차별표현 등이 중심적 연구과제가 되었다. 이 중 '요세바' 해방에 대해서는 더욱 학제적으로 연구자, 실무자, 운동가를 결집시켜서 '일본 요세바학회(日本寄せ場學會)'를 87년 4월에 결성했다. 이렇게 단순한 방관자적 입장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실천적으로 제반문제에 정면에서 도전하는 학문을 구축하

는 방향성이 이제 커다란 흐름으로 확실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사회학의 각 연구분야에서 이런 자기혁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로서는 그것을 지방생활에 뿌리를 두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서로 구축하고 싶으며, 이러한 입장을 '생활실천의 사회학'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나의 문제제기가 이 글의 목적이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추구가 말이나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2. 아나키스트 사회학 서설
― 권력 의존을 거부하는 민중의 사상

(1) 아나키스트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 '과학적 사회학'과의 결별

'아나키스트'는 지배권력으로부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위험분자로 탄압받고 말살당했을 뿐 아니라 혁신조직측에서조차 사회운동의 교란자로 규탄받으면서 기피당하고 배제당했다. 그러나 세상에 이처럼 엄청난 오해와 곡해도 없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이권이나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낙인(烙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모두 '아나키스트'를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아나키스트 조직에 얽어매서 규정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다니엘 게랭(Daniel Guélin)은 아나키(anarchie)라는 말을 고대 희랍어 '권력이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수천년 동안 편견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이나 정부 없이 사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 아나키의 의미는 비속어(卑俗語)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서 혼란, 무질서, 질서파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고 개탄한다. 그리고 그는 무정부(아나키)사상은 사회주의와 동의어(同意語)이며 사회주의의 한 지류(支流)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예를 회복시키고, 테러리스트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더 명료한 '자유사회주의(libertarian socialism)' 혹은 '자유 공산주의(libertarian communism)'라는 말에 호감을 갖는다. 이러한 규정은 아나키즘의 본질 파악을 그르치는 오해를 피하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역시 통념적인 아나키즘의 이해를 전제로 변명을 시도한 데 지나지 않

으며, 더군다나 아나키즘을 사회주의의 지류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반개인성, 억압성을 부당하게 은폐하기도 했다. 아나키즘이 항간에서 오랫동안 '혼란, 무질서, 질서파괴'로 받아들여져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진 것은 바로 국가권력 스스로 질서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용인하지 않는 반란자에게 끊임없이 공격적인 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노다 시게노리(野田 茂德)의 투철한 생각은 깊은 시사를 준다.

> '아나키'라는 '말'은 근원적으로 말할 때만 '말'의 고유한 뜻을 가질 수 있다.……'아나키'라는 '말'은 실로 모든 '존재'의 원초를 뜻하는 '근원어(根源語)'였을 것이다. 이 세계의 '전(全) 존재'가 노예의 상태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 세계는 '아나키'한 '전 존재'로 시작된 것이다.
>
> 오늘날 '아나키'가 근원어로 쓰이는 일은 없다. '아나키'는 무질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아나키'의 근원과 괴리되어 '말'의 본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나키'는 국가나 정부 그리고 권력에 의한 질서, 다시 말해서 노예적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질서내에서 쓰일 때 질서파괴를 포함하는 무질서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아나키'라는 말의 본래 의미와 관계없이 권력의지의 반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아나키'라는 말을 갖다붙인 것이 오늘 아무렇게나 쓰이는 '아나키'라는 말이다. 이러한 '말'은 권력에서 노예에 이르는 질서의 회로(回路)를 선험적(先驗的)으로 받아들인 자의 '말'이다. '아나키'라는 '말'이 근원적으로 쓰이지 않는 한 그것은 노예의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뜻의 문제가 아니다. 아나키가 이렇게 근원적인 존재성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하찮은 정치적 맥락을 뛰어넘는 실재성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 '아나키즘'이란 나의 원초적 '존재'에 의해서만 '아나키'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나키즘을 유형(類型)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든 자기의 생명을 단순히 방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적 존재'라는 존재양식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원초적 '아나키'에 도달할 수는 없다. …… '아나키'는 생사(生死)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면 안된다."고 한 그의 말의 의미는 한없이 무겁다.

아나키를 이런 의미로 파악할 때 당연히 아나키스트는 특정한 정치적 신조를 갖는 사상가나 그룹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무정부사상이나 자치사상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

이, 극히 평범한 민중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아나키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다 이나다(なだ いなだ)[13]의 표현을 따르면 역사적으로도 아나키스트는 특정한 시대에 한하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또 본인이 의식하든 안하든 간에 아나키스트라고 해도 좋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의 지평(地平)은 한없이 확대될 뿐'이고, 따라서 '너도, 나도 아나키스트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키즘 사상의 씨앗은 광범한 민중적 토양에 뿌리박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정치적 운동그룹의 발생이 특수한 역사적 표현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정치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권력에게는 실로 무서운 일이다. 나다 이나다의 다음 말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정곡을 찔렀다고 말할 수 있다. "권력자는 국민을 법률로 묶고 형벌로 위협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질서 속에 가두고 지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민(愚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는 국가나 법률, 지도자 없이도 자치(자주관리)할 수 있고 인간이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렇게 중앙집권에 반대하는 사상이 소수자의 폭탄테러보다 훨씬 무서울 것이다."

'학술논문'에 걸맞지 않는 '경향적' 서론이 되었지만, 이 글의 논지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문제인식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또 아카데미즘의 권위성도 깰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객관성을 가장한 '과학적' 논문보다 민중의 실천과 체험에서 우러나는 목소리 속에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찌르는 진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나키즘의 갖가지 사상을 분류하거나 서로 관련시켜 그 성격을 논의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 다시 말해 지배권력의 사상에 맞서는 민중적 아나키 사상에는 어떠한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런 사상에는 어떤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있다.

모든 사상적 활동은 그 사상에 특유한 자연관, 영혼관, 인간관, 사회관 등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런 관념체계를 사회학이라 한다면 민중의 아나키스트 사상에도 '아나키스트 사회학'이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특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일이 궁극적인 과제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문제로 민중의 원생적(原生的)인 사상을 직접 다루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또 아무리 민중에 기반을 둔 사상일지라도 결국에 특정한 사상가의 제반 체계에 집약되기 때문에 민중이 거꾸로 그런 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작업은 아나키스트 사상가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의 사상체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13) 일본인 아나키스트.

그러나 이런 검토작업조차 없는 것이 사회학 연구의 현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과학적' 사회이론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평가가 높아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은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나키스트 사상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는 극히 미약하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나키스트 사상의 다양성, 비체계성, 비과학성에 있는 것 같다. 타까하따 미찌토시(高畠 通敏)는 "아나키즘은 역사적인 근대사회라는,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에 관여하는 자세를 문제로 하기 때문에 아나키즘 측에는 시인이나 철학자에 비해서 사회 과학자가 드물지만, 대학교수를 배출한 마르크스주의나 근대주의는 역사적 근대사회에 대한 법칙성, 경향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딛고 서서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며, 사회과학적 분석과 운동론을 역동적으로 연관시킨다"고 하여 마르크스주의를 높이 평가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아나키즘이 역사적 근대사회에서 도출해낸 핵심관념은 '자유', '반국가', '반권력'이라는 '목표가치'뿐이고 아나키스트가 현실을 문제삼을 때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인민', '노동'이나 근대주의적인 '조직', '생산력' 등의 개념을 밀수입했다"고까지 혹독하게 몰아부쳤다. 요컨대 아나키즘의 과학성의 결핍을 지적했다. 그러나 타까하따의 이러한 비판은 그의 과학주의적 사고의 독단과 아나키즘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를 드러낸 데 불과하다. 모든 형태의 억압을 원리적으로 거부하는 아나키즘은 억압의 주요형태의 하나인 과학은 물론 사회과학까지도 거부의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사회학이 사회과학에 속한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는 한, 한편에서는 아나키즘의 비과학성을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존립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깊은 논의는 여기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으나, 콩트를 시조로 하는 근대 사회학의 주류가 오늘까지 일관되게 과학주의를 표방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지적해야 하며 또 사회학이 과학주의적인 이론체계만으로 한정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결연하게 내걸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논점에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학의 성립에 대한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견해이다. 그는 물론 어떤 일정한 정치적 독단에서 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과학적 사고방법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과학주의적 사고방법을 문제삼는다. '과학주의'는 '어떤 사고습관으로, 발생한 분야와 다른 분야에 기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나아가 '주제를 고찰하기 전에 그 주제를 탐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생각'이라면서 이것은 확실히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단정한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생시몽과 생시몽주의자에서 볼 수 있는 과학주의적 오만에

대한 지적이다. 생시몽은 뉴턴에 대한 열렬한 숭배에서 비롯된 '뉴턴평의회 계획'을 제안했다. 평의회는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생리학자, 문학가, 화가, 음악가 등이 각각 3명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신을 대표하는 자'가 된다. 과학평의회는 이렇듯 최고의 정신적 권력자로 새로운 사회조직의 중앙계획 주체가 되었고 또 모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도에 나섰다.

그 이후, 사회의 의식적인 재조직에 의해서 '혁명을 종식시킨다'는 생시몽의 욕망 — 그것이야말로 '과학에 의한 반혁명'이라고 할만한 — 은 더욱더 가열된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그것은 근대실증주의와 근대사회주의의 시각이며, 이렇게 양자는 결정적으로 반동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운동으로 출발하게 된다. 과학자와 산업가가 결합한 힘에 의한 사회의 전제적 통치, 바로 이것이 생시몽 사상의 핵심이며 이러한 생각은 콩트의 '사회과학 = 사회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생각, 다시 말해서 정반대인 듯이 보이는 실증적이며 공학적인 사회학과 과학성을 자칭하는 계획주의적 사회주의가 과학과 산업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사회지배라는 반동성에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하이에크의 지적은 양자의 본질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두 가지는 이를테면 집권적인 과학 지배 사상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계획.지도이념은 민중과 민중의 자발성을 무한하게 억압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과학주의적인 사회학과 사회주의와 결별하는 지점에 아나키스트 사회학과 아나키즘의 기점(起點)이 있는 것이다.

(2) 아나키스트 사상의 계보와 기본원리

— 개인주의.연합주의.공동체주의

아나키즘의 본질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권력거부 또는 권위부정의 입장에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異論)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나키스트가 강조하는 것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혼돈스러울 만큼 다양성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자의 아나키즘 분류방법도 다양한데, 대표적 연구자인 우드 코크(George Woodcock)는 아주 간명하게 아나키스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4)]

14) 『Anarchism – A History of Liberetarian Ideas and Movements』 (1962), 『アナキズムⅠ.思想篇』 (白井 厚 譯, 紀伊國屋書店, 1968).

이성의 아나키스트 — 윌리엄 골드윈
에고이스트적 아나키스트 — 막스 슈티르너
역설의 아나키스트 — 피엘 조셉 프루동
파괴의 아나키스트 — 미하일 바쿠닌
탐험가적 아나키스트 — 표토르 크로포트킨
예언자적 아나키스트 — 레온 톨스토이

그리고 오오자와 마사미찌[大澤 正道]는 현대 아나키즘의 사상적 도정을 짚어보면서 다음과 같이 계보를 구별한다.[15)]

1. 창시자적 아나키스트 – 윌리엄 골드윈, 피엘 죠셉 프루동, 죠사이어 워렌

2. 계몽적 아나키즘을 창도한 아나키스트 –
   A. 프루동주의(전기 프루동주의 : 투우랑과 드·바브, 후기 프루동주의 : 맥케이, 랭구어)
   B. 보스톤파 아나키스트(앤드류즈, 스푸너, 택커)
   C. 개인주의적 경향의 아나키스트(슈티르너, 입센, 에머슨, 소로우, 휫트먼, 카펜터, W·에리스, 와일드)
   D. 근대학교운동(루이즈 밋셀, 프란시스코 페렐)
   E. 종교적 아나키즘(톨스토이, 두호오볼파, 핫타라이쓰 공동체)

3. 행동적 아나키즘 운동
   A. 바쿠닌과 바쿠닌주의(무정부 집산주의)
   B. 바쿠닌주의의 전개(기욤과 주라동맹, 키차예프와 체르케조프, 말라테스타, 카피로, 코스타)
   C. 프랑스의 행동적 아나키즘(루크류, 미셸, 부루스)
   D. 행동적 아나키즘의 신단계(J. 모스트)
   E. 크로포트킨과 크로포트킨주의(무정부 공산주의, A. 버크맨, 엠마 골드만 기타)

아나키스트에게 친근성을 보여 준 사회학자 호로빗츠(Irving Louis Horowitz)는 ‘아나키즘 전략과 신조의 유형학(類型學)’[16)]으로 다음 8가지로 구분한다.

---

15) 『自由と反抗の歩み — アナキズム思想史』 (大澤 正道, 現代思潮社, 1962).
16) 『The Anarchists』(1964), 『アナキスト群像』 (今村 五月, 江川 允通, 大澤 正道 共譯, 批評社,

공리주의적 아나키즘
농민 아나키즘
아나코생디칼리즘
집산주의적 아나키즘
비밀 결사적 아나키즘
공산주의적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등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아나키즘 사상의 여러 파의 분류기준이나 그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려는 데 있지 않다. 개개의 아나키스트의 특징이나 사상의 강조점, 표현에는 당연히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에서 권력거부의 입장이 관철되는 한 그다지 구애받고 싶지 않다. 자잘한 차이점을 거론하고 개인주의적 또는 조직주의적 그리고 공동주의적 신조 등 각각에 입각해서 다른 것에 대한 공격을 서두르는 – 이를테면, 개인절대주의적 입장에서 조직적 생디칼리즘을 비난하고 자기의 입장을 '순정'아나키즘이라는 주장 – 태도에는 그다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문제는 무원칙한 타협이나 겉치레로만 통일을 추진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나키즘의 존립에 대해서는 현실에 입각한 검증과 철저한 상호비판이 요구된다. 무의미한 관념상의 대립이나 항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의 계보에서 우리는 아나키즘 사상의 기조(基調)이며 중점이 되는 공통적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율적인 **개인주의**[17]와 협동적인 **연합주의**와 자치적인 **공동체주의**의 원리가 그것이다. 위 세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분리시킬 수 없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실제적 상황에서 보면 두 가지를 연계하는 매개항(媒介項)이 **연합주의**의 원리이고, 이것은 주체성을 내세우는 개인주의적 기저에 서면서 협동화에 대한 자세와 전망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배타적인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주체와 주체성을 존중하는 자율적 원리라는 데서 자유연합이나 협동화의 계기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중앙집권적인 전체주의와 대립하는 이념이며, 주체성의 존중이라는 의미의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디까지나 자

1981)에 수록된 「序論アナキズムの思想的展開」에서.
17) 이하 내용에서 굵은 글씨는 인용자인 필자가 강조한 것임.

발성과 자치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따라서 대등한 연합에 입각한 소규모의 비고정적인, 분산적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원리와 연관시켜서 개인이나 결사, 그리고 사회라는 사회학상의 기초개념을 고찰해보면, 우선 이러한 개념들이 아주 추상성이 높은 서양의 관념이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일본에 신학문 Socialogy가 들어왔을 때 번역문제로 몇 고비의 변천이 있었으며, 이것은 일본 사회학사 문헌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초가 되는 Society나 Individual의 번역에 대한 고충이 있었다고 한다.

사이또우 타께시(齊藤 毅)에 의하면 메이지초의 지식인은 동양의 전제적 절대자에 예속된 것과 달리 서양에는 자유 평등한 인민의 상호결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서양의 차이를 알았으나, Society나 Individual이라는 관념은 일찍이 일본에 없었으며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도 없었기 때문에 번역에 곤혹을 치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첫째, 동양에는 요즘 말하는 '수직사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양의 '수평사회'의 인식이 결여되었고, 둘째 일본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평등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개념이 없었으며, 셋째 사회의 개념이 아주 추상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성을 결여한 이러한 상보적(相補的) 개념은 한자어를 가지고 오늘과 같이 번역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본래의 뜻이 일본에 정착했다고 할 수 있었을까? 특히 사회의 기초인 개인의 개념은 그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개인주의가 제 마음대로 하는 이기주의와 혼동되는 경향은 뿌리깊게 남아 있다.

하기는 서양에서도 individualism의 이해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고, 그것은 아나키즘의 주장이나 운동에서 이질적인 조류를 형성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일은 유사한 개념인 egoism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자아의 독자성이나 불가침성을 주장하는 것이면서 일반적으로 altruism(이타주의)과 대립하는 배타적인 이기주의와 동의어로 다루어졌고 또 individualism과의 구분도 확실하지 않았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또는 에고이스트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막스 슈티르너이다. 유명한 그의 서언(序言)은 이렇게 기록된다. "신의 것은 신의 것이고 인간의 것은 인간의 것이다. 내 것은 신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니고, 진(眞), 선(善), 정의, 자유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나의 것[18]이다. 그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며 오직 — 내가 유일한 것과 같이 유일 바로 그것이다. 나에게는 나를 초월하는 아무런 것도 없다."

에고이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슈티르너의 말이지만 이보다 더 철저한 개인주의적 관점

18) 이하 고딕체는, 원저자 강조.

에서 독자적 사회학을 제시한 사상가로 조르쥬 바란트가 있다. 바란트는 그의 논문 「아나키즘과 개인」에서 슈티르너가 “사회는 너를 사용하지만 결사는 네가 사용한다”고 한 데 대해서 “구별지으려 해도 구별할 수 없다! 사회와 결사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는가? 결사가 결정화(結晶化)돼서 곧 사회가 되어버리는데 슈티르너의 동의 따위를 얻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빈정대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집단의 형태를 지닌 ‘결사’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다. 개인의 고유한 독자성에 집착하는 한 이런 주장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사회성까지 철저하게 부정해 버리는,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이다. 사회는 확실히 개인에 대해서 부조리한 존재이다(이러한 부조리를 일생동안 끊임없이 문제삼은 것이 시몬느 베이유였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에 대한 의존에서 일순간도 도망칠 수 없다. 만약, 사회에서 단절된 개인의 독자적인 존재성을 주장하는 게 바란트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그의 사상의 관념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개인주의는 자타를 불문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본체성을 존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협동적인 사회성으로의 계기를 그 자신 속에 내재하지 않았다면 아나키즘의 연합주의의 원리는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 사람들과의 공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자립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공동의 신화(허구, 환상)’라는 권력에 의한 강제의 사술(속임수)과 한통속이 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타자와의 대등한 공존성과 협동성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개(個)적 존재의 부인, 즉 권력의 억압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개인성과 사회성이란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 사회는 실로 개인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원하게 되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없이 개인을 능가하고 꼭 쥐고 놓아주지 않는 부조리한 힘으로 버틴다. 바란트가 말한 대로 확실히 사회와 결사 사이에 확연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고, 또 집단이나 결사에서 ‘지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억압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잠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건 인간존재 그 자체의 부조리라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자율적인 개인의 협동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어떠한 아나키도 성립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추상적인 관념에서 구체적인 세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 일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현실사회는 아니, 결사조차도 권력의지나 권위숭배와 같은 질서감각에 의해서 근본부터 독이 스며든 노예상태를 보여준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회’를 말할 때는 실은 이러한 실제의 **권력사회** 또는 **억압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그런 억압성을 갖는, 따라서 기만적인 내막을 갖는 현실사회라 해도 그건 역시 하나의 ‘사회’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회라 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오는 당면한 구속까지도 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로 여기에 인간존재의 부조리성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바란트의 주장은 시종 추상적인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일반적인 ‘사회학’과 다른 특이한 고찰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 의식과 사회적 의식을 명확히 구별하고 “개인적 의식은 명석함에서나 솔직함에서 사회적 의식에 우선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뒤르켐과는 반대되는 명제이고, 집단적 사고는 거짓이고 사려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점에서 베이유와 상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은 나 자신도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런 생각에 이르렀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를 개인주의의 대극에서 파악한 점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은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는 모든 사회적 교의(敎義)**를 말한다. (생략) 개인주의는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는 대신 개인이 그 자신의 목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개인은 고유의 가치와 자립적 권리를 가져야 하며, 사회의 이상은 가장 완전한 개인의 해방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교의(敎義)로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반개인주의적 싹이 커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과도한 관리나 규제로 나아가고,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권리를 열망하고, 맹목적이고 폭군적이고 편견에 영향받기 쉬운 세론(世論)에 의한 정신적 제재가 머리를 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사회와 개인은 서로 즉각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면서 쌍방이 모두 전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되지 않고 충돌, 대립하는 관계로 발전한다고 짐멜은 말한다. “사회는 개인들 각자가 단지 구성원이 되는 하나의 전체이기를, 그리고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이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하고 자기 개조를 이루어 마침내 완전히 이러한 직무의 최적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그 자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일본능과 전체본능은 이런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개인은 그 자신이 완전하기를 바라고, 사회의 육성을 돕는 데만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기의 여러가지 능력 전체를 전개하려 하므로 사회에서 개인의 여러가지 능력의 조합이나 교체를 요구한다 해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 요소에 대해서 부분적 기능을 요구하는 전체(사회)와 스스로 하나의 전체이려는 부분(개인)의 모순은 원칙상 해

결할 수 없다.”

그러나 추상적인 기본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개인의 다양한 자질, 능력, 정력을 그것이 바라는 그대로의 규격적 양식으로 한없이 흡수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 개인은 자신의 개적(個的) 전 존재의 의미를 굴욕적으로 부정당하면서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 사회에의 굴종을 강요당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사회와 개인 간의 이런 기본적인 힘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회중심주의를 부르짖는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의 개인에 대한 물리적 강제성의 용인자이며 인식자가 된다. 사회주의가 아무리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구성적인 계급존재를 가정하고 거기서 ‘사회변혁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인간해방’의 역사적 사명을 맡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단으로서 **사회적 힘**에 의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개인은 끊임없이 깨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은 권력을 추구하는 당파집단의 전제지배를 실질로 하는 ‘전체주의’인 것이며, 그것과 숙명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아나키즘은 불가피하게 개인주의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현대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과제

— 기술문명사회에 대한 근원적 비판의 관점

만약 ‘아나키스트 사회학’이란 것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아나키스트 사회학’이란 이름 아래 추상적 사상이나 이론을 적당히 가지고 놀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차없이 현대의 자연, 사회, 인간, 정신에 심각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데다가, 단박에 극한으로 치달을 듯한 테크놀로지 문명은 그 중압의 정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과 현대사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승효과까지 낳으며 역사상 전례없는 강력한 억압작용을 전세계 규모로 가하고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복합적이고도 강력한 압력에 스스로도 산산이 부서지면서, 흉칙하게 변하고 있는 자연이나 사회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들리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의 위구심이나 경고를 압도, 말살하는 목소리 — 인간이 이루어낸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예찬의 목소리뿐인 것이다.

인류가 지복(至福)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파국으로 달려가는 게 누가 보아도 명백한데, 거의 모든 사람이 환상에 젖어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갈 길을 잃고 있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말한 바와 같이, 고도기술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인간의 주체

성이 뿌리째 뽑혀나갈 뿐만 아니라 쾌적함과 풍요로움을 통해, 힘든 노동이나 근심에서 해방되어 저항운동 자체가 의미를 잃고 체제비판의 힘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역동적인 긴장관계를 잊은 '일차원적 인간'만 넘치게 된다. 여기에 사회변혁운동의 혼미와 거세(去勢)의 원인이 있다. 조직운동이 몰락했을 뿐 아니라 아나키즘 운동도 숨을 죽인 채 잠행(潛行)했다. 현대의 고도기술사회가 도발하는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 사상이 억압된 민중에 뿌리를 박고 있는 한, 아나키스트 운동은 불사조처럼 되살아나서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품어본다.

사실 주의해서 살펴보면, 눈부신 움직임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풀뿌리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대의 기술문명사회의 병폐와 그 본질을 근원적으로 문제삼는 다양한 비판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마르쿠제의 분석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형인데, 이것을 아나키즘의 현대적 부활이라는 논자도 있다. 에를리하겐은 이렇게 썼다. "어떤 의미에서 신좌익의 이데올로기는 현대의 사회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아나키즘을 재편성해서 부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현대의 아나키즘 이론으로 주목되는 『Anarchy in Action』의 저자 콜린 워드(Colin Ward)는, "아나키즘은 미래사회에 대한 사변적 환상과는 달리 **일상생활의 경험에 입각해서** 오늘의 사회가 확고한 권위주의적 경향에 있음에도 그것과 나란히 서서 기능하는 **인간조직의 한 형태**를 그려낸다"고 해석하면서 나아가 그것은 '**정부 없이도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한 관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나키를 조직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통념에 반대해서, 아나키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아나키즘을 바라본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이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무정부, 무관리의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일단 아나키스트의 관점에서 인간사회를 바라보면, 하늘 높이 솟아있는 권력구조의 틈새에 이를 대체할 길이 나타나 있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마음먹으면, 필요한 자재는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검증하려고 시도했다. 국가, 질서, 리더쉽, 사회구성, 조직, 도시계획, 주거, 가족, 학교, 놀이, 일, 경찰, 형무소 등등. 게다가 이런 여러 영역에서 이론만이 아니라 아나키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행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조직, 커뮤니티 페이퍼(지역신문), 아동복지운동, 공동세대, 흑인해방, 여성해방, 동성애해방, 수형자해방, 아동해방 등 끝도없이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들은 아나키즘의 말을 하고 아나키즘의 원리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정치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체

험에서 배운 것이다. 그들의 조직형태는 자발적, 기능적, 일시적, 소규모 등 천천히 부드럽게 연합한 집단인 것이다. 그들이 의거하는 것은 회원증, 투표, 특별지도부, 다수의 추종자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서 항상 증감(增減)하고 결집에 다시 결집을 거듭하는 자그마한 기능적인 집단이다. 그것은 네트워크이지 피라미드는 아니다."

그의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음 말은 더욱 인상적이다. "한편에서 지배자 일당의 얼굴만 바꿀 뿐인 혁명과, 억압을 부드러운 억압으로 하거나 단지 효율을 올리는 등의 개량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혁명과 개량이라는 구별이 없는 혁명적이든 개량적이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치를 확대하고 외부적 권위에의 종속을 축소해** 나가는 사회변혁의 길이 있다. 아나키즘이란 어떤 옷을 걸치고 있든지 모두 인간의 존엄과 책임의 주장으로서 **정치적 변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적 자결(自決)과 자영(自營)**인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콜린 워드의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주장에 현대과학기술의 파괴력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주목할 만한 고찰이 있어서 끝으로 그것을 소개한다. 머레이 북친의 저작이 바로 그것이다.

북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를 인정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인간해방의 의미까지 과학기술에 부여하려 한다. '빈곤 – 후혁명'이라는 고찰에서 그는 과거의 '빈곤'사회에서 사람들은 위계제가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에 시달렸지만, 이제 겨우 입구에 들어선 '빈곤 – 후'사회에서 사람들은 생활수단의 단순한 풍요 이상의 '생활의 다른 어떤 것'을 향수(享受)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빈곤 – 후'사회에서의 풍요는 인간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안정, 자기표현에도 충분히 반영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으며, 요컨대 '빈곤 - 후사회는 현대의 풍부한 공업기술에 가리워져 있는 사회적, 문화적 잠재력의 전면적 개화(開花)'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방의 공업기술'에 대한 이런 신뢰와 기대는 인류의 미래, 특히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과 밀착되어 있다. 그의 핵심적 주장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사회조직의 형태에 규정된다고 한 데 있다. 다음 말들에서 이런 그의 주장을 잘 보여준다. "환경의 위기를 부르조아 기구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상이며, 그것은 추방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는 선천적으로 반생태적이다. …… 이런 종류의 사회에서 자연은 필연적으로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오직 자원으로만 다루어진다. 자연계의 파괴는 단지 오만한 실패보다 자본주의적 생산논리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이건, 미래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늘 과학, 공업기술, 지식에 의해 매개되어진다. 그러나 과학, 공업기술, 지

식이 자연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자연을 개선**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회상태를 개선하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혁명이 새로운 에코테크놀로지(Eco – Technology)와 에코커뮤니티(Eco – Community)를 동반한 **생태적 사회(Eco – Society)를 창조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있는 것처럼 **인류와 자연계가 멸망하는가** 중 어느 쪽일 것이다".

그는 공업기술의 발전이 거꾸로 사회적 억압을 강화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자유의 **전제조건**을 자유의 **조건**과 헷갈려서는 안된다. 해방의 **가능성**은 해방의 **현실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공업기술의 발전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명확히 부정적인 사회로의 퇴행적(退行的)인 측면을 갖고 있다. 만약 공업기술이 자유를 위한 역사적 잠재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업기술의 부르조아적 통제와 관리가 현대의 사회조직과 나날의 생활을 보강한다는 것 또한 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업기술과 풍부한 부는 사회의 대부분을 위계제와 권위주의적 현체제에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실제적인 대중억압은 물론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나 탐사(探査, 수사)장치, 선전미디어를 체제에 제공한다. 체제의 중앙집권적인 성질에 의해서 풍부한 부는 정치적 장치에다가 독점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적인 경향을 보강한다. 요컨대, 공업기술과 부는 국가의 생활 전체적 환경을 조작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 그래서 위계제, 착취, 비자유, 차별 등을 영속시키기 위한 –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는 수단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이어, 황폐한 결과를 낳지 않고서는 사회, 환경, 자연을 통제.관리하여 개발할 수 없는 부르조아 사회가 이런 위기를 무릅쓰고 환경의 조작과 운용으로 나서리라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황폐화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열띤 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명은 통합적이고 개조적인 과학, **생태학**에 맡겨진다. 자세한 설명을 할 여유는 없지만, 이 과학이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다루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자율적인 아나키 사회의 건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연환경과 부단히 평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공동체의 창조 없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달성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힘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과학기술 그 자체에 내재하는 전문가의 오만한 억압과 지배에 대한 본능적 불신을 쉽게 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문명에 대한 근원적 비판[19]에 관한 고찰은 이제 다른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

19) **인간중심적인 자연지배사상**의 필연적 산물인 자연과학에 관한 근원적 비판에 대해서는, 내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太田龍의 소설(所說)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싶다. 『いのちの革命(생명의 혁명)』 (太田龍, 現代書館, 1980), 『何から始めるべきか(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가)』 (太田龍, 風濤社, 1981),

을 것 같다.

『性の革命(성의 혁명)』(太田龍, 現代書館, 1982) 등.

무까이 꼬오 – 방법으로서의 아나키즘[20)]

– 운동의 방법론과 아나키즘에 대한 장시간 대화(1995. 11. 2)

벌써 6년 전 이야기다. 이 글은, 나이나 관심이 서로 다른 친구들이 AAA 모임이라는 아나키즘 세미나를 시작했을 때의 것으로, 무까이상[21)]과 처음으로 직접 얘기했던 때의 기록이다. 이번에는 이 사람, 다음에는 저 사람 하는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기획했는데, 나는 두 번째 세미나의 기획으로 무까이상을 생각했다. 우선, 이누야마(犬山)[22)]로 전화하니까, 강의 같은 것은 안한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도저히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둥그런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하는 공개인터뷰 형식을 생각했다.

이 날 무까이상은 패전직후의 아나키스트연맹 시절부터(1946년), 60년대, 70년대의 베트남반전, 80년대의 원전반대 운동에 이르기까지 대충 50년간 자신이 참가한 운동을 되돌아보면서, 운동론을 얘기해주었다. 질의응답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폭력론을 싸고 서로 엇갈리기도 했다. 20대 친구들이 한 20명, 그밖에 너댓 명의 나이든 사람들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좌담형식으로 하기로 했지만, 초면인 탓도 있고 역시 얘기하는 사람은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딱딱했었다고 기억된다(한잔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금방 친숙해졌다).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새로운 스타일의 운동으로 전개할 것인가. 그 당시 친구들과 자주 얘기했던 주제다. 아나키즘의 철학적인 가치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나키즘의 방법적 가치가 아닌가. 아나키즘에 공감하는 사람이 모여봤자, 구체적인 운동의 전개방법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기존의 운동은 시시하다. 그렇다면 우리들끼리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을까?

---

20) 『Anarchist independent Review(AIR)』 10호(최종호, 2001, 봄)에서 번역.
21) 상(さん)은 일본식 호칭, 우리말의 선생에 해당.
22) 무까이 꼬오의 현 거주지, 오오사까에서 토오꾜오방향으로 2시간 정도의 거리.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테마를 무까이상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한 것이다. 무까이상은 아나키즘의 방법론적 가치를 계속 추구해 온 사람이었다. 만약 '자유'가 '자유를 찾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면, 무까이상은 그의 행위로서 아나키즘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게다가 무까이상이 이미 40년 전부터 기존 운동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바꿔보자며 실천해온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들은 그후 무까이상에게 들은 것을 토대로 아나키스트 「AIR」 잡지 7, 8호에 조그맣게 무까이 꼬오 특집을 실었는데, 지금 새삼 그 글을 다시 싣는 것은 「AIR」의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서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아나키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인 것이 이 속에 보석처럼 박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 1 부

– 그럼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나까지마(中島)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을 가시마 주이치(鹿島 拾市)군과 제가, 이를테면 공개인터뷰 형식으로 무까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휴식한 후에는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모임을 갖게 된 동기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나 가시마군은 8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이나, 천황이 대를 바꾸는 시기에 있었던 반천황제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아나키즘이 좋았기 때문에, 반천황제 집회에 나가면서 동시에 아나키즘 간담회라든가, 이런 모임같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아나키즘계통의 작은 모임에 혼자서 얼굴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이와 유파가 다른 아나키스트와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동시대적 운동의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는 여간해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x-day집회 이후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특히 후미에삐라를 뿌리는 오오사까의 무까이상은 우리와 같은 동시대인과 운동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연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오무(イオム)』[23]통신이라든가 『비폭력 직접행동』[24] 등을 읽었는데,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23) 무까이상의 개인 소식지(Newsletter).
24) 무까이상이 대표로 있는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JAPAN 소식지.

— 가시마입니다. 고교때 80년대 중반부터 반원전운동에 흥미를 가졌는데, 반원전 자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유럽의 부지점거 등의 운동을 알고 '아, 정말 재미있겠다'고 생각해서 흥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좌익운동은 무슨무슨 반대는 표현할 수 있어도, 그 운동자체에 이러이러한 재미있는 일도 있다고 제시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반원전사전』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예상과 달리 단조로웠던 그 책에 무까이상과 미즈따 후우의 대담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기요금 거부연대[25]가 재미있어서 무까이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사고가 일어나고, 저도 삿뽀르[26] 혹께(법화종)에 나가고……, 반천황제 전국개인 공동투쟁, 아끼노아라시(秋の嵐, 천황제 반대모임)에 참가하고, 스피커즈 코나(スピーカーズコーナー, 반원전운동)까지 여러 집회에 나갔습니다. 아끼노아라시 운동에는 전에 없었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비폭력 직접행동』이라든가『좋잖아, 꽃구경하면서 펼치는 게릴라전 이야기』[27]을 읽고 '아 ~ 이 책이야말로 내가 찾던 책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비폭력 직접행동에 관한 무까이상의 글은 이론적인 대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그때 운동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요약이 안됩니다만……. 그래서 너무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운동의 현장에서 이러저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임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홈리스(노숙자)지원운동을 하면서 그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는데, 아나키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웃음) 아나키즘의 깃발을 달고 하는 운동은 그다지 없지만, 깃발을 걸지 않은 곳에서 아나키즘을 하고 있는 곳은 실제로 얼마든지 있고 그런 분위기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무까이상이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습니다.

무까이 : 이노껭(イノケン)[28]이나 아끼노아라시(秋の嵐)에 대해서 나도 친근감이 있지만,

---

25)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운동으로, 원자력반대운동이 아닌 전기안쓰기운동. 마루끼 이리와 마루끼 도시(부부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마루끼 전시관의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여섯 명이 가면, 두세 명은 밖에 있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고, 두세 명은 관람하는 식이다.
26) 일본의 북단 홋까이도오의 행정수도.
27) 『エェジャナイカ、花のゲリラ戰記』(무까이 꼬오·미즈따 후우(水田 ふう), 1989, 徑書房).
28) 하루주꾸의 노점. 경찰단속에도 노점을 강행, 운동처럼 진행됨.

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둘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했지. 그렇지만 아나키즘에 대해 얘기를 하자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어. 그 사람들이 아나키스트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친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친근감을 갖는 거지.

아나키즘운동의 어려움

나까지마 : 처음부터 좀 색다른 질문입니다만, 무까이상은 아나키즘을 내걸지 않고서 운동을 해왔는데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된 계기나 이유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까이 : 그건 말이지, 차츰 그렇게 된 것이지만……. 남들이 60년대 70년대에 나, 무까이가 한 것이 시민운동, 문화운동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확실히 맞는 말이야. 나는 운동으로서 아나키즘을 유별나게 내세우지 않았고 어느 때부터는 의식적으로 아나키즘을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오해나 곡해를 무릅쓰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가지 의미에서 아나키스트끼리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야.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잘 안되거든.

아나키스트끼리 하는 운동은 좀처럼 재미가 없었어. 서로가 좀 친해보자고 두번이나 세번 만나지만 점점 힘이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풀어지지 않는 거야(발산이 잘 안된다는 거야. 뭔가 확 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운동은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거지. 그럴 때 "좀더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그건 여간해서 나오지 않아. 하기는 아나키스트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운동이란 당연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건 나뿐일 거야.

그래서 1965년경부터 '아나'라는 간판을 내걸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운동을 하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운동이) 아주 편해졌어. 해야 할 일도 이것저것 생기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게 "넌, 그래가지고 아나키스트냐?"라는 아나키스트 동지의 말이 들리면, "그럼요, 물론 아나라고 생각하죠." 라고 대답하지만, 만일 "그렇게 말하는 너의 아나키즘이란 도대체 뭐냐?"하고 다시 물어오면, 그런 질문을 받고 서로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때 "아니지, 나는 그런 아나키즘은 아니지." 하고서 그냥 꼬리를 감추는 식으로 해왔다고 할 수 있지.

나까지마 : 아나키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무까이 :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나에게는 이런 게 우선 있었어. 전쟁이 끝나자 곧 아나키즘 연맹에 가입했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나키즘 연맹을 내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내 처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거든. 나는 고향 히메지에서 시작했었으니까. 히메지는 아주 시골이야. 동아리라고 해봤자 아나키즘 연맹에 가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있다면 코오베에 두 사람, 오오사까에 대여섯 명, 이런 정도가 일년 사이에 아나련에 가입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 그 후 히메지에서 함께 아나키즘을 하자는 사람이 두세 명 나왔고, 그 주변에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같이하는 사람이 열에서 스무 명쯤 나왔지. 이런 형편이었어. 모두 『평민신문』독자 같은 거였지.

나는 아나련에 별다르게 아나키스트로, 아나키즘이란 바로 이거다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야. 이런 점이 매우 불분명했지. 그 당시, 전쟁 직후에는 엄청난 정치적 계절이 찾아왔었어. 그러한 바람을 타고 나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 때 주위의 친구들은 모두 공산당에 들어갔어. 그래서 한동안 나를 비롯해서 주위 분위기는 공산당 천하가 되어서, 물론 일반시민은 아니었지만, 흡사 공산당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를테면 전쟁 중에 군부가 사회전체를 장악한 것 같은 시기였지. 그런데 전쟁 때 특고(특별고등경찰)에서 나를 좀 귀찮게 한 히메지 경찰형사 놈이 경찰에서 쫓겨난 후에 돼지고기 장사를 하면서 공산당원이 된 거야. 그런대로 공산당원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런 자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쑤욱 들어간다, 그런 공산당과 내가 어떻게 같이 하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지. 전쟁 때였으면 '이 새끼 언젠가는 콱 찔러죽이고 말겠다'는 원한 정도쯤 품고 있게 마련인데 말이야.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잊혀질 수 있지만, 그 놈은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유행했어. 그것은 요즘과 달라서 신선한 의미도 있었지만,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맘에 안 드는 거야. 이래저래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때 아나련이 생긴 거야. 난 그걸 보고 들어가게 된 거야.

나까지마 :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무까이 : 내가 구제중학(1학년에서 5학년까지)이지만 중학교에 다닐 때는 책 한 권이 1엔 했는데, 그 때 세계대사상전집인가에서 『상호부조론』같은 것을 읽은 적은 있지. 크로포트킨쯤 될 거야. 『전원, 공장, 작업장』등등. 자세한 것은 모두 잊어버렸지만 '상호부조론' 하는 말은

알고, 기억하고 있어. 그것은 민주주의보다도 훨씬 깊은 느낌이었지. 그리고 어머니가 공습에 타다 남은 가정백과사전을 갖고 있었는데, 백과사전이라지만 10cm 두께쯤에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 장례를 치르는 방법, 뭐 그런 것까지 있는 사전이었지. 거기 사회지식이라는 부분이 있었어. 1942년에 발간된 것인데, 아마 틀림없이 전향자나 좌익계열의 사람이 편집자에 섞여서 그 부분만을 쓴 게 아닌가 하는데, 아나키즘이나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그런대로 쓰여 있었지.

■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의 번역어로 무지배, 즉 일체의 지배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을 지배하는 일체의 권력을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을 절대자유의 경지에 두려고 하는 이론이다.

아나키즘은 동양에서는 석가의 가르침이나 노장의 철학에도 있으며, 희랍에서는 스토아학파의 시조, 제논의 사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근대아나키즘은 골드윈, 슈티르너, 프루동 등이 그 시조가 된다.

■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바쿠닌은 도덕이나 인류의 상호부조를 전제로 토지, 노동기구 등 일체의 생산기관을 사회의 공유로 하자는 점에서 집산주의적이지만, 마르크스주의처럼 중앙집권적으로가 아니라 지방분권적으로 하자고 했다. 또 바쿠닌의 직계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신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강제적 지배를 소멸시키고 각자는 완전한 독립을 지키면서 지역적, 직업적 집단을 형성하고, 이른바 "각자는 능력에 따라서 노동하고, 각자는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현존의 사유재산제나 임금제를 공격하고 개인소유의 토지, 광산, 철도, 은행 등을 모두 국가소유로 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집중하려고 하지만, 아나키즘에서는 이런 일들은 옛날의 폭군에 대신해 새로운 폭군을 가져오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하여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발휘하려고 한다.

- 『가정백과사전』에서

아, 이만하면 되었구나 하고 아나련에 들어갔어. 본격적으로 아나키즘이 뭐냐 하는 식이 아니라 거의 우연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온 것이란, 모두 그다지 필연성이 없어. 우연이지. 나는 '우연의 필연화'라는 말을 잘 하는데, 나는 우연은 차츰 필연화되어 가는 것 같은,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되고 나중에는 '헤어질 수 없어' 하는 착각 같은 필연말이야,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연맹에 들어갔던 거야. 연맹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생각했지만, 『평민신문』이 배달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것이 공산당 흉내야. 공산당에 대항하는 …. 하지만 그쪽은 사람이 많고 나는 혼자 아냐? 그런 상황에서 니시하리지구 중립노동조합을 '중립'이라는 것으로, 아나적 입장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거야.

나까지마 : 그러니까, 공장에 오르그(조직)로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말이죠?

무까이 : 난 당시 조그만 공장의 공장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공장사람들에게 조합을 만들라고 하면서 공장장이나 과장쯤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직장장이 되어서 하면 된다잖아. 법률적으로는 이것도 위법이었지만, 그럭저럭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의 서기장이 되었지.

그리고 전후(戰後)라서 아직 오르그(조직)가 없었던 미쯔비시전기회사 같은 데서 산별노조 같은 것은 조직되지 않았지. 그런 노동조합들을 방문해서 약 20개 정도 모아들였어. 모두 조그만한 곳이었는데, 미쓰비시가 가장 컸고 모두 해서 8천 명 정도 되었지. 코오베에 사따게 유시오(佐竹 良雄)씨에게 도움을 받아서, 전국조직이었던 일본노동자회의에 가입했었지.

8천 명 정도 되면, 지방에서는 상당한 세력이지. 그래서 자주관리, 즉 아나련에서 말하는 간부교대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 토오꾜오에서 시계노동조합이 자주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히메지에서 응원을 하러 가서 그쪽 시계를 가져다 팔기도 했고. 그것도 1년쯤 되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야. 한 3년쯤 가서, 그만 집어치웠는데, 내가 손을 떼니까 그냥 허물어지고 말더라구.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드러나게 된 거지. 그밖에 '반세금투쟁'에서 세무서장실을 점거(그것도 30분간)했었지. 그러나 결국은 모두 공산당 흉내지. 실천내용은 전부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야. 일상적으로 공산당이니 아나키즘이니 해서는 안되는 거야.

여하튼 아나련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시작은 했지만, 처음에 나섰던 그 각오 같은 것은 어디로 갔는지, 내 생리에 맞지 않게 되어서 아나키즘은 재미있지만 아나운동은 어려워졌던 거지.

나까지마 : 아나키스트의 입장에서는 맑스주의자처럼 지도적인 조직체로서의 당파적인 운동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무까이 : 그렇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는 뚜렷한 답변이 없었던 거야. 오래두고 나 자신도 몰랐었어. 그저 단지 아무래도 공산당식 방법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

히 알았다고 생각해. 아나련에서 지령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 그래서 그만두었지.

나까지마 : 공산당식 운동과 같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거죠?

무까이 : 그건 말이지, 누구나 운동이라고 하면 지령 같은 게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것을 바라고 있잖아?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 운동이라는 것은 모두 그랬거든.

나까지마 : 그럼 무까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까이 : 나 자신, 몇번이나 '공산당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 늘 소수로 고립해서 뭐, 의욕적이기는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한 가지 역시 나는 누가 뭐래도 아나키스트라고 생각한 것은, 히메지의 니시하리지구 노동조합회의에서 합동 메이데이 실행위원회를 할 때였어. 내가 "메이데이 축제분위기 절대 반대다!!" 라고 해서 대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평민신문』메이데이 특집호에 "축제 메이데이 반대" 라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었어. '아 그러면 그렇지, 역시 아나야, 아나지. 아나는 서로 통하고 있구나.' 이런 게 오직 한 가지, 어딘가 동지가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을 기억에 남겼지. 그러나 그것은 서로간의 문제였을 뿐, 메이데이는 역시 축제분위기나 전투분위기가 예년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이러나저러나 역시 마찬가지야.

좀 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전후 제 1차, 제 2차 아나련의 역사와 의미는 아나키즘을 믿는 약간의 아나키스트가 있었다는 것뿐, 그러한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알리바이를 남겼다는 정도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사사모토군 등의 '베트남반전 직접행동위원회' 밖에는 거의 없어. 아나련도 그랬었지만, 초기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에서 운동방침이니, 뭐니를 정했지. '대회'라면 국제정세, 국내정세 등등 공산당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맹의 사무국은 사무국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었지. 잘도 그런 걸 만드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실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까지마 : 무까이상은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는 뭘 했습니까?

무까이 : 그러한 상황에서, 문학청년이었던 내가 시작한 것은 문화운동인데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반전운동을 했지. 이런 것은 나 개인의 신조같은 것이었지 아나운동은 아니었어. 나 자

신이 지향하는 것이 그랬단 얘기야.

나까지마 : 시(詩)운동은 그 전부터 시작했던 게 아닌가요?

무까이 : 그건 47년부터야. 46년 여름부터 생각하다가, 잡지로 만든 게 47년 2월이야. 그러니까 전후 상당히 이른 시기지. 그래서 『이오무』동맹이라는 시인그룹을 하면서, 히메지의 문화인을 상대로 하는 문화단체 '城펜클럽'에 참가했지. 그곳에서 사무국을 맡았는데, 실제 운영은 거의 내가 담당했어. 문화인이라면 지방명사였으니까 그들을 움직인다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흔히 공산당이 하는 식이지. 뭐, 말하자면 사무국에 당원을 집어넣고 거기서 보수를 받거나 보수의 반을 받는 식의 월급쟁이지. 그러나 나는 월급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회비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프락치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었어.

거기서 평화나 반전의 호소문을 만들거나 강연회를 열었지. 그 당시…… 1955년 초경에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城펜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단체를 모아서 문화단체 간담회 같은 것을 만들었지. 공산당이 불법화되자 공산당은 지하에 숨었고, 우리가 점령군 아래서 반전평화운동…… 같은 걸 했던 거지. 54년 비키니 수소폭탄실험, 60년 안보투쟁, 70년 전공투,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운동 국민연합), 우먼 리브(リブ, 여성해방운동)…… 이렇게 사회가 흘러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아나키즘 운동과 별로 관계가 없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의 파도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그러한 파도에 실려서 흘러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운동에 관계하면서 아나키즘을 그때그때 제기되는 운동 속에 전개했던 거지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운동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아나키즘 운동을 창조하려고 했던 거야.

나까지마 : 흑기를 내걸고서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식의 고전적 스타일이 아니라, 아나키즘을 방법적 개념으로 했단 말입니까?

무까이 : 아나키스트는, 원리원칙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만 주장하고 있잖아. 그게 나는 좀 이상해. 그런 말만 하다가는 이즘(주의)에 결박되어 움직일 수 없게 돼. '대체 아나키즘이란 뭐냐' 하는 식의 이론을 나는 좋아하지 않아. 물론 고전적인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쓰여진 이론이 있으면 되는데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어. 그렇다면 내가 쓰면 되겠는데, 그건 어려워. 내 스스로 남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해.

운동의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저 방법을 변화시켜 나가다보면 운동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늘 운동의 방법론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었지.

나까지마 : 그러한 방식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무까이 : 그 시작은 63년의 국제평화행진과 베트남반전운동이지. 그렇지만 나는 베트남반전운동에 가맹한 일은 없어. 그쪽에서 우리와 같다면서 나에게로 다가왔지.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베트남반전 히메지행동'이야. '히메지 베평련'이 아니야. 그때는 고교생, 중학생들도 많이 나왔었지. 그래서 말이지,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이런 데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해봤자. 그게 그거지……

반운동(反運動)으로서의 운동

내가 원.수폭금지운동에서부터 안보투쟁으로 나아가서 베트남반전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와중에 다른 운동단체와 같이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대중단체의 일부분이 되어서 활동했는데 그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운동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이것은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어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감히 말한다면, 모두가 다같이 반운동의 운동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아마 베트남반전운동 전부터였던 것 같아. 특히 70년대 후반에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나까지마 : 기존 운동에 대한 안티테제로 말입니까?

무까이 : 사실 반운동으로서의 운동이라는 건 이상하지. 운동하면서 반운동이라니, 이상하지 않아? 운동을 바꾸는 데 반운동으로 바꾸다니, 운동의 방법으로 운동을 바꾼다는 뭐 그런 뜻이지.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 시민이나 주부가 운동을 하는 데 희망이 있는데 그들은 대체로 운동이라면 싫어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운동이 재미있지 않으면 안 해. 그래서 운동은 재미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 데서 주체적인 운동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돼. 반운동으로 기성의 운동을 깰 수 있어야 해.

그런데 말이야, 그 운동의 주체가 발견되지 않는 거야.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는 아나키즘 책을 읽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여간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 단 한가지

의 방법이 통일이 아니라 자유연합인데, 그런 것을 말해봤자 실제로 되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운동을 방법으로 하자는 것과 그러한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쯤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까. 아직 확실히 찾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자유연합의 구체화

나까지마 : 『이오무』 독자들과 함께 후미에삐라[29]를 전국에 살포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실험이 아닌가요?

무까이 : 『이오무』라고 해봤자 300부에서 500부쯤 되는 것을 이십칠팔년쯤 했지. 333은 빠징코에서는 앗따리숫자(대박숫자)니까, 전부터 정하고 있었어. 300호쯤에서 그만두었지만, 그게 바로 내 식의 자유연합이었던 거야. 받아보는 사람은 독자지. 그것도 그냥 독자지, 제각각인 – 가끔 만엔짜리 삐라 같은(오늘 여기 견본을 가져왔어, 이것. 신문호외도 가져왔어) 이상한 것을 그냥 독자들에게 보낼 뿐이야. 후미에 삐라의 경우에는 몇장쯤 보내놓고, "싫으면 버리세요. 하지만 재미있으면 정월 초하룻날 아침, 신사나 절에 갈 때 길바닥에 뿌리세요"라고 했더니, 좀더 보내달라는 사람이 70명쯤 나왔던가.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면서, 8만맨가, 5만맨가 만들었지. 독자가 일본전국에 있으니까, 그걸 일본전국에 뿌리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됐지.

이걸 하는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래는 거야. 그렇지만 하고나면 이것 참 재미있거든. 소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걸 두세 번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하는 소리가 들려서, "웃기지 마라. 왜 나만 보내니? 때론 너도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교류가 되었던 거야.

여하튼 그러한 전국적인 배포가 있을 때만은 경찰도 깜짝 놀랬지. 어떤 조직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아무 조직도 없으니 그들도 별수없었지(경찰에 불려다니고, 미행이 붙고 하는 뒷얘기도 있는데……).

나까지마 : 그런 공동행동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까이 : 글쎄, 어떻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재미있다고 할까, 이것 한번 해보자는 식의 호기심을 이끌어냈다는 것과 보통 통신이 오고가는 데서 만들어진 신뢰관계가 아닌가 모르겠어.

---

29) 지폐에 천황의 얼굴과 천황제반대의 내용을 담아 삐라로 뿌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함.

그렇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네번인가, 다섯번 경찰에 불려갔어. 내가 경찰에 불려갔다고 하니까, 모두 깜짝 놀랬지. 나에게는 왜 안 올까 하면서. 그런 문제는 많았는데, 예를 들면, 삐라를 받았는데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말에 허둥지둥 뒷산에 모두 파묻었다고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고, 자기집 근처에 뿌리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기후현에서 일부러 카고시마까지(1,000km가 넘는다)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서도 가슴을 두근두근 죄면서 500장쯤 뿌리고 왔다는 사람도 있었어.

나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었어. 재미가 있다는 식으로, 뭐든지 하면 좋다는 기분을 만들어 가면 그게 운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유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알듯 모를 듯한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라고 생각해서 관계론 하는 것이 나왔어. '구경꾼론', '도와주는 사람론'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구경꾼론이나 도와주는 사람론이나, 뭐 적당한 그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야.

나까지마 : 통일보다 연합을 하는 면에서 얘기를 하면, 자유연합적인 조직의 방법이나 생각은 무당파운동 중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어렵죠. 자유연합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무까이 : 가령, 나다 이나다 선생 같은 이가 쓴 것을 보면 그는 명확하게 아나키스트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을 새삼스럽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아나가 아니라 오히려 맑스주의다, 무당파다, 시민이다, 하는 사람도 모두 한데모여 뒤섞인 형태로 뭔가 되는 것이 자유연합이라고 생각해.

자유연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거야말로 자유연합이다'라며 하고 있으면…….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좋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자유연합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은 이러니저러니 서로 헐뜯게 되고 통일 조직도 섞일 것 아니겠어?

나까지마 : 교조주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무까이 :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운동', 이런 문제에 대해 새삼 내 생각을 말한다면, 거기에는 '통일성'과 '자유연합성'이라는 식의 두 가지 질과 방향성이 있어. 전자는 말할 것도 없이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적 특성으로, 좀더 확실히 얘기하면 '정치적 운동'이지. 먼저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치사상을 선전보급하고, 거기에 동조공명하는 동아리들을 획득규합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 조직확대를 위한 회합, 학습회, 강연회 등을 여는 끼리끼리 '지껄

여대는 운동'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나운동도 똑같아. 후자는 각각 테마, 과제를 내세우는 시민적 대중운동이라고 할까. 문화운동을 포함해서 취미와 기호.일상생활에서 공통된 이해, 입장, 역할, 조건에 따라서 제기되는 개별적 문제에 직면해서 제기되는, 말하자면 문제해결의 운동이지. 이것은 "하여튼 하자", "해야 한다"는 말만이 아니라, 조직화되면 조직화될수록 통일지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를 흡수해 버리게 되지.

나까지마 : 그 때 운동의 주체에 대해 무까이상은 어떤 이미지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까?

무까이 : 그런데 말이야, 세상이라는 것은 운동이 있든없든 커다란 흐름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인 아저씨, 아줌마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그들의 관계는 구경꾼론, 도와주는 사람론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 뒤섞여가면서 만들고 있는 것이지. 나는 이러한 흐름의 운동을 역사론에서 보고 있는 거야.

좀 얘기가 비약되지만, 메이지 전후의 미야자끼 여덟 형제 중 형은 세이난전쟁에서 죽었고 그 뒤에 미야자끼 다미조오나 도우데이는 토지균등론을 부르짖으며, 중국혁명을 도와준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지만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 일생동안 그들이 추구한 것은 오십년, 백년이 지나서 이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 좀더 낙관적인 사례도 있어. 지금부터 70년전 내가 어렸을 때는 아녀자들은 법적으로 호주의 하인 같은 존재로 남자가 "사랑해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확실한 구분이 있었어. 그러던 것이 지금은 나같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여자들 말하는 걸 들으면 깜짝 놀라게 돼. 옛날 같으면 "무엄한 년" 하고 쳐 죽이는 일도 얼마든지 있었거든.

이런 것은 시대의 진보가 아니라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옛날의 나까지마 쇼오엥, 히구찌 이찌요오, 후꾸다 에이꼬오 등등 그야말로 많은 여자들이 그때그때 이러저러하게 말한 것이 지금에 와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물론,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나 요구가 완전히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그런 것들은 시대가 흐르면서 과장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데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그 위에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변화시켜나가는 것으로 봐야 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삼십년, 오십년 후에 실현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포함해서 100분의 1, 50분의 1, 10분의 1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아나키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글쎄 간단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봐. 지금 현재 그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는 그때그때 확실히 검증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말이야. 역사적 위치에 내가 어떠한 형태로서 있는가의 문제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워서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

시민운동의 행방

영국에서는 60년에서 65년 사이에 핵을 반대하는 올드 마스턴 행진이 있었고, 버트란트 러셀이 제안한 100인 위원회같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뒤엉켜서 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분위기가 있었지.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무렵 아직 그런 건 없었어. 그런 상황을 또 한가지 든다면, 요즘 한국이나 대만,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원전반대운동이 있어. 이런 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야.

가령, 오늘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일본에서 시민운동다운 것은 최근 80년대 후반에야 생겼어. 그 전에는 없었던 거지. 시민운동으로서의 의미와 질 같은 것은. 기성정당이나 기성정치운동에서 겨우 움직이고 있었을 뿐, 싹이 틀려고 하면 거의 모두 정치운동에 의해서 잘려나갔어. 나는 이런 상황의 돌파구가 반원전(원자력발전소반대)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78년경부터 반원전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 원전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 나로서는 운동의 형태를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하고서 시작했던 거지.

나까지마 : 『비폭력 직접행동』에서는 흔히 말하는 운동의 방법 같은 것을 테마로 삼고 있었는데,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논의하는 일은 여간해서 없지 않나요?

무까이 : 없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면 곧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거야. "데모를 하자. 이번 데모는 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하면 얘기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지. 그때 어떤 데모든지 하겠다는 말이냐고 물어보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하지.

나까지마 : 보통 집회와 데모는 다섯번쯤 나가면 그만하게 되는데?

무까이 : 그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모두 싫어하지.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 이론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당파성을 지닌 사람이거나 그 영향을 받은 운동관을 가진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운동이 이럭저럭 있다고 생각

해.

나까지마 : 이른바 전위당 비판같은 책을 읽어도 옛날 얘기구나 할 정도고, 지금 실천에는 당파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다기보다는 열 사람쯤 되는 시민운동그룹들이 활동하거나 연합하거나 하고 있죠. 그런 것을 거의 의식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무까이 : 그렇지. 그것은 이제 조직에 묶이는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아직 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야. 이것은 재미도 없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연관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시민운동이 가까스로 요즘에야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10년이나 15년 빨리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일본도 이대로 나가면, 좋든나쁘든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야. 유럽이나 미국의 운동이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 일본의 장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

나까지마 : 시민운동이 생긴 게 80년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운동의 질이 어느 만큼 변했는지, 무까이상은 운동의 작풍이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까이 : 그렇지. 한 10년 걸린 거야.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때는 조금 흥분했었거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운동은 엄청 침체되어 있지만, 그때의 감각과 경험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해. 70년경, 말하자면 우리가 반운동 비슷한 것을 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의 방법에 대한 저항이나 위화감 같은 것은 아주 없어졌어.

내가 비폭력 직접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게 55년경부턴데, 그 당시에는 웃음거리였지. "비겁한 놈", "뭐 어쩌고 어째, 비폭력 좋아하네", 이런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요즘 와서는 좀 이상해졌어. "뭐라고? 당신이 비폭력이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통속화됐지.

나까지마 : 냉전이 붕괴되고, 지금은 운동의 표면에서나 깊은 곳에서나 이러저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상만으로는 88년 당시보다 대단히 후퇴했죠?

무까이 : 엄청난 후퇴지. 대후퇴라고 할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흐름이야. 그 당시 "토마리가 토마레바 미나 토마루"[30]라고들 했잖아. 그런데 나는 거꾸로 말했지. 토마리 발전소가

30) 토마리(홋까이도오 지역)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되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된다는 의미.

정지되면 운동도 정지된다고. 88년 당시 나는 필사적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제부터다 하고 시꼬꾸에 갔는데, 엄청났어. 토오꾜오에 갔더니 2만 명이 모였지. 5, 6, 7월에 토마리운동이 전개되기로 했었지. 그래서 나는 5월에 토야마(오오사까 인근 발전소 건설예정지)에 가 보았고, 그 다음 마쯔에(오오사까 인근)도 갔지. 그런데 흐름을 보니까, 이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토마리에 안갔던 거야.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안갔지.

나까지마 : 그 무렵에 이미 초라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무까이 : 그래. 별수 없잖아. 대체로 그렇게 되었던 거야.

그리고 다까마쓰(88년 반원전 출력 반대 운동이 일어난 곳)에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지. 다까마쓰까지 말이야. 그 전날 밤 무슨 집회가 있어서 거기 참가하느라고 비행기를 탔던 거야. 그때 이러저런 해프닝이 있어서 재미있었지만, 그때부터 차츰 안되게 되었어.

또 히다까(오오사까에서 가까움)에서도 있었어. 히다까는 우리 일이잖아. 그래서 갔는데, 다까마쓰에서 재미있어서 히다까에서도 재미있을 거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왔었지. 현지에는 대체로 사회당 계열이 리드하고 있었는데, 어업조합이나 노조에서 많은 사람이 왔었지. 그런데 오오사까에서 온 우리들이 표면에 나서서 움직이면 혼란스러우니 자기들 지휘에 따라달라는 말을 들었어. 우리들은 저쪽(기동대)에서 밀고 오는 길 위에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40명쯤 되는 여자들이 벌렁 드러누워서 "자, 마음대로 밟아라"하고 소리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편이. 그래서 시꼬꾸에서 했던 일을 거기서는 못하게 되었고, 다시 운동의 방법론이 문제가 된 거지.

나까지마 : 무당파쪽에서도 당파와 비슷한 운동감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무까이 : 그래, 그렇지. 운동이라면 모두 그런 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좀더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시민운동 단체도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지. 그런 체질이 강한 단체일수록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흐물흐물하게 되었는데, "애기를 사랑해, 생명이 중요해"라며 무리를 지어서 한 달쯤은 남편과 이혼도 하면서 집을 나갔던 그룹은 지금 모두 없어졌어.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리라고 생각해. 반쯤은 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틀림없어, 일어날 거야.

코오베지진[31])을 전후해서

나까지마 : 최근에 일어난 코오베지진 후의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까이 : 난 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90년 『이오무』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것으로 끝이구나'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하려고 했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텐트마을'이야. 92년이었지. 그것은 운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나키즘에 대해서도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면 늙은이 냄새가 나게 되는데, 할 수 없잖아. 나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면 옆에 서서 손뼉치고 해라해라 말하지만, 맘에 들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이제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나까지마 : 『이오무』 호외에서 「내가 현지에 있었으면 이렇게 했는데」를 썼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의 반기지, 반전 같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원운동 네트워크로 전환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진이 나고 종교단체 등이 오히려 그런 것을 했을 뿐, 운동의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요? 반원전 네트워크는 반원전을 위해서, 반전 네트워크는 반전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든가 말입니다. 『이오무』에 쓴 것같이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까이 : 그건 운동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진 탓이야. 여러 운동단체에서는 일상시에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코오베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일주일쯤 해서 가능성이 방향전환을 해버렸지. 체제쪽에서 일주일 뒤 조금씩 얼굴을 내밀 때, 볼런티어들은 빨라야 2주일이거나 1개월이 지난 후야. 좀 어렵지만, 닷새쯤 지났을 때 현장, 즉 소학교 등 피난민 숙박소를 먼저 돌아다녔어야 했던 거야. 『이오무』에 그런 얘기를 조금 썼는데, 그때 일방적 상황이란 그런 게 아닌었던가 해. 그래서 비로소 다음 문제가 나오게 되지.

나까지마 : 무엇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까이 : 쉽게 말하면, 누군가 먼저 나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모두 일어서게 되는데 하고서 말이야. '아, 나도 그대로 코오베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 전날 다까시마 요오의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31) 1995년 1월 19일 아침 5시 발생한 코오베 대지진.

이누야마 우리집으로 돌아왔는데, 대여섯 시간이 지나서 지진소식을 들었거든. 그런데 벌써 나는 나이가 나이인데다가, 기운도 없고, 뭐 일이랄 게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 정도는 제공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호소라고 할까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웃에서 대여섯 명 정도가 왔지. 그래서 그들과 같이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거야.

나까지마 : 그건 이를테면,

무까이 :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재해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야. 이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외에 보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의 문제를 행정이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외쳐대는 거야. 이것이 곧 자치조직의 시작이지.

나까지마 : 운동측에서 일제히 움직이지 못한 것은, 무슨무슨 반대하는 이념적인 것만을 생각해왔던 것이 질곡이 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의 몇 달을 보면 시민운동 그룹이 현지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볼런티어의 이미지와는 다른 자치적 요소가 코오베에서는 상당히 나타났죠. 몇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만을 보면, 대단히 귀중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까이 : 그건 그렇지. 경험으로서는 엄청났지. 아나키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대로 있었으니까 말이야.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상호부조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해. 그런 것을 행정이 하나하나 대신하게 되었을 때까지 아나키 상황이 메우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행정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말았잖아. 사태를 그냥 내버려두었다면, 자치적이고 자주적으로 했던 경험은 그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은 나중에라도 살아난다고 생각해. 나는 히메지시가 전쟁으로 완전히 타버렸을 때 히메지성에서 사흘쯤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이번에 되살아나서『이오무』에 실린 글의 재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지원운동과 자기의 운동

나까지마 : 지원운동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무까이상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32]을 지원해오셨죠. 지금 가령, 외국인 노동자나 홈리스(노숙자)를 지원하는 운

32) 1979년 조선 재침략을 획책하는 일본자본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다이도오지 마사시 등

동은 많습니다. 지원운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늘 '이러한 지원운동을 어떻게 하면 자기운동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지요.

무까이 : 나는 말이지. 지원은 지원이라고 생각해. 내 운동은 아니지. 지원운동은 응원단이야. 그렇지만 중요하지. 응원단도 열광적으로 되면 엄청난 구경꾼이 되잖아? 시합에 이기고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재미있다는 거야. 운동은 역시 이겼다졌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응원단이 볼 때 재미있어서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상황 같은 것이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구경꾼 운동론이나 도움주는 사람론이 바로 이거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 같은 것이 있느냐고 누가 물으면, "오마헹(그런 것 없어요!!) 나는 운동에서는 늘 응원단일 뿐 선수는 아닌 걸요" 하지.

나까지마 : 그런 구경꾼이더라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정신을 차렸을 때 굉장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는데요?

무까이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난 내 나름의 소신이 있어. 언제나 소수파로 간다는 것이 내 소신이야. 다수라면 응원이 필요없잖아. 다수가 되면 난 손을 떼. 그래서 자주 욕을 먹지만 말이야. 우리가 원자력반대를 시작했을 때 도시에는 반원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현지의 일부 사람과 학자 선생 같은 사람들이 그 전부였지. 사회당, 공산당은 일단 명분으로 하고 있어서 뭔가 행사가 있을 때만 응원했지. 시민들이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한 것은 78년 이후부터였어. 그 후에야 점점 일반화된 거지.

소수파라는 것은 결국 '나 하나다' 라는 거야. '나 하나'를 본질로 하는 소수파도 몇 사람 있잖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 그런 운동에 도움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내 입장이야. 그래서 늘 좀 서글퍼지거든.

나까지마 : 92년 무까이상은 간사이 전력회사 앞의 텐트촌에 참가하셨는데요, 그 때도 대체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무까이 : 말하자면 그렇지. 처음에 텐트촌은 시꼬꾸 이마바리에 사는 오꾸무라 에츠오가 개인적으로 제안해서 전력회사 앞 연좌데모에서 시작된 거야. 지원조직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어. 오오사까 그룹은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차츰 응원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서 이

이 미쯔비시 등등의 재벌기업에 폭탄공격을 했고, 천황을 폭살하려다가 붙잡혀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꾸준한 사형반대운동으로 아직 수감중에 있다.

게 어떻게 되나 할 때, 이것을 잘 수습하지 않으면 운동이 간사이 전력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예를 남기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오사까만이 아니라 전국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지원을 조직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서 나도 텐트촌으로 들어갔지. 거기서 나는『텐트촌 신문』원고를 쓰고 제판하고 인쇄해서 전국으로 발행하는 일을 맡았어. 그래서 전국적인 지원상황을 만들어서, 80일째쯤 되었을 때 운영에 참가하고, 95일째 텐트촌에서 폐촌식을 올리게 된 거였지.

나까지마 : 어떤 운동을 할 때 '그만둘 때'는 어떻게 정하지요?

무까이 : 시작은 간단하지만 그만두는 일은 참 어려워. 그래서 나는 시작할 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정하지. 정하지 않고서 한 일은 없었어.

나까지마 : 그렇지만 운동이 고조되면 한계를 넘어서서 확대되고, 거기서 재미가 나는 게 아닌가요?

무까이 : 그렇지. 해프닝은 말이야. 한정의 연장은 대찬성이야. 뭔가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은 해프닝같이.

내가 담포포 도서관(민들레 도서관)[33] 일을 할 때는, 재소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이 감옥에 있는 이상 이쪽에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3년간 계속하고서 3년 지나면 그만두자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와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었지. 3년이 지나서 한사람 한사람 모두에게 물어보았지. 계속한다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나는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랬더니 3분의 2쯤이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럼, 다시 1년, 그 다음에도 또, 1년. 이렇게 6년을 계속했었지. 중간에 새로 참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었어. 그만둘 때 재소자에게서 우리를 방치할 셈이냐는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참 괴로웠어. 그렇지만 처음에 친절하면 마지막은 잔혹하기 때문에, "함께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자기가 할 수 있을지는 문제가 되지. 그래서 한정하는 것은, 운동에서 인간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이오무』동맹 같은 시모임을 할 때도 10년을 한계로 했어. 10년 하고 그만둔다고 말이야. 그리고 히메지에서『자유연합』이라는 월간 신문을 했을 때도, 한정없이 시작했지만 35호가 되면 그만두려고 했다가 40호까지 냈지. 40호에서 그 다음 41호를 안내고, 40호-1, 40호-2, 40호-3 이

33) 재소자에게 도서를 보내는 활동을 함.

렇게 해서, 40호-4에서 가까스로 그만두게 되었지. 그 이상 간행해도 새로운 뭔가를 더 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었어. 그런데 '독자도 있고 돈 내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의미만 있으면 된다'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렇지만 출판활동으로라면 몰라도, 운동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나까지마 : 왜 운동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무까이 : 뭐, 대단한 이론은 없지만 말이야. 움직인다는 것은 요컨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체를 말하는 것이고 운동은 극히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장소, 상황, 입장, 역할, 시간의 '이동과 전환'이지. 나는 진보라든가 진화라는 것을 그다지 신용하지 않지만, 변한다는 것의 의미는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모두 좋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 말하자면 그런 거야.

제 2 부

폭력에 대하여

나까지마 : 예를 들어 폭력혁명을 지향하는 사람과 만날 때 비폭력 직접행동에 대한 신념을 버려야 합니까? 무까이상이 말하는 '자기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까이 : 아마도 '사상의 상이함'에 대해 묻는 듯한데, 나는 사상이든 행위든 자기의 존재에 직접적 위해가 미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런 전제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싶거나 하려고 하는 무엇이든 인간 본래의 생명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내 행위나 행동으로 반대하지는 않아. 물론, 그 사람이 내게 "해라"라든가, "같이 하자"라고 말할 때에는 "응, 좋아", "아니야, 못 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반대하지는 않아. "아니야, 난 못 해"도 참가의 한 방법이니까 반대는 아니지.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나를 열어놓는 최소한의 방법이야.

그런데 막상 행동이 시작되면, 적의 코앞에서 도망칠 수도 있지 않겠어? 그전까지는 같이 해 왔다가 "하자"라는 말이 떨어지는 돌격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내가 나를 열어놓는다는 데서 최후의 가장 중요한 문제야. 하지만 이 문제는 때에 따라서 같이 행동할지도 모

르고 안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지…….

나까지마 : 무까이상이 폭력을 부정하는 첫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까이 : 글쎄, 폭력이라…….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폭력을 부정하지는 않아. 오히려 생명력이라는 의미에서 긍정하지. 의사(擬似)비폭력 체제로 나타나는 폭력을 부정하고 이에 대항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해.

폭력은 말이지, 간단히 정의하자면 타격적 물리력이야.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두번째로 "이 새끼"하는 가해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 경우도 물리력은 물리력이지만 상대방과 맞부딪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폭력은 아니지. 셋째, 폭력의 결과를 가지고서 상대를 지배하고 강제하는 것이 있어야 해.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폭력은 인간 생명력의 발현으로서 의미를 갖게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개인폭력뿐이지. 거대한 구조폭력, 예컨대 자위대에는 첫째 조건은 있지만 나머지는 없어. 그 이유가 내가 쓴 『현대 폭력론 노트』[34]의 핵심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폭력의 정의 같은 것을 꺼내느냐 하면, 우리에게 폭력의 행사는 거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권력의 합법적 구조폭력 –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폭력 – 은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 의사비폭력 체제의 지배를 승인하는 격이지. 그래서 이중으로, 폭력적으로나 비폭력적으로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것을 문제삼고 싶은 거야.

물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측이 행하는 '폭력의 탈환'으로서의 투쟁도 있어. 체제의 틈새 같은 곳을 노리는 폭력단, 테러조직, 산촌유격대, 게릴라 등등. 하지만 폭력(군사)은 원칙적으로 강한 자가 이기는 법. 더군다나 의사라고 하더라도 비폭력적 지배에 대항해서 그런 폭력조직이 어떤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야.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이것은 폭력의 특질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만, '폭력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폭력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야. 가령 기동대가 공격해 들어와서 학생을……그렇지, 데모대의 학생을 두들겨 팼다고 해봐. 이것은 데모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얻어맞은 학생이 죽게 되면 그건 개인의 죽음일 뿐이야. 데모대의 죽음은 아니지. 데모대는 이로 말미암아 약간의 타격을 입을지는 몰라도 없어지

---

34) 『現代暴力論ノート』 (1972)

지는 않아. 이와 마찬가지로 기동대원이 얻어맞아서 죽었다고 해봐. 이 경우에도 그 대원은 무슨 아무개라는 개인으로 돌아가서 죽게될 뿐이지. 그 사람이 전부 그 폭력을 받는 거지. 전부, 개인이 직접. 그리고 죽은 그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개인의 폭력은 아무리 해봐야 대단찮은 것이야. 권력측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 한 사람쯤 죽었을 뿐이지. 우리측에서 보더라도, 멀리 사는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영향이 없어. 자기 형제나 아들일 때에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에게 영향이 미칠 때는 좀 힘든 일이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개인폭력이 아무리 흉폭한 것일지라도, 말하자면 최신 병기라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사방팔방에서 다수가 포위하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폭력에는 해결방법이 있는 거지. '폭력론'에서 개인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사회적, 구조적 폭력-의사비폭력 체제에서의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

가령, 폭력으로 권력을 획득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나가게 돼. 혁명을 일으키면, 반혁명적 움직임을 방어하는 폭력적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다시 제한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야.

나까지마 : 무까이상은 가마가사끼의 폭동[35]을 긍정적으로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폭동은 비폭력의 범주에 넣고 있나요? 폭력에 대항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비폭력이라고 생각하여 저도 가서 돌을 던졌지만 잘못해서 상대가 죽을 수도 있고(웃음).

무까이 : 여기서 확실히 해 두고 싶은데 나는 폭력은 나쁘고 비폭력은 좋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가치관이나 윤리, 도덕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야. 폭력은 괜찮지, 좋은 거야.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게 좋아.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인지 몰라도 '해라, 해라' 하는 것과 '거기까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뒤섞여있지. 그러니까 비폭력이라면 괜찮고 폭력이면 나쁘다는 가치관의 문제는 아니야. 그때 슈퍼 같은 데 들어가서 모두가 엄청나게 훔쳐갔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얼마나 훔치겠어? 그렇게 값나가는 것도 아닌데"(웃음)라고 말했었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하는 말을 듣고야 '아차 실수했구나' 하고 생각한 일도 있었지

나까지마 : 편의점을 습격한 것은 박수갈채처럼 자꾸하면 좋은 거죠.

---

35) 1995년경, 오오사까 가마가사끼에서 노동자들이 가마가사끼 경찰서를 습격, 방화, 전소시킨 사건.

무까이 : 그렇지만 불을 내거나 한 것은 지나쳤지.

나까지마 : 그 때 개인상점까지 습격했었는데, ‘이것은 아닌데’라고 생각했었죠. 무까이상이라면 ‘그것까지는 괜찮아, 이것은 안돼’하고 선을 그을 수 있었을까요?

무까이 : 그건 그래, 별별 사람이 뒤섞여 있었으니까. 내가 지휘자라면 옆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겠지. 그렇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그걸 책임지고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 그게 나의 입장이야. 그게 바로 ‘구경꾼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같은 지배나 통제, 질서 등을 나는 좋아하지 않아. ‘하고싶은 사람은 해도 좋지만 나더러 하라면 난 안한다’, 이게 바로 개인 자치라고 할 수 있지.

인민의 입장에서

나까지마 : 죽는 것은 개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까이 :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만 왜 이렇게 부상을 당했지, 운이 나빴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대열을 짜고 학생과 기동대가 서로 대결할 때, 약한 쪽에 부상자가 많고 강한 쪽은 적겠지. 아니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지. 약한 쪽에게는 테러나 게릴라밖에 없는 거야. 게릴라라는 것은 애초에 비폭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말하자면 정면대결하면 지니까, 잠복하고 있다가 습격하는 유격전 같은 게릴라전을 하는데, 이건 완전한 승리의 방법이 될 수 없어. 이것은 이기고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반역의 방법이지. 폭력은 참으로 단순해. 강한 것이 이기거든.

나는 폭력을 생명력이라는 의미에서 전혀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이를테면 어떤 사건의 승패나 정의에 폭력의 의미, 강도, 취약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문제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폭력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마에노우미(씨름선수)가 자기 갑절이나 되는 거구를 쓰러뜨리는 일은 흔히 있지. 그렇지만 이것은 토표(씨름판의 동그라미)에서,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 가능할 뿐이야. 규칙도 없고 시간도 무제한이라면, 마지막에는 비록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마에노우미가 지게 된다고 생각해.

나까지마 : 강한 자가, 물리력이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면, 베트남전쟁은 어떻습니

까? 물리력,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전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약한 세력은 죽창을 갖고 싸웠지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면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 안에서도 일어났고, 결국 미국은 패퇴했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었듯이, 승패를 물리력으로 환원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무까이 : 맞는 말이야. 조금도 잘못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지금 폭력으로 이긴다, 진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폭력의 측면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물리력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폭력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 이것을 초점에 두지 않고 폭력만을 이야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베트남전쟁을 어떻게 '이겼다'고 하는가? 오히려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네. 미국이 손을 뗀 것이고 베트남은 져도 완전히 나가떨어지지 않는 게릴라전을 하고 있었지. 게리릴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었다면, 완전히 지지.

나까지마 : 베트남과 미국의 가치관, 쌍방의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무까이 : 그렇지만 쌍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자기의 가치관뿐이지. 나에게 '자기의 가치관'이란, 좀 잘못된 말일지도 모르겠고 또 늘 이렇게 이름붙일 수도 없겠지만, 인민측의 가치관을 말해. 그 이외는 없어. 그것뿐이야. 이것이 지금껏 한 얘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지만.

베트남전쟁에 이겼다고 하지만, 인민(민중)측은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거야. 미국이 철수하던 최후의 날, 4월 30일에 와하고 밀어붙여 자기의 자리를 되찾은 것뿐이지, 곧 북베트남 정부가 들어서 버렸어. 그리고나서 계속 지고 있는 거지. 지고 있는 측은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긴 셈이 돼 버린 거야. 이렇게 쓰니까,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까하타(赤旗)』가 엄청난 욕을 했었지(웃음). 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진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같은 민중에게는 아무리 져도 끝내 손을 들지 않는(항복하지 않는) 것을 '지금도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게 아나키즘과 다른가?

내가 운동을 해오면서 '이겼다', '신난다'는 느낌은 천 번에 한 번쯤, 손톱 밑의 때만큼 있었을까? 항상 졌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웃음) 일단 이기더라도 금방 진다 이런 것을 말이지…… 예를 들어 어떤 곳을 점령하면 후퇴해야 할 때를 생각하지. 어떻게 손을 들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운동이란 대체로 그런 거야, 이기는 것이 아니

야.

나까지마 : 진 곳에서 기어오른다고요?

무까이 : 기어오를 수 없지(웃음). 어떻게 기어오른다는 거지?(웃음) 뭐라고 할까, “또 한번 힘을 내자”는 게 아니라, 지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밖에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 매번 지고 이기고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나까지마 : ‘손톱 밑의 때만큼의 승리’란 무엇입니까?

무까이 : 그것은 조그만 현상이야, 이겼다고도 할 수 없는. 상대방의 진지를 빼앗는 아이들 놀이에서 자기 진지에서 한 발 나간 것을 이겼다고 하는 거야. 도로를 폐쇄하려는 기동대와 20m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적이 있었어. 그들이 일렬로 서서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도 여자들 15명 정도가 옆으로 서서 나무아미타불 한 번 할 때마다, 한발씩 나갔지…… 이쪽에서도 한 발 한 발 나갔지, 저쪽에서 한 발 나오고, 이쪽에서도 한 발 나가면 부딪친다고 할 때, 저쪽의 지휘관이 ‘멈춰’라고 말하는 동시에 나도 ‘멈춰’라고 말했는데 저쪽이 물러서면서 길이 뚫린 적이 있지(1982년). 그 때 여자들이 “나 오줌 쌌어”, “우리 아이를 두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들을 했었지. 나는 ‘멈춰’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쪽에서도 적절한 시간에 멈추라고 했지. 고맙게도 우리는 살아났지만, 그 때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대열을 정리하여 도로가 환하게 뚫린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었지만, 이쪽에서는 아무일도 못하는 거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서 폐쇄하는 것을 연 것뿐이지. 이겼다고 하기보다는 재미지. 그렇지만 대개는 아~, 힘들구나 하는 일뿐이야.

나까지마 : 좀 듣기 싫은 말로, 어느 국면에서 부분적으로 이긴 것은 자기만족 아닌가요?

무까이 : 그건 결국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해. 이기면 곧 지게 되지.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로 얻어맞으면 “아얏”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순간적이고 반사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운동은 이기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걸 바라고는 있지만 말이지.

나까지마 : 그런 의미에서는 해냈구나 하는 기분 말입니까?

무까이 : 그렇지 그것뿐이지. 그런 것은 재미있는 일이지.

나까지마 : 그렇지만 힘들기만 한 운동을 해왔단 말인가요?

무까이 : 별다른 생각없이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사회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없지만, 시민운동에 앞장서서 계속해서 어느 부분을 반운동적으로 해왔어. 그런 의미에서 운동론으로서의 운동을 해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떨까 하는 운동을 취미로 해왔지. 그러나 내가 ‘운동을 해왔다’고 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과는 달라.

하나의 운동이나 개별적인 운동에 관여했다고 하기보다 운동의 방법에 관여해왔지. 곧 아나키즘을 운동의 ‘방법론’으로 삼았다고 해도 좋아. 나는 아나키즘이라는 것을 자기 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운동의 방법으로 해왔다고 말하고 싶은 거네. 반원전운동도 아나키즘도 아무것도 아니지. 구원운동(30년간 진행)도 역시 아나키즘은 아니지. 그렇게 ‘방법론’으로 아나키즘을 해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힘들다, 힘들어” 했는데도 돌이켜보면 그런대로 재미있었고 즐거웠다고 생각해.

아나키즘, 이데올로기인가 방법론인가?[36)]

데이브 닐(Dave Neal)[37)]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스트 논쟁의 실마리

아나키즘 운동 내부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는, 아나키스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스트'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자는 계급투쟁은 성과도 없고, 싸울 상대도 분명하지 않고, 또 아나키즘과 별로 관계도 없다고 치부하고 있고, 전자는 그러한 후자에 대해 얘기하기를, 그들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며 오히려 겉멋들은 부르조아라고 단정해 버린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논쟁은 바보같고 실속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서도 이 논쟁은 '과연 아나키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 한 가지 숨은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즉, 아나키즘은 이데올로기인가(따라야 하는 원칙과 약속이 있는), 아니면 방법론인가(행동방식, 권위에 맞서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경향성)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스트' 논쟁의 딜레마를 푸는 실마리라 믿으며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나키즘은 분명히 어떤 고유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38)]에는

1) 모든 형태의 정부는 억압적이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이론

2) 국가에 대한 저항과 테러리즘 (몇몇 아나키스트가 했던 것처럼)

3) 모든 위압적인 통제와 권위에 대한 반대

라고 쓰여 있다.

---

36) http://www.spunk.org/library/intro/practice/sp001689.html(1997. 9. 17)에서 번역한 것임.
37) 참고자료인 「An Anarchist FAQ」 4명의 공동 집필자 중 한 명.
38)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그렇다면, 이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아나키스트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아나키스트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나키즘은 이데올로기(핵심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개념들)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라고 자칭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아나키스트일까? 물론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이나 '아나코캐피탈리즘' 등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라 할지라도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으로 보자면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다.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은 아나키즘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아나키즘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렇게 말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여긴다. 이와 비교하여, 방법론적 아나키스트들은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이나 '아나코캐피탈리즘'이 방법론적으로 아나키즘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다. 비슷한 목적(즉, 인간 행복)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접근방식에서의 차이점을 느끼는가?

방법론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는 사회혁명의 필수요건으로 이데올로기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A, B, 그리고 C라는 교리를 따르면 당신은 아나키스트인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1) 아나키스트 중앙조직을 만들고

2) 아나키즘 원칙에 따라 민중을 교육(세뇌)시키고

3) 그리고 나서 대중운동을 일으켜

4) 사회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는 사상전파의 수단으로 선언, 강령, 또는 지도교리 등의 개념에 친숙하다. 그들은 생각 또는 행동을 할 때 모두 똑같이 하기를 바라며 제대로 된 조직을 위해서는 아나키즘의 원칙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방법론적 아나키스트는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한다. 대신에 그들은,

1) 아나키스트 조직은 멤버들이 스스로 원할 때만 만들고

2) 교리 등을 교육받은 민중은 자유롭지 못하며

3) 소수정예와 이들을 따르는 교육받은 다수 민중에 기초하는 운동은 엘리트적이고 정치적이며,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은 아니며

4) 그러한 노력으로 얻어진 사회혁명은 필연적으로 실패로 돌아가, 결국, 권력을 가진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에 의한 정치혁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

위의 비교는 그저 의미론적인 차이는 아니다. 오히려, 실제 운동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 논쟁의 근원은 과거 제 1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 누가 옳은가? 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아나키즘보다는 방법으로서의 아나키즘이 더욱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야심에 찬 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대체적으로 파워엘리트의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아나키스트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투쟁의 두 가지 형태는 맑시스트 모델(사회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 민중을 이끄는 정치적 전위조직이 필요)과 바쿠니니스트 모델(모든 권위적 정치체제를 거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민중의 직접행동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주의 실현)이 있다. 오늘날까지 맑시스트 모델은 한 세기를 넘기면서 극좌파를 사로잡아 왔으나, 소비에트의 붕괴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점에서, 아나키즘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논의는 우리에게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즘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유로운 사고와 직접행동에 기반하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언, 강령, 기타 통제체제에 순종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게다가 아나키즘의 실현방법으로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또 중앙 집중적인 조직에 중점을 둔다는 데 있다. 자유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과, 대중도 없는데 대중적인 해방조직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 여기서 얻는 것은 대신에, 엘리트적인 활동가들뿐일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현재의 극좌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원칙은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1) 사소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다툴 것이고,

2) 언제나 불순분자를 찾아내어 추방할 것이며,

3) 엘리트주의로 말미암아 같이할 수 있는 잠재적 동지들을 소외시킬 것이다.

아나키즘은 분명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나키즘운동을 하기 위해서 민중이 교육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노암 촘스키는 '아나키즘은 불합리한 권위체제에 대항하여 봉기하는 민중의 역사적 경향성이다'라고 방법론으로서의 아나키즘의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법론적인 아나키즘(불합리한 권위체제에 반대하는 민중의 직접행동의 가능성)을 인식했던 크론슈타트 수병들이 1921년에 볼세비키에 대항하여 일어났지만 혁명을 배반한 볼세비키 권력에 의해 실패했다.

이데올로기와 직접행동

아나키스트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아나키즘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보다는 아나키스트적인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나키스트적인 조직구성 방법을 사방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아나키스트는 사회투쟁운동, 그 자체가 민중을 정치세력화하고 급진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민중 스스로가 공동의 직접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 때 바로 민중은 아나키스트적인 민중으로 변한다. 그들은 교의로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으로 아나키즘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며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그래서 직접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진정한' 아나키스트가 될 것이다.

모든 활동가들을 아나키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익에서도 어느 정도의 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실 그들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커다란 권위구조의 작은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진짜 이익에 어긋나는데도 반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잘 속아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억압적인 권위체제에 반대하여 직접행동에 가담하고 조직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은, 순종과 수동성을 요구하는 다른 교의보다는 아나키즘에 공감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아나키스트적인 사회투쟁은 아나키스트 개념을 널리 퍼뜨린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민중들간의 연대를 만들어 가는 대신에 끊임없이 도그마에 집착하는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이데올로그)들이다. 그것은 엘리트주의와 파벌싸움으로 얼룩진 오늘날 운동의 참담한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법칙은 '이데올로기는 틀리지 않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론에서 생기는 사소한 논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모든 사람은 갈라져서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고립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방법론은 훨씬 더 열려 있다. 잘 풀리는 방법과 잘 풀리지 않는 방법이 있고, 또 풀릴지 말지 예상하기 힘든 방법도 존재한다. 어떤 전략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제대로 수행될 때까지 전략을 변경하면 된다.

아나키스트의 관점에서 민중은 **지금 여기에서** 사회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주위환경이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노예이기를 원치 않는다(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는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들은 민중들이 올바른 인식을 얻기에는 너무 인종주의적이며, 성차별주의적이며, 무감각하고, 동성애 혐오증을 가진, 거의 맑시스트의 경멸로 그들을 바라본다. 사실상, 일이 제대로 안될 때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들은 그 책임을 그들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전가한다(이것은 좌파의 고립과 엘리트주의를 잘 대변해준다). 민중은 너무 바보 같아 고고한 사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여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중은 극좌파를 무시해 버리곤 한다.

이데올로기와 인간 본성

이데올로그들의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그 개선은 그들이 제공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심지어, 이데올로그들은 그들 자신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간본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문제가 없으며, 이 세계가 문제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전적으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아나키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권위주의자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교육, 감시, 그리고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것들은 권위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제공해주고 싶은 것들이다. 반대로, 아나키스트는 인간은 본래 선하고, 지도, 억압,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본다. 사회의 진정한 악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며, 권력, 특권, 통제의 사회시스템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아나키스트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아나키스트는 인간은 선하며 통제의 시스템은 악한 것으로 보고, 이데올로그들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이것도 그들이 시스템을 통제할 때뿐이다. 만일 다른 사람에 의해 통

제받으면 그들은 이 시스템은 나쁘다고 주장하는 반권위주의자가 된다. 권력을 쥐는 여부에 따라 어떻게 그들이 입장을 달리 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비교는 양자간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성격도 달라진다.

인간본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조직은 권위, 통제를 중시하여 가능한 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다(그 소수는 교리에 충실히 따르는 그래서 권력을 맡길 만한 사람들). 반면에, 인간본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는 조직은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를 없애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데올로그들의 가장 잘못된 점은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사회통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그들은 선택받았으며, 나머지는 바보들이거나 악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들의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면 그 반대한 사람은 진실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잘못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당연하게 무력사용으로 이어지게 된다(교조적인 이데올로그들은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무력뿐이라고 여겨 무력장악에 힘을 쏟으며, 그런 예는 더 폭악한 형태인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데올로그는 숨은 권위주의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체제 밖에 있을 때는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의 권위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앞선 이들이 거쳐간 것처럼 전제적으로 변한다. 권위는 이데올로기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그 커다란 신념을 위해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이 갈레아니스트(이탈리아의 갈레아니를 따르는 아나키스트)들이 무고한 행인은 안중에도 없이 폭탄테러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은 어느 누구도 결백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영원한 진리

아나키스트는 진리는 최고 권력자의 뒷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즉, 최고 권력자는 그의 생각이 진리라고 보고서 어느 누군가가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면(생각할 때조차) 그 사람을 겁을 주곤 한다. 영원한 진리에 대한 주장만큼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없다. 아나키스트는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 너머의 바깥세계의 진리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에게 정말로 믿을 만한 진리는 바로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란 것이다[존

재하는 것은 단지 지금 우리에게 납득 가능한 것(상식적)과 그렇지 못한 것(비상식적) 뿐이다].

현실은 존재한다(비록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지만). 현실은 객관적이지만, 진리는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돌멩이를 들었다 놓으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중력이라는 객관적인 힘 때문이다. 이렇듯 진리는 "돌멩이를 들었다 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현실에서 나온다. 진리의 주관성은 권위주의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혁명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주관적이라면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은 붕괴할 수 있다. 법, 종교, 국가 등 이 모든 것들이 한낱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신화, 거짓말, 그리고 미신이 생기게 마련이다. 아나키스트는 진리를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갖가지 도그마나 선언 등을 거부하는 데 기초가 된다. 어떤 아나키스트도 모든 인간사회를 설명해주는 이론을 만들 수는 없다(비록 몇몇은 시도하지만).

바깥세상에 진리는 없다라는 조건하에서 자유로운 사고는, 우리가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즉, 우리 이외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한 세상을 만들도록 허락하기보다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힘'보다는 '이성'일 것이다.

권위주의자들은, 진리는 객관적으로(그들만 볼 수 있게) 존재하고 우리의 역할은 그저 진리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고통받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신봉하는 자본가들은, "침입자는 총 맞을 수 있음"이라는 표지판을 그의 사유재산에 박아놓고 편히 잠을 잔다(비록 그 표지판을 만든 주인은 그 재산에 침입하여 총을 쏘아 그것을 획득했으면서도 말이다!). 그리고 신을 두려워하는 기독교도는 성경을 들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동안 덤불에 마녀를 불태운다. 이데올로그들은 언제나 잔학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고상한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아나키스트는 절대 여기에 속하기를 원치 않으며 '그들과 그들의 진실'을 거부한다!

권위에 대한 저항, 연합, 직접행동

아나키스트의 진리에 대한 거부가 아나키즘은 아무것이라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불합리한 권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나키스트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론의 기본인 동시에 특권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저항의 기본인 것이다. 이것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합리적인 권위만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유연합. 이 연합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간활동을 인정하고 아나키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오직 사회구성원의 일관되고 헌신적인 연합체구성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스트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자기만족적 해방은 이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간의 인간적 연대를 포기하고 안으로만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계급투쟁과 조직구축은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런 면에서, 아나키스트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를 거부하는 이유는,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스트는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불합리한 권위체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임시적인 자치공간'은 날아가는 담배연기와 같으며, 그들은 억압의 핵심요소인 국가를 건드리지도, 도전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비록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스트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멸은 옳을지라도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스트가 취하는 방법은 좋은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그들과 끝없이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목적은 그들의 생활방식을 비난하거나 조소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합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은 깊은 관찰과 사고를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이론이며 철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합과 직접행동, 바로 이것이다!

연역적 아나키즘과 귀납적 아나키즘

이성과 합리성의 문제로 볼 때,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와 방법론적인 아나키스트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이다. 연역적 사고는 이론이 먼저 있고 이 이론을 토대로 경험적 사실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나는 아나키스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나키스트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연역적이다. 다음 대화를 생각해보자.

A : 당신이 하는 일은 아나키스트적이 아니야.

B : 아니오, 난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틀렸소. 난 아나키즘이 뭔지 압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와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권위주의자임에 틀림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적이오.

문제점이 보이는가? 사실, 이런 연역적 이데올로기는 아나키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 스스로 말했던 것을 한다고 하지만 하고 있는 행동은 다른 경우이다. 하지만, 아나키즘은 이런 사고방식과 거리가 멀다. 이것은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다.

귀납적인 아나키즘은, 말이 아니라 행동한 것을 기초하여 아나키스트인지 아닌지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고 불합리한 권위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이 아나키스트는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다만 귀납적인 아나키즘이 의미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행동이지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운동 안에서 권위주의나 전위주의를 감지해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쿠닌이 맑스를 비판할 때 보았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맑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껴안기를 바랬다. 그들의 프로그램이 사회주의를 깎아내리고 파괴했다고 증명은 되었지만 말이다).

똑같은 위험성이 아나키즘에도 존재한다. 연역적인 아나키즘은 운동내에서 권위주의적인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쉽게 변질될 것이다. 또 그러한 운동은 이데올로기적 순응의 경향으로 인해 문제제기도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권위주의적 기회주의자들이 운동의 그룹내에서 도전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다. 귀납적, 혹은 방법론적인 아나키즘은 반대로 그렇게 쉽게 변질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 행동들을 모아가면서, 누가 당신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해주는 대신에 취해도 좋을 행동과 그렇지 않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판단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판단하는 것이다.

연역적 아나키스트는 선언과 강령을 좋아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논문이나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암기하고, 따르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그들의 생각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면 그 때 아나키 사회는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귀납적인 사고를 가진 아나키스트는 그런 견해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의 꿈, 희망, 열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론적 논문이나 선언 같은 것은 없다. 일상생활에서 이미 사람들은 아나키스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개념을 실천에 옮길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가 무엇을 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어디에 얽매이기도 싫어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권력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에너지, 그리고 돈을, 당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데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여기에서 아나키스트의 역할은,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권위체제를 약화시키고 없애는 조직적인 방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과정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는 좀더 눈에 띄고 전위적인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극좌파가 노동자 계급의 여러가지 나쁜 점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경멸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을 지도, 감독이 필요한 좀 모자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로서, 나는 위의 태도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주입받은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유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유로운(즉, 아나키스트적인) 사회를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

결국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민중들간의 연대를 구성하는 것

2) 대중적인 직접행동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나키스트의 목표이자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것은 그들 자신의 문제이다.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들은 "만약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아나키스트라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위주의자의 망상이거나 근본에 있어서 맑시스트적이다.

방법으로서의 아나키즘은 매우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매우 쉽기 때문이다. 반면에, 말이나 교리는 내실이 없고 무의미하다. 겉으로 봐서는 달콤하고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을 풀고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 아래 민중에게 융단폭격을 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암살

한다. 당신이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길 때보다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때만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이다). 사실, 당신이 방법론적으로 미국의 정부 시스템을 살펴보면, 그것이 ‘민주주의’, ‘자유’, ‘대중의 의지’ 또는 ‘대의’라는 용어의 진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엘리트 권력층에 의해 짜증나도록 자주 쓰인다.

볼세비키를 지원하는 와중에도, 레닌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민중의 자치 실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만들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노동자들은 레닌과 트로츠키를 믿었으나 볼세비키가 권력을 잡은 후 그들은 바로 돌변하여 노동자를 탄압하였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은 사실상 “모든 권력은 볼세비키에게”였던 것이다.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파괴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의 할 일은 오로지, 자유주의적 사회혁명이 수행될 수 있는 수단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아나키스트 도구상자!! 전략적으로, ‘아나키스트 도구상자’는 다른 길보다 더 아나키스트적이다. 그 이유는 ‘도구상자’는 꼭 어디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길거리 위, 상점 마루, 학교 교실 등등 개개인들이 불합리한 권위체제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함께 하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N30과 시애틀투쟁에서의 아나키스트들[39]

배경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시애틀에서 있었던 시위에서의 직접행동은 고무적이며 흥분된 것으로 북미 반자본주의운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 11월 30일 시애틀에서 벌어진 시위(N30)는, 이른바 대안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디어에게 외면당한 '자본주의 반대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의 전세계 시위 중의 하나였다.

그 후 시애틀투쟁이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가운데 N30행동에 참가한 그룹들간에 비난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유력한 주류 언론이 좌파나 대안언론보다도 시애틀의 아나키스트들에게 좀더 공정한 시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주요한 비난의 대상은 Black Bloc과 그 친구들의 행동(특히, 상점 쇼 윈도우 파괴나 빌딩벽면에의 스프레이 낙서)이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아나키스트 관련설과 더불어 시애틀의 시위기간 내내 유포되었다. 이 FAQ는 아나키스트들이 시애틀투쟁과 N30때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자 만들어졌다.

얼마나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시애틀투쟁에 참가하였는가?

주류언론을 인용한다면, 시애틀투쟁에는 50여명의 아나키스트가 단지 유리창을 깨기 위해 모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이렇다. 줄잡아 평가해도 시애틀에 있었던 아나키스트의 수는 4천명 내외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숫자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 그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북미의 서부 해안지역에서 왔지만 미국전역에서도 많이 집결했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소수 있었다.

---

39) http://www.infoshop.org에 실린 「FAQ about anarchists at the Battle for Seattle and N30」을 번역한 것임.

그들이 관여했던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 아나키스트들은 자산파괴활동에 관여했지만, 그것은 N30의 활동에서 아나키스트가 했던 활동 중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유리창을 깼다고 해서 좌파들에게 비난받은 이들 아나키스트들은 그날 아침 WTO회의를 비폭력으로 봉쇄한 수천명의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다. Black bloc 아나키스트들이 회의 참석자들의 호텔접근을 막아 회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몇몇 비디오가 무엇보다도 잘 말해주고 있다.

주류거대 언론은 언제나 활동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알리려 하지 않고 그저 굉장한 볼거리에만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회의에서 벌어진 이러저러한 장면이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궂은 일을 하는 데 많이 관계하였다. N30에 참가한 수천명의 아나키스트들은 전체적인 운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그 역할을 담당했다. 아나키스트는 다음 활동에 관여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

시애틀의 아나키스트는 N30이 있기 몇 달 전에 벌써 '아나키스트 핫라인'을 준비했으며 다른 아나키스트들은 '인디펜던트 미디어센터(IMC)'와 관계하면서 수십명은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했다. IMC의 전신은 'Counter Media'인데, 이것은 1996년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때에 만들어진 아나키스트 뉴스조직이다. 아나키스트 비디오 제작자는 시애틀투쟁을 촬영하여 N30의 행동이 있은 지 24시간 이내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아나키스트들은 N30 행동의 날 전에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이 행동을 준비하고 상호연락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몇몇 사이트는 시시각각으로 보도기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신문에 칼럼을 쓰기도 하였다.

비폭력 직접행동 훈련과 행동의 날 계획 :

아나키스트들은 비폭력 직접행동의 훈련을 도와주었으며 또 거기서 훈련받은 아나키스트들도 있었다. 비폭력 직접행동의 훈련을 담당한 곳 중의 하나는 많은 아나키스트들의 지원을 받는 'Direct Action Network(DAN)'였다.

문화행사 :

이것은 시애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몇몇 활동은 Art and Revolution Convergence(Bay Area에서 온 가장행렬단체)에 의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아나키스트 행진음악대를 보았다.

직접행동 :

가장 눈에 띄는 직접행동의 사례는 시위기간 중에 시애틀의 빌딩을 점거(squatting)한 것이었다. 이들 중 하나가 미국 네트워크 TV뉴스에 특집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시애틀의 유력 미디어들도 스쿼트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며, 스쿼트에 의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토론도 했다.

노동자 데모행진 :

아나키스트들은 노동자 데모행진에 참가했다. '세계노동자연맹(IWW)'은 컨벤션센터 주변지역의 폐쇄를 돕기도 했다.

물품준비 :

이것은 시위기간 중에 필요한 의약품을 준비하거나 체포당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 등과 같은 일을 포함한다.

시가지 점거 :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WTO각료회의를 저지하는 행동에 참가했다. 그들은 호텔, 도로 등을 봉쇄하는 일을 맡았다. 많은 사람들이 최루탄 가스 공격을 받았으며, 연좌데모를 하는 동안에 일부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더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자산파괴활동보다는 연좌데모에 참여했다(이것은 주류언론과 좌파계열 미디어가 무시해버렸던 점이다).

자산파괴 :

설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전세계의 N30 :

N30 행동은 전세계 수십군데에서 이루어졌다. 이것들 중의 대부분은 아나키스트에 의해 조직되어졌다(멤피스, 테네시, 루이스빌, 켄터키 등등).

아나키스트들의 자산파괴행위는 경찰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나? 왜 유진(Eugene)의 아나키스트들은 자산파괴에 가담했는가?

모든 책임이 자산파괴에 가담한 아나키스트들에게 돌려졌지만, 저널리스트들이나 활동가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그 아나키스트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읽거나 하지 않았다. 가장 잘 알려진 공식발표문은 'N30 Black Bloc Communique'로서 그것은 ACME Collective에 의해서 시애틀행동 있은 후 주말에 발표되었다. 이 발표문도 Black bloc에 속한 일부 개인이나 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표적이 된 기업자산에 관해 설명하고 "우리는 시애틀을 포함하는 미합중국 전역에서 왔다"고 말함으로써 누가 Black bloc에 속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유진의 아나키스트들은 그저 십대의 훌리건 같은 패거리가 아닌가?

사실을 말하자면, 시애틀에 온 유진의 아나키스트들 대다수는 20대이고 간혹 삼십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Black bloc은 무엇인가? Black bloc은 폭력적인 아나키스트들의 결집 형태을 말하는가?

'아나키스트 Black Bloc'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신비화'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Black bloc은 아나키스트의 단체조직도 아니며 테러집단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Black blocs는 시위나 집회 때에 아나키스트들이 만드는 '일시적인 집합체' 바로 그것이다. 199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수백명의 아나키스트들이 벌인 무미아 석방운동 'M4M(Millions 4 Mumia)'에서도 Black bloc이 형성되기도 했다. Black blocs는 아나키스트의 결속력과 자존심의 표현이다(바꾸어 말하면, 동성애 해방을 위해 모인 동성애자들의 시위행진대열처럼 black

blocs는 아나키스트들의 단합을 표현하는 하나의 '결합'인 것이다).

왜 유리창을 파괴한 아나키스트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사전에 그러한 행동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던가?

유리창 파괴 등의 행동에 관여한 Black Bloc의 멤버들은 많은 사전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그들의 계획을 밝혔다. 많은 참가자 수와 느슨한 조직구조의 여건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상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규모 시위에서 계획을 실행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는, 자산파괴행동이 일어나자 "이 시위는 비폭력 시위다"라고 소리치면서 유리창을 부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물리적으로 제지한 '평화주의자' 그룹도 생겨났다는 것이다.

모든 아나키스트가 자산파괴행동을 지지했는가?

아니다. 모든 아나키스트들이 이 전술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 아나키스트도 유리창을 파괴하거나 기타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전술적 효용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그 논란은 광범위하게 퍼졌다). "유리창 파괴는 운동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또 경찰에게 과잉진압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이것은 시애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11월 30일에 유리창 파괴행동 전부터 수천명의 시위참가자들은 최루탄과 고무총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의 폭력행사를 정당화시키면서 언론에게도 그 폭력에 대해 변명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이다.

시애틀투쟁에서 약탈행위는 없었는가?

있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자산파괴행동 이외에 몇몇 점포에서 약간의 약탈이 있었다. 이것은 시애틀에 거주하는 젊은이들과 가두행동에 참가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다. 재미있는 것은, WTO반대투쟁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유색인종의 비율이 적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와는 모순되게, 약탈과 자산파괴는 다양한 인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싸구려 장신구 등 하찮은 것들을 훔쳤다고 해서 백인 중산층 활동가들이 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어떤 아나키스트의 얘기를 소개하겠다.

> 흥미로웠지만 별로 얘기되지 않았던 것은, N30 때 다수의 흑인들과 남미계의 젊은이들을 목격한 것이었다. Black bloc의 행동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후 이들 젊은이들은 파괴행동(약탈행동 포함)을 하기 위해서 도심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났다. Jeffrey St. Claire라는 사람이 12월 3일에 시애틀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떤 흑인 청년이 달려와서 흥분하여 “내년에도 이러한 시위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물론,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진영의 대부분은 백인들이었다. 그렇지만 시위 중에 나타난 기업자산파괴 등 여러 행동들은 진정으로 다양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런 청년들을 제지하려 했던가? 그것은 Medea Benjamin의 ‘평화 나치주의자들’이었다. Cascadia Alive 언론은 Medea Benhamin과 그의 무리들이 나이키, 리바이스, 기타 상점들을 방어하면서 흑인 청년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찍은 필름을 가지고 있다. 그처럼 독선적인 위선자들은 그들의 깡패 같은 무리들이 흑인청년들을 때려눕히고 있을 때 “비폭력 시위를 하자”라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진짜 폭력은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평화 나치주의자들’은 그 중 몇 사람을 붙잡아서 경찰에게 넘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지금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에게 위협이다.

건물벽에 ‘Circle-A(Ⓐ)’를 그리는 사람은 모두가 아나키스트인가?

왜 아나키스트들과 그 동료들은 자산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상점주인들은 자산파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겠는가?

천만불 이상의 손해가 있었을까?

블랙 블록에 대하여[40)]

Black blocs는 무엇인가?

Black bloc은 집회나 시위에서 공동행동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아나키스트와 아나키스트 지지그룹의 일시적인 결합이다. Black bloc의 행동양식은 매번 바뀌지만, 주요 행동목표는 억압적인 경찰의 진압에 공동대응하는 것이며 어떤 데모이든지간에 그 안에서 아나키적 운동방법을 구현하는 데 있다.

Black bloc은 하나의 '조직'인가?

Black bloc은 그룹이나 조직이 아닌 하나의 '전술'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말할 때 '시민불복종 그룹'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Black bloc이라는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Black bloc이라는 조직은 없으며 단지 집회나 시위 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전술일 뿐이다.

왜 Black bloc인가?

몇몇 아나키스트들이 Black bloc의 전술로 데모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연대

아나키스트들이 함께 모여 군집을 이루어 행동하면 경찰의 진압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40) 이글은 웹사이트 http://www.infoshop.org/blackbloc.html에 소개된 「BLACK BLOCS FOR DUMMIES」를 번역한 것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연대투쟁방식과 흡사한 것이다.

2. 가시성

함께 모여 움직이기 때문에 퍼레이드 행사의 무리처럼 쉽게 눈에 띄어 그 존재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아이디어

운동방법에 있어서 아나키한 운동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 상호부조, 자유연합

각각의 소그룹들이 함께 힘을 모아 좀더 큰 형태로 연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방식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좋은 예이기 때문이다.

5. 상승효과

시위방법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 단순한 개량주의를 넘어서서 문제의 근본을 바로잡도록 – 국가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Black blocs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Black bloc전술은 80년대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빈집점거 운동가(Squatter)들과 자치주의자들(Autonomen)의 시위전술에 독일 경찰이 Black bloc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 Black bloc은 걸프전쟁 반대시위(1991년)때 처음 시작됐다.

과거 북미에 Black blocs는 있었는가?

언급했다시피, 북미의 Black blocs가 1999년 시애틀투쟁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90년대 여러 데모를 통해서 나타났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1999년 필라델피아에서 천오백에서 이천여명이 결집했던 'Millions 4 Mumia' 때였다. 이것은 종신형으로 감옥에 있는 민권운동가인 무미아 아부 자말(Mumia Abu-Jamal)의 석방에 대한 시위대의 결의를 보여준 비폭

력 Black bloc의 좋은 본보기였으며, 좌파들에게 무시당했던 아나키스트운동을 새로이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사실 몇몇 좌파계열의 언론은 M4M을 다루는 기사에서 아나키스트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Black bloc은 폭력을 조장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Black bloc은 하나의 전술로서, 시위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동의수준에 따라 그때 그때 바뀐다. 그러나 바뀐다 하더라도 Black bloc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왜 Black bloc은 경찰을 공격하는가?

왜냐하면 경찰이 시위대의 진로를 막기 때문이다.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아예 경찰과 감옥을 없애기를 원하지만, 사실 주요한 공격목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경찰은 그저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얼굴일 뿐이며, 계급투쟁의 최전방에서 가진 자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Black bloc을 위해서는 검정색 옷을 입어야만 하는가?

아니다. 검정색은 단지 아나키즘을 나타낼 뿐이다. 'black' bloc이라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많은 아나키스트들조차도 검정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Black bloc인 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 옷을 입는 진짜 이유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익명성과 관계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black blocs의 리스트

1992년 워싱턴 DC - 걸프전쟁 반대시위. 세계은행의 창문이 파괴되었다.

1992년 샌프란시스코, 콜럼부스 기념일 - 500년 동안 이어온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에 항의하는 시위.

1999년 필라델피아(4월24일) - 천오백 내지 이천명의 아나키스트들이 행진한 'M4M'시위.

1999년 시애틀(11월 30일) - 반세계화투쟁 시위.

2000년 4월 16일, 17일 - 워싱턴 DC에서 IMF.세계은행에 대한 시위 = Revolutionary Anti - Capitalist Bloc(RACB) 칠백명에서 천명이 16일에 참가.

2000년 메이데이(5월 1일) -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오레곤의 Black blocs. 뉴욕의 Black bloc 몇몇은 예비구금 당함.

2000년 필라델피아(8월 1일) - 공화당 전당대회기간 중 가두행진.

모든 Black blocs 참가자는 자산파괴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다. 시애틀의 N30과 WTO반대투쟁은 미국에 Black blocs의 존재를 알리는 첫 사례였다. 그들은 자산파괴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에 관여했다. 이것은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십대의 단순한 파괴행동 따위는 아니었다(그것은 분명한 정치적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왜 Black bloc의 멤버는 마스크를 하는가?

black bloc전술을 사용하는 아나키스트는 여러가지 이유로 마스크를 쓴다.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경찰이 시위참가자를 비디오로 찍어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러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시위에 참가하는 보통사람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그런 활동이 불법일 때조차 경찰은 이런 짓을 수행한다. 마스크는 신분보호를 위한 '익명성' 뿐만 아니라 '평등'의 의미도 담고 있다. 메가폰을 잡고 시위대를 향해 외치면서 시위대를 이끄는 지도자 대신에 Block bloc의 참가자들은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려 행동한다. 또한 마스크를 쓰면 불법행동에 가담한 후 도망가는 시위참가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르코스 부사령관의 말을 인용하겠다. "어떤 black bloc 아나키스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데, 그들은, 말하자면, 자기정체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Black bloc의 전형적인 전술에는 무엇이 있나?

전술은 각각의 black bloc마다 다양하며 항상 변화한다. 전형적인 전술 중에는 ‘비체포전술(unarresting)’과 ‘스크럼(arm-linking)’이 있다. 비체포전술이란 체포당할 위기에 처한 시위참가자가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보통 시위대가 경찰보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 있을 때 유효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찰관은 시위참가자들이 붙잡힌 동료를 구하려고 덤벼들면 매우 당황하기 때문에 이 전술은 잘 먹혀든다. 스크럼은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할 때 시위대가 서로서로 팔을 끼워 시위대열을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것은 마치 시위진압경찰의 편대와 비슷하지만 좀더 유동적이면서 실전적이다.

스쿼트운동의 현재![41]

— 유럽에서 —

구라아 다케시(藏阿 健)

스쿼트(SQUAT)!

독일 이탈리아의 아우토노메나 아우토노미아운동이 확대 유지된 것은 빈집점거(스쿼트)운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빈집을 점거한다는, 생활과 운동을 거점화하는 운동이 없었다면 아나키스트나 좌익은 종래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운동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네델란드의 빈집점거운동은 규모나 운동의 일반화라는 점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점거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암스테르담에는 현재도 100개 이상의 점거주택이 있다. 점거후에 합법화된 것을 포함하면 300개는 훨씬 넘는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빈집이 점거되고 있다. 그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암스테르담 시내각처에 스쿼트 상담소가 있고 빈집점거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 변호사 소개까지 해준다. 점거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 그룹을 만들고, 목표로 하는 빈집을 수주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사한다. 점거결행일이 결정되면 상담소의 멤버가 스쿼트 동아리들에게 연락한다.

결행일에는 40여명이 모여서 점거할 집 근처에 집합한다. 결행시간이 되면 일제히 돌입한다. 열쇠를 따는 순간만 들키지 않으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열쇠따기 전문부대가 등장하고 재빠르게 자물통을 파괴하고 새것으로 바꿔버린다.

문이 열리면 침대, 테이블 의자 등등 생활용품을 차례로 가지고 들어간다. 이 시점에서 법적으로 '생활권'이 발생한다. 불법침입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생활권'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생활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경찰은 '침입자'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측면지원체제도 완벽

41) 『Anarchist independent Review』 10호(2001, 봄, 마지막 호)에 실린, 「SQUAT MOVEMENT NOW! — from Europe」를 번역한 것임.

하다. 점거할 집의 주변에 배치된 보초가 사전에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의 동향을 전화로 연락해 준다. 점거에 성공하고 생활이 시작되면 지붕이나 창에다가 “시의 주택정책을 분쇄하라” 등 큰 글씨로 슬로건을 써서 플랭카드를 내걸고 도시주택의 비싼 집세에 항의하는데, 근처 주민들이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들 중에는 즉시 재판을 시작하고 강제철거에 나서는 강경파도 있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복잡할 때는 재판개시가 늦어지고 재판도 생활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그렇게 되면 스쿼트운동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적어도 1년, 잘되면 10년 이상 거주할 수가 있다. 공장같은 커다란 공간의 점거를 성공할 경우 카페나 라이브하우스로 개조해서 주거점거운동 멤버들의 커뮤니티센터로 쓴다.

이렇게 획득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스쿼트 생활은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한다. 취사나 청소를 당번제로 하면서 기숙사같은 생활을 한다. ‘모히칸 펑크스’의 사나이들이 당번으로 쓰레기를 퍼내는 것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면 시당국이 집주인과 조정을 해서 아주 싼 집세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있고 빈집이 시의 소유물일 때는 시가 스쿼트운동위원회에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예술가가 거주하는 점거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아뜨리에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에 와서 강경파 집주인도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온갖 수단으로 스쿼트운동가를 배제하고 있다. 집주인이 재판에 이길 경우, 비로소 경찰은 강제철거절차를 밟는다. 스쿼트운동가들은 “주택을 사수하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집을 바리케이트로 쌓고 기동대와 공방을 전개하는데, 스쿼타(squatter)들은 무기라고 해야 창이나 기동대에 페인트를 집어던지는 정도이고 사수는 무위로 끝난다. 체포되어도 대개 다음날 석방되고 또 다른 집을 새로이 찾아서 점거하면 된다.

주택점거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빈집점거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네델란드는 ‘관용적 사회’라는 말을 듣는다. 마약, 매춘, 안락사까지 용인하는 정책의 배경에는 그것들은 터부(금기)로 보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전체의 의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운동에서 항상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는 문제이기도 했다. 정부는 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데미지’까지 고려하면서도 터부를 용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였고

이것을 실천해왔다. 그 결과 정부가 많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노동운동처럼 당국이 지원해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Xs4all provider는 컴퓨터통신이 등장했을 당시 활동가의 정보네트워크로 기능하고 그중에는 반체제 해커를 양성하는 자도 있었다. Xs4all에 주목한 것은 활동가만은 아니었다. 되레 관심을 보인 것은 '해커로부터 통신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방위하는 데는 해커에게 연구시키는 것이 최선이다'고 생각한 통신관련 기업이나 행정기관이었다. 그 결과 Xs4all에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시스템개발연구비가 지급되고 종속관계는 깊어져 갔다. 결국 네델란드 왕립통신공사 KPN에게 매수되고 말았다. KPN은 최근 일본의 NTT 도코모와 제휴한 것으로 유명하다. Xs4all에서 운동이 체제로 흡수되고 종속되는 현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티파(ANTIFA)

90년대 전반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신나치 파시즘운동에 대해서 아나키스트나 아우트노메나 좌익그룹이 연계해서 안티파(ANTIFA)를 결성했다. 외국인 노동자, 난민, 이민자를 습격대상으로 한 파시스트들과 실력으로 대항하려는 안티파운동은 네오나치의 본거지 독일뿐만 아니라 동유럽을 포함, 유럽각지에 확대되었다. 당초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습격하는 것이 나치스를 본딴 우익소년의 그룹정도라고 보고 노동조합 등은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노동자, 실업자, 저소득층에게 파시즘이 급속하게 침투했으며 또 그 배경에 이러한 배외주의적 풍조를 용인하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자 사민(社民)세력이나 노동조합은 마침내 운동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파시즘의 공격은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자기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재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아우토노메나 아나키스트, 안티파그룹은 일찌기 경종을 울리고 파시스트들과 전투를 준비했다. 가장 치열했던 곳은 파시즘의 본산 '독일'이다. 네오나치즘이 지하비밀집회를 한다는 정보를 들으면 쇠파이프와 헬멧으로 무장하고 습격한다. 안티파부대가 가두데모에 나서고 파시스트측에 가담한 경찰과 충돌하는 등 각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안티파 타도'를 부르짖는 파시스트들은 '안티 안티파운동'을 결성하고 안티파운동의 거점인 점거주택이나 안티파멤버의 개인주거를 습격하여 사상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안티파조직은 함부르크, 하노바 등 각 도시마다 기능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연대하여 AABO(아우트노메 안티파 연방조직)을 구성한다. 영국이나 덴마크, 네델란드 등에서도 안티파조직이 형성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안티파운동 멤버로도 활동하던 아나코생디칼리스트조직 SAC(스웨덴노동중앙조직) 멤버가 작년에 네오나치의 시한폭탄공격으로 학살당하는 등 아나키스트와 파시스트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크게 확대되는 안티파시스트운동이지만 한편 많은 문제점도 있다. 반파시즘 조직이면서 멤버는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흑인이나 아랍인은 극소수이며, 아시아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대규모 데모에는 이민조직도 참가하지만 회의나 토론의 장에는 백인과 외국인 이민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일은 드물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슬람교도 노동자와 술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펑크청년들을 억지로 똑같은 안티파 회의장에 있게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는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백인들이 많다.

안티파의 데모에서는 참가자가 모두 백인이고 그들의 투쟁상대인 기동대 안에는 흑인들이 몇 명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데모대가 "너희들 경관은 파시스트다"하고 소리를 지르는 데는 좀 복잡한 기분일 수밖에 없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찾고 동시에 파시스트들과의 격렬한 투쟁상황을 만들어나가는 조건을 획득하는 것이 안티파운동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레이브(Rave)의 한계와 펑크재건

현재 독일이나 네델란드에 아우토노메데모에서 가두선전차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하드테크노이며 하드코어 댄스뮤직이다. 그것이 전투성을 승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으로 좋지만, 그전 펑크와 비교하면 댄스계 테크노는 너무나도 정치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데모가 테그노계에서 확대되고 있다. 전 유럽 규모에서 확대된 마리화나 합법화데모에는 많은 하드코어 테크노들이 참가하여 길거리 레이브파티를 전개했다.

그들의 슬로건은 "마리화나도 담배와 같이 합법화해야 한다" 이다. 어째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마약의 비합법성 때문에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백보 양보하더라도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법제화 요구’와 같은 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가의 허락을 청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의 지평에서 투쟁하는 운동은 나오지 않는다.

“펑크를 또다시 위협으로 만들라”라고 정치와 펑크 아나키즘, 펑크를 재조직화 해온 미국의 PROFANE EXISTENCE가 기관지 발행을 멈춘 시기적 상황과, 운동에서의 하드테크노로의 음악적 세대교체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PROFANE EXISTENCE는 그후 운동을 재개했다).

최근에 와서 독일펑크스를 중심으로 APPD(독일 아나키스트 Pogo당)[42]가 창당되고 좌익이나 노동조합의 데모와 집회에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노동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도대체 노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일체의 노동은 필요없다고 외친다. 이러한 펑크스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혁명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날, 카오스데이(Chaos Day)를 지향해온 것도 APPD에 집결한 무장펑크스들이다. 기존의 좌익노동조합은 펑크스들에게 냉냉한 시선을 보냈었는데 독일사민당과 녹색당이 집권당이 되고 유고공습이나 복지를 무시하는 와중에서 노동조합이 ‘적색과 녹색의 연합정부’에 기대하던 환상은 붕괴하고 있다. 그래서 펑크스에 대해서 지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인정하게 됐다.

네트워크를 운동으로

재작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총회에 대한 아나키스트와 아나코펑크스의 투쟁은 아나키즘운동이 지금 더욱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에서는 “노동조합과 NGO가 WTO에 항의활동을 하다”라고만 보도되었지만 미국의 매스컴은 크게 주목하였다. 항의활동에서 아나키스트들이 발휘한 조직력,전투력,파괴력에 특히 관심을 가졌으며 뉴스위크나 타임 등의 주간지는 대특집을 편집했다. 기사에서는 촘스키에서 춤바왐바까지 인용하고「왜 지금 아나키즘인가?」라는 제목으로 분석했다(유감스럽지만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아나키즘 분석 기사는 짤렸다).

WTO분쇄투쟁의 일련의 활동 상황은 시시각각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관련정보의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다. 그것이 다시 많은 참가자들을 불러모으는 연쇄작용을 했다. 또 영국에서는 5월 1일 아나키스트가 호소한 메이데이2000 데모가 진행되었다. “우리들의 저항을 자본이 하는

42) Anarchistische Pogo — Partei Deutschlands.

것같이 세계화하자"라며 런던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이 싸움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진에 런던행 국제열차표를 위조해서 나누어주는 등 과거에 보지 못한 규모로 수행되었다.

일본의 신좌익 제당파의 기관지는 그들이 부르조아 신문이라고 비판하는 일반신문의 국제면 신문에 그들 나름의 해석을 붙이고「WTO반대 노동자의 데모」,「영국에서의 메이데이데모」라는 기사를 썼을 정도다. 인터넷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 일본에서는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투쟁을 하는 당파나 그룹이 전세계의 혁명적 조직들과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공허할 뿐이다. 그들이 사상으로서 컴퓨터를 부정한다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적 규모의 수탈을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자본이 지배도구로 만들어낸 것을 거꾸로 그들이 싫어하는 방향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네트워크를 통한 운동의 확대는 일본에서는 터무니없이 느리다. 아나키즘운동도 마찬가지다. 자본이나 권력에 포섭되지 않고 나아가서 기계에 대해서 종속되지 않는다면 아나키즘 네트워크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운동의 차원에서 전략으로서 아나키즘 네트워크를 살리고 전세계 아나키즘운동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 관련홈페이지

- 인터내셔널스쿼팅 정보
  http://www.squat.net/
  http://www.antenna.nl/ravage/
  http://www.xs4all.nl/~keyser
- 아우토노메 ANTIFA
  http://www.nadir.org/nadir/initiativ/aam
- PROFANE EXISTENCE
  http://www.profaneexistence.com/
- APPD
  http://www.appd.de/
- 스웨덴 SAC
  http://www.sac.se/
- 런던 메이데이 2000
  http://www.freespeech.org/mayday2k/index2k.htm

롱비치의 아나키스트, 경찰의 폭행 그리고 국제연대의 가능성[43]

Sk!

시작하며

1980년대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에서는 아나키스트가 활발하게 저항하고 있다. 세계 최대급의 항구의 하나로 알려진 롱비치는 로스앤젤레스의 정남방에 위치하고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도시는 트럭운송업자와 항구노동자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아나키스트가 이곳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러저러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들은 과거 1년반 사이에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Food Not Bombs(폭탄이 아니라 먹을 것을)'의 제 3지대의 활동은, 1980년대와 1990년대초에 헌신적 아나키스트와 활동가 그룹에 의해 롱비치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은 롱비치의 지역 인포샵[44]에 거점을 두고 있다. 그곳에서 가끔 있는 기부를 빼면 아무런 외부 자금원도 없이 홈리스나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주 먹을 것을 지급하고 있다. 'Food Not Bombs'는 혁명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문제가 끊임없이 존재하는데도 상호부조 윤리가 성립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롱비치의 아나키스트는 세계산업노동자, 펑크 록, 현지의 노조, 생태계보호 저항활동, 동물의 권리, 가부장제 반대투쟁 등 그 밖에도 많은 운동에 참가했다.

2001 메이데이와 경찰의 탄압

1999년 시애틀 이후,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은 로스앤젤레스 지방에서 대단히 분산된 형태

---

43) Long Beach Anarchists, police brutality and the potential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アナキズム 第 2号(2002. 9. 15, (株)ぱる出版, 『アナキズム』誌 編集委員會)』에서 번역.

44) 인포샵은 급진적 성향의 책을 팔거나 읽을 수 있는 서점인 동시에 사회운동을 위한 공간이다. 각 지역의 운동가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분산된 정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책자를 발간하거나 지역운동을 지원하는 등 운동거점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 공동으로 운영되며 그 공간은 가게를 빌리거나 아니면 스쿼팅에 의해 확보한다. 인포샵은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60여개가 넘는다. 이러한 인포샵들은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운동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로 커져갔다. 갖가지 프로젝트가 근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나키즘 비평을 더욱 빈번하게 들을 수 있었다. 2000년에 있었던 민주당(미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전국대회 때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미아나키스트 회의가 열려 아나키스트가 집결했다. 이 회의의 결과는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원시주의 아나키즘과 생디칼리즘을 싸고 파벌적 분열이 회의에 분극화(分極化)를 일으켰다. 회의장소는 당일까지 비밀이었다. 정부의 검거가 있을 것이라는 망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혼란을 일으켰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그로부터 1년후 2001년 메이데이에서 되풀이되어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이 회의를 계기로 메이데이 2001은 수많은 급진청년들을 그 해의 통상적 메이데이 행진과는 다른 '반역 이벤트'로 집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메이데이 이벤트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피크닉으로 계획되고 갖가지 지지그룹이 참가해서 행동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프로세스는 각 그룹이 충분한 자주조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었다. 하나의 조직파벌(organizing clique)이 뜻도 모른 채 모든 지지그룹에 대한 행동의 장에서 '담당'을 맡는 처지가 된 것이었다. 이들 좌익 친목그룹은 지역정보를 모르며 타켓의 리스트도 갖지 않고, 어디에 숨어있다가 어디서 마스크를 벗고,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지키는가 등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메이데이는 처음부터 잘 될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당일 경찰은 당연히 집합장소를 발견하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 지지그룹이 집합장소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거리 도처에다가 차량 30대를 배치하고 폭동진압용 장비를 준비하고 건너편에는 탱크까지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엄청나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인원이 늘어나면 강력한 100명의 블랙블록이 경관을 향해서 행동하고 계획된 데모코스를 행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가자들끼리 스크럼을 하는 전술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증명되었다. 팔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연대를 의미하고 단호하고 중후하게 경찰과 대치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규모가 작은 데모에서는 충분한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

경찰과 두 번째 대결하고 롱비치 세계무역센터 사무소로 가는 길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우리는 로커스트 대로를 향해서 후퇴했는데 거기서 경찰은 교통을 막고 우리를 보도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블랙블록은 꽤 강고한 편대(semitight formation)를 짜고 길 위에 멈춰 도로의 벽돌 두 개를 던져서 그 중 하나가 경찰차량에 명중했다. 그 찰나, 우리는 로커스트대로로 밀려

나고 경찰은 우리의 전후좌우로 밀고 들어왔다. 그야말로 포위당한 것이다. 경찰은 우리를 지하주차장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것이다. 지하주차장에는 비디오 카메라도 없고 그들의 폭력을 기록하는 보도진도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랙블록은 길 위에 멈춰 서서 경찰봉으로 배와 팔을 난타당하면서 방어에 힘을 다했다.

어느 시점에서 경찰은 우리에게 돌격해오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우리가 팔을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압도적인 폭력을 피하려고 했을 때 몇 사람이 밟혀 쓰러지면서 대열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대열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경찰은 가까이서 고무탄을 발사해서 우리를 차례로 쓰러뜨렸다. 모든 뉴스 카메라는 이 장면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카메라는 뒤에서 그저 방관하고 있던 경찰만 촬영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눈은 국가의 폭력장면을 단 한번도 기록하는 일이 없다. 경찰은 즉각 우리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체포했다. 다친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돼서 팔이 부러져서 나뒹굴었고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시 구타당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는데, 얼굴에서 고무탄을 파낸 동지, 다리에 6개나 고무탄을 맞은 동지, 팔이 부러진 동지들, 전혀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사납게 구타당한 여성도 있었다. 메이데이 2001의 결과는 참가자들의 머릿속에 얼마동안 기억될 것이다.

롱비치 아나키스트의 저항운동

롱비치의 콜렉티브(공동체)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미결수의 석방지원(jail support)을 비롯해서 재판절차회의(trial guidance meetings)를 시작했다. 재판이 끝나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리고 로버트 밋두라는 동지는 단순히 의학생이 데모에 참가했다는 것만 가지고 3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정도의 징역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사법조정(司法調定)을 했다. 또 한명의 의학생에게는 위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6개월의 가택연금형이 과해졌다. 이 시기에 무명의 블랙블록 참가자들은 참가자 내부에서 중요한 연계를 만들고 몇몇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친화력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비극 속에서 나타난 것은 롱비치 지역 인포샵.경찰폭력 반대활동.자유급진주의자 반전 저항운동.재소자 지원활동, 특히 롱비치에서는 전투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롱비치의 현대 아나키스트 저항시대는 반경찰활동.반파쇼활동.펑크와 힙합을 통한 선전활동 등 모든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 인포샵이 생긴 결과 경관과의 대결은 확실히 메

이데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빈번해지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두 개의 데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지 아나키스트가 주도한 것이며, 최근에는 잉글우드의 흑인 소년 폭행에 대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데모에 참가했다. 아나키스트 저항운동의 중요한 제 2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2002 롱비치 아나키스트에 대한 경찰 탄압

2002년 1월 24일, http://www.raisethefist.com의 웹마스터인 샤먼 오스틴은 자고 있다가 FBI.ATF.재무성 비밀검찰국의 습격을 받았다. '애국법(Patriot Act)'을 위반했다고 해서 체포되었다. 애국법은 사상.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폭넓은 국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Raisethefist는 명백하게 아나키즘적이고 청년을 위한 것이어서 국가는 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습격은 사이트에 실린 폭탄제조.'테러리스트' 정보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정보는 실제로 '항의 가이드(Reclaim Guide)'라는 유명한 팜플렛에서 카피한 것이었다. Raisethefist가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한 웹사이트의 파일과 정보는 전부 습격자들이 훔치거나 파괴했다. 행운이랄까 상호부조의 표현으로 Google 검색페이지의 아카이부와 인터넷의 백업(Back up)을 통해서 이 사이트가 전세계의 많은 지지자의 도움으로 복구되었다.

샤먼은 북미 경찰국가에 의한 계속적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당시 뉴욕에서 체포되었고 지역 인포샵의 멤버로 롱비치에서 빈번히 공격당했으며 물론 메이데이 2001에서도 체포당했다. 북미국가가 마이너리티에 의한 혁명을 두려워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는 아나키스트의 조직자일뿐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북미국가의 불공정(부정의)과 일상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샤먼의 투쟁과 롱비치 인포샵의 발전과 함께 우리들의 동지 '랑페지', 매슈 라몬트는 반파쇼활동 혐의로 투옥되었다. 랑페지는 귀중한 동지이며 헌신적 반란자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반역의 혼은 북미아나키즘의 활동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대규모 반자본주의 항의행동 'Food Not Bombs'.나무 위에서의 Sct - in 등 몇 가지 행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2002년 4월 20일 랑페지와 그의 친구 맥스웰은 롱비치 형사 두 사람에게 추적되어 오렌지 카운티의 라 하브럴시에서 타고 있던 자동차를 정차당했다. 정지시킨 이유는 불명확했는데도 자동차는 '롱비치의 형사'에 의해서 조사받았다(롱비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관할구역인데도……). 형사는 차 안에서 가스통을 발견, 두사람을 체포구금했다. 맥스웰 라카스는 미성년으로

켈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소년원’으로 연행되었다. 그의 혐의는 파괴기구의 소지라는 중죄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맥스웰 라카스는 현재 출감했다). 매슈 라몬트는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형무소에 수감중이며 파괴기구의 소지, 수송, 사용, 제조 재료와 제조방법 소개라는 4가지 중죄로 고소당했다. 매슈의 범죄부인절차는 4월 23일 프라튼시 오렌지 카운티 중앙재판소 제 7법정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었다. 범죄부인절차 진행중에 매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3주간의 연기를 청구하고 있었다. 매슈의 보석금은 10만 달러라고 했다.

2002년 5월 14일(화) 매슈 라몬트는 산티아나 중앙재판소에서 추가 죄상에 대한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날, 재판소에서 소규모 데모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데모 참가자가 현지에 도착하자 대단히 많은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폭동진압용 장비를 착용한 경관, 비밀수사원, 보안관 대리, 기마경찰 등이었다. 경찰은 그 날 데모에 참가하려고 달려온 매슈 라몬트의 지지자들에게 달려들어 비디오를 찍고 자동차를 조사하고 체포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매슈는 4가지 중죄를 이유로 기소되어 현재 심각한 재소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매슈는 산티아나 형무소의 강력한 경비 속에서 24시간 감금되어 있다.

매슈 라몬트나 기타 롱비치의 정치범(예를 들면 룩스나 일시적으로 투옥된 제프 헨드릭스)을 석방하라는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경찰은 탄압을 시작했다. 길에 침을 뱉거나 신호를 무시하면 그것만 가지고 위반티켓을 떼었다. 그리고 롱비치의 아나키스트는 일상적으로 경찰의 심문에 시달리고 있다. 나도 여성동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롱비치 경찰서 바로 옆에서 정차당했다. 경관은 자동차 뒷창이 깨졌다고 심문을 시작했다. 전날 밤 누군가가 창을 깨고 여성동지의 노트와 등가방을 훔쳐갔던(금전적 손실은 전혀 없었다. FBI의 행위가 틀림없다) 것이다. 경찰은 그 차가 도난 차량인지 물었고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데 40분쯤 걸렸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롱비치의 아나키스트에 대한 탄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여성동지는 롱비치의 중요한 아나키스트의 한 사람으로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말을 하게되어 있었는데 자동차심문 때문에 결국 출석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아나키스트의 활동에 폭력으로 개입하는 데까지 경찰이 타락했다는 수준이하의 사례라고 하겠다.

롱비치 아나키스트들에게 연대를

롱비치의 경찰에 의한 계속적인 감시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 운동은 필사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현재 아나키즘 운동은 경찰의 폭력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업중인 국제해운노동자조합(ILWU) 노동자들과의 연락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아나키스트도 롱비치 항구에서 수출입을 하는 다음 기업을 표적으로 함으로써 롱비치의 아나키스트나 ILWU와의 연대를 이룩하도록 부탁한다.

3M / Agilent Technologies / Agriculture Ocean Transportation Coaliton / Best Buy Co., Inc. / Burlington Coat Factory Warehouse Corp. /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Railroad / C.H. Powell Company California / Cartage Company /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 Columbia Sportswear Company / ContainerFreight EIT LLC / Del Monte Foods / Don Breazeale and Associates, Inc. / DPI DSL Inergrated Logistics, Inc. / Ernest & Julio Gallo Winery / Evergreen America Corporation / Expeditors International of Washington, Ins. / Family Dollar Stores, Inc. / Footwear Distributors and Retailers of America Gap Inc. / Great Western Steamship Co. / Hewlett Packard Intermodal West, Inc. / International Mass Retail Association / JCP Logistics L.P. / Kellogg Company / Kurt Orban Partners LLC Limited Logistics Services, Inc. / MAERSK / Pacific Marine Exchange of San Francisco Bay Region / Mattel Mega Toys / National Retail Federation Otis McAllister, Inc. / Pacer Stack Train / Pacific Maritime Association / Pacific Merchant Shippers Association / Panasonic Logistics Company of America / Payless Shoesource, Inc. / Rail Delivery Services, Inc. / Target Stores / The Home Depot / Toy Shipping Association / Toyota / TransSolve, LLC / U.S. Association of Importers of Textiles and Apparel / WAL-MART Stores, Inc. / Yamaha Corporation of America 등 43개 업체

투옥당한 동지들의 형무소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서툰 영어라도 연락해 주기 바란다. 어떤 편지든 마음을 열어줄 것이니까.

매슈 라몬트(MATHEW LAMONT)
Inmate # : 2057039 Intake release center 550 N.Flower St. Santa ana CA 92703

로버트 밋두(ROBERT MIDDAUGH)
#T41137 D-5 230
PO BOX 5005
Delano, CA 93216

마치며

이 글을 한국계 미국인 아나키스트이며 오랫동안 우리들의 동지인 제이 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내겠다.

> 옛날에는 조촐하게 뭉쳤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청년과 많은 공동체(Collective)가 있다. 나는 오늘의 활동가는 좀더 전투적이고 지역의 조직화에도 더 많이 나선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현재의 단 한 가지 차이는 옛날보다 더 많은 유색인종이 참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더욱 착실한 활동가로서 단순한 펑크 아나키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변혁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다면 펑크 서클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연구하고 단결하고 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워크샵이나 회의에 참가하고 서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는 베겨내지 못하는 일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행동하라! 진짜 변혁은 행동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45)

"An Anarchist FAQ Webpage"는 아나키즘을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10개의 섹션으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데, 아나키즘에 대해 알고 싶은 이에게 좋은 사이트가 될 것이다.

아래의 글은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의 서문으로, 짧지만 아나키즘의 기본적인 생각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읽고 흥미를 느낀 사람은 꼭 본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현대문명의 위기와 위계적 권력주의

현대문명은 세 가지 파멸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1) 사회붕괴의 위기

자세히 말하면, 빈곤, 홈리스, 범죄, 폭력, 소외, 마약과 술의 남용, 사회적 고립, 정치적 무관심, 인간성 상실, 자립적.상호부조적 커뮤니티 구조의 쇠퇴 등이 진행되고 있다.

2)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위기

모든 생명이 의존하는 복잡한 생태계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3) 대량살상병기가 확산되는 위기

특히, 핵무기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의 주류를 이루는 논조나 체제측의 전문가와 정치가 등의 정통적 견해는 "이러한 위기는 각각 개별적 요인을 가진 개별적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문제와 구별해서 개별적으로 대처하면 된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적인 방법으로 잘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지금도 자꾸만 악화되는 데 있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파멸적인 전쟁, 생태환경의 되돌이킬 수 없는 파멸, 도시의 붕괴와 황폐화 등의 대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45) 『アナキズム(아나키즘)』 제 2호(2002. 9)에 소개된 내용을 번역하였으며, 영어로 된 FAQ 전문은 http://www.infoshop.org 등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은 FAQ의 「Section A :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임.

아나키즘은 이러한 위기를 하나로 포괄해서 해명하는 방법을 제기한다. 갖가지 위기에 공통된 근본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불문하고 모든 문명사회의 주요한 조직이 갖는 위계적인 권력주의다. 따라서, 아나키스트의 분석은 '현대의 주요한 사회조직은 모두 위계적 형태'라는 사실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사, 관청, 군대, 정당, 종교단체, 대학 등은 피라미드 구조의 우두머리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조직된다. 이러한 위계구조에 집중된 권력관계가 개인,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제부터 제시하겠다.

이 FAQ의 전반(섹션 A - E)에서는 위계적인 권력과 그것이 낳는 해독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자세한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나키즘은 단순하게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현대문명 비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를 들면, 아나키즘에는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제안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엠마 골드만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타자와 더불어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자신이 되는가 하는 것, 전 인류와 깊게 공감하면서 자기의 개성을 잃지 않고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타인을 희생으로 삼지 않고 개인의 잠재적 개성을 꽃피게 하는 사회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말단까지 조직된 기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중앙집권적 위계구조가 아니라, 인간성에 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개인의 자발적 연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FAQ의 후반(섹션 I -J)에서는 이렇게 "Bottom Up (아래에서부터 위로)"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하는 아나키즘의 포지티브한 제안에 대해서 말한다. 아나키즘의 건설적인 중점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전반에서도 언급된다.

크리포드 허파는 "좋은 아이디어는 항상 단순한 것인데 아나키즘도 잘 생각해보면 대단히 간단한 것이다. 인간은 명령받고 살기보다(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라고 말한다. 개인(개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회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나키스트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든 조직'은 없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아나키스트의 공통된 것은 자유로운 인간성의 발달을 가로막는 강압적인 정치조직, 사회조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욕구이다."

조직의 억압적 성격은 위계구조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이제부터 본문에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아나키즘은 사회, 경제, 정치의 이론(학설)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론(학설)은 '당신이 갖는 생각'을 의미하지만 이데올로기는 '당신이 생각에 소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키즘은 뭉뚱그려진 사상이기는 하나 항상 진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가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것에 의해 수정되고 변경되는 유연성을 갖는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면 아나키즘도 또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도그마틱하게 신앙하는 경직된 일련의 사상이라 늘 현실을 무시하거나 옳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현실'쪽을 억지로 바꾸기도 한다.

이렇듯 침대의 크기에 사람의 키를 맞추는 '경직된' 사상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이런 구조는 레닌주의, 객관주의, 자유주의 등 어떠한 종류의 이데올로기에든 모두 똑같다. 독트린(교의, 원칙)의 이름으로 개인성을 파괴한다. 그러나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대개가 합치한다. 미하일 바쿠닌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까지의 인류역사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냉혹한 추상개념의 이름으로 피의 희생에 제공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신, 국가, 국가권력, 민족의 영광, 역사적 권리, 사법권, 정치적 자유, 공공의 복지 등이 그런 것이다."

도그마는 경직되고 움직이지 않는 점에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종교적인 도그마이든 비종교적인 도그마이든 그것은 대개 옛날에 죽은 '예언자'의 업적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우상으로 섬기면서 돌과 같은 불변의 것으로 만들어진다. 아나키스트는 살아있는 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은 것을 매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의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결정해야 하며 그 반대는 아니다. 비판적인 사고, 즉 자유에 대한 네메시스(복수의 여신)는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정답이나 법칙이나 원칙으로 가득 찬 교전(敎典)을 우리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FAQ를 만들어서 정답이나 새로운 교전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아나키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의 아나키즘의 모양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왜 우리가 아나키스트가 됐는가 그것을 설명할 뿐이다. 그래서 이 FAQ는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찾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나키즘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 아나키스트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해가 빨라지는 게 아니다. 이해가 빠른 사람은 '전문가'나 '권위자'가 옳다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늘 노예가 되어버린다.

바쿠닌은 "사람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깊은 확신에서 행동하고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다. 따라서 주위의 상황이 어떻든간에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비록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자기자신이나 자기의 주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썼다. 바쿠닌의 말은 독립된 정신의 힘, 다시 말하면 강한 자유의 힘이다. 우리는 이해가 빨라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FAQ가 아나키즘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며, 여기 쓴 것에 동의하지 않는 아나키스트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은 독자가 스스로 생각할 것을 기대해서 쓴 것이다. 우리는 아나키즘의 기초적인 사고방식이나 그에 대한 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여주려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표명한 생각의 핵심만은, 비록 찬성할 수 없는 것이 여기저기 있다해도, 모든 아나키스트가 찬동해 주리라 확신한다.

An Anarchist FAQ[46)]

이 FAQ는 아나키스트 개념이나 이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세계의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함께 작성한 공동작업으로서 아나키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왜 아나키스트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다.

이 FAQ는 아나키스트에 대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자'의 지적에 대한 반박을 아나키스트 그룹이 1995년에 시작하면서 쓰여지게 되었다. 이 작업에 함께한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와 아나키즘은 같이 갈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 마침내 몇몇 활동가 그룹이 왜 아나키즘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아나키스트가 아닌지 보여주는 FAQ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하게 되었다.

이 FAQ는 단지 어떤 것이 아나키즘이고 아닌지 설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FAQ를 읽고 공부한 여러분이 직접행동과 자아실현으로 옮기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아나키즘은 더욱 살아있는 그리고 개인적·사회적으로 '자아실현'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나키스트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여 이로부터 새로운 방향과 경험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 FAQ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희망한다.

이 FAQ에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 FAQ는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창조물이 될 것이다.

이 FAQ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아나키스트에게 바친다. 이 FAQ는 1936년 스페인혁명과 스페인 아나키스트운동을 기념하여 1996년 7월 19일 공식적으로 배포되었음을 밝힌다.

이 FAQ에 관계한 책임 있는 아나키스트는 레인 멕케이(Lain Mckay), 게리 엘킨(Gary Elkin), 데이브 닐(Dave Neal), 에드 보라스(Ed Boraas)이다.[47)]

---

46) 「An Anarchist FAQ」는 www.anarchistfaq.org/ www.anarchismfaq.org/ www.anarchyfaq.org 의 웹사이트와 기타 링크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대한 내용을 전부 번역할 수 없어, 우선 전체 내용 중 일부(특히, 목차를 중심으로)만을 번역하여 소개함.

47) 이 내용은 「An Anarchist FAQ」의 서론(Introduction) 중 일부만을 정리한 것임.

Section A :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 서론

가) 아나키즘이라 무엇인가?

1) 아나키(Anarchy)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아나키즘(Anarchism)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왜 아나키즘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라 불리는가?
4)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인가?
5) 아나키즘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나) 아나키즘의 입장은 어떠한가?

1) 아나키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2) 왜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중요시하는가?
3) 아나키스트는 조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4) 아나키스트는 '절대적'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아나키스트는 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아나키스트에게 연대는 왜 중요한가?
7) 아나키스트는 왜 '자아해방'에 대해 얘기하는가?
8) 위계질서를 문제삼지 않는 아나키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가?
9) 아나키스트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10) 위계구조를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 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12) 만장일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인가?
13) 아나키스트는 개인주의자인가 아니면 공동체주의자인가?
14) 왜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15) 인간본성이란 무엇인가?
16) 아나키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간을 필요로 하는가?
17) 자유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 있는가?
18) 아나키스트는 테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가?
19) 아나키스트는 어떤 윤리적 관점을 가지는가?

다) 어떤 종류의 아나키즘이 있는가?

1)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2)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은 또다시 여러 형태로 구분되어지는가?
3) 녹색아나키즘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4) 아나키즘은 평화주의적인가?
5) '아나코페미니즘'은 무엇인가?
6) '문화적 아나키즘'은 무엇인가?
7) 종교적인 아나키스트는 존재하는가?
8) 수식어가 붙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아나키즘은 무엇인가?

라) 주요한 아나키스트 사상가는 누구인가?

마) 행동으로 옮겨진 아나키의 예는 있는가?

1) 파리 코뮨
2) Haymarket Martyrs(헤이마켓의 희생자)
3) 노동조합주의 운동
4) 러시아혁명에서의 아나키스트
5) 이탈리아 공장점거 운동에서의 아나키스트
6) 아나키즘과 스페인혁명
7) 1968년 파리 5월혁명

Section B : 왜 아나키스트는 현 체제를 거부하는가?

- 서론

가) 왜 아나키스트는 권위와 위계구조에 반대하는가?

1) 권위주의적 사회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자본주의는 위계적인가?
3) 자본주의는 어떤 위계질서를 만들어냈는가?
4) 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혐오가 존재하는가?
5) 권위적인 사회를 만드는 대중의 심리적 근원은 무엇인가?

나) 왜 아나키스트는 국가에 반대하는가?

1) 국가의 주요기능은 무엇인가?
2) 국가의 부가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3) 지배계급은 어떻게 국가를 유지하는가?
4) 국가의 중앙집권은 어떻게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가?
5) 누가 중앙집권제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다) 아나키스트는 왜 사유재산제를 반대하는가?

1) 사유재산과 점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2) 국가는 어떤 종류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가?
3) 왜 사유재산은 착취적인가?
4) 사유재산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 자본주의는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자본주의는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가?
2) 자본주의는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가?
3)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일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4) 하지만 노동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어떠했는가?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하는 것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

마) 자본주의는 발전하고 있고, 또 인간행동에 기반하고 있는가?

바) 지식인들의 역할은 대부분의 시대에 도움을 주었는가?

사) 현대사회에는 어떤 계급이 존재하는가?

1) 그러나 계급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2) 왜 계급의 존재는 부정되는가?
3) 계급인식은 아나키스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Section C : 자본주의 경제의 신화는 무엇인가?

- 서론

가) 자본주의하에서 무엇이 가격을 결정하는가?
  1) 이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그러면 무엇이 가격을 결정하는가?
  3) 그밖에 무엇이 가격조절에 영향을 주는가?

나) 이익은 어디에서 오는가?
  1) 왜 이러한 잉여가 만들어지는가?
  2)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3) 왜 기술혁신은 필요하며 어떻게 이익창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4) 노동자는 기술혁신을 원하지 않는가?
  5) 기술혁신의 주체는 노동자이며, 또 그 노동자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가?
  6) 이자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그래서 자본주의는 정당하지 않은가?
  7) 좀더 평등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의 시간적 가치로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다) 무엇이 기업에서의 이익과 임금의 배분을 결정하는가?

라) 시장은 왜 거대기업이 독점하게 되는가?
  1) 거대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2) 사회에서 거대기업의 영향은 무엇인가?
  3) 경제이론과 임금노동의 측면에서 거대기업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 왜 거대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가?
  1) 거대기업의 거대이익은 그 기업의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바) 거대기업의 시장독점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사) 무엇이 자본주의의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가?
  1) 계급투쟁은 기업활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시장경제는 기업활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그 밖에 무엇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가?

아) 국가에 의한 화폐경제 통제는 기업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이것은 케인즈이론이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2) 1970년대에 케인즈 이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 자본주의는 어떻게 케인즈이론의 위기에 대처했는가?

자) 자유시장경제의 자본주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방임정책은 실업을 줄여갈 수 있는가?
1) 임금삭감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나?
2) 실업은 임금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가?
3) 유연한 노동시장은 실업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4) 실업은 우연한 것인가?

차) 자유시장경제의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인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카) 칠레의 예는 자유시장경제가 모든 이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1) 그러나 피노체트의 칠레는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타) 홍콩은 자유시장경제의 자본주의의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Section D :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서론

가) 국가의 간섭은 왜 생기는가?
1) 국가의 간섭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2) 국가간섭은 민주주의의 결과인가?
3) 국가간섭은 사회주의적인가?

나) 경제적 ‘부’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1) 검은 돈은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는가?
2) 기업의 선전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다) ‘부’는 매스미디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1) 언론의 규모, 중앙집권적 소유형태, 소유자의 재산, 그리고 제도 언론의 이익중심의 회사경영은 그 언론으로부터 나온 내용의 충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언론의 주요한 수입원인 광고의 영향은 어떠한가?
3) 왜 언론은 정부, 기업, 또는 정부나 기업 등 권력의 지원을 받는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의존하는가?
4) 언론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부유하고 힘있는 기득권이 사용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5) 기득권층은 왜 국가종교와 통제시스템으로서 반공산주의를 이용하는가?
6) 언론이 엘리트에 의한 선전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음모인가?
7) 언론의 역할과 모순되는 이러한 음모이론은 정부나 기업의 부패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라) 자본주의와 생태위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왜 자본주의사회의 기업은 성장이 아니면 죽음인가?

마) 무엇이 제국주의를 초래하는가?
1) 제국주의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2)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3) 세계화는 제국주의의 종말을 얘기하는가?

바) 아나키스트는 민족주의에 반대하는가?

사) 아나키스트는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가?

아) 군사주의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1) 군사주의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변화할 것인가?

자) 부의 양극화와 권위적인 정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왜 정치권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앙집권적으로 되는가?
　2) 소위 보이지 않는 정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3) 왜 수감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가?
　4) 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늘어만 가는가?
　5) 권위적인 정부는 항상 검열과 관계 있지 않은가?
　6) 우익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차) 자본주의는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카) 무엇이 인종주의에 대한 정당성의 이유인가?
　1)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인종주의 확산에 부분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는가?

Section E : 아나키스트는 무엇이 생태위기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가?

- 서론

가) 에코아나키스트는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무엇을 제안하는가?
　1) 왜 에코아나키스트는 노동자의 개입을 옹호하는가?
　2) 왜 에코아나키스트는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나) 절대적 사유재산권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가?

다) 경제력은 공해방지에 어떤 역할을 가지는가?

라) 자유시장경제의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은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마) 단기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가?

바) 인구문제는 무엇인가?

사) 건전한 소비는 생태위기를 넘길 수 있는가?

Section F : 아나코캐피탈리즘은 아나키즘의 한 형태인가?

- 서론

가)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진정으로 아나키스트인가?

1) 왜 위계구조를 단념하지 못하는 것은 우익 자유주의와 아나코캐피탈리즘의 아킬레스 건인가?
2) 우익적 자유주의는 얼마나 자유주의적인가?
3) 우익적 자유주의는 과학적인가?

나)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자유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 권리란 측면에서 자유를 정의할 때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2) 사유재산과 자유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3) 아나코캐피탈리스트 이론은 국가를 정당화하는가?
4) 시장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규제가 없이 자발적인가?
5) 지금의 사회환경은 자유해방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거부되어서는 안되는 것인가?
6)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자는 노예제를 지지하는가?
7)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8) 왜 우리는 자유와 정의에 대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의 정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가?

다) 일반적으로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왜 평등에 관하여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왜 이런 평등에 대한 무관심은 중요한 문제인가?
2) 왜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자선사업을 지지하는가?

라) 사유재산에 대한 우익자유주의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1)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2) 로크의 학설은 왜 중요한가?

3) 사유재산은 개인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4) 사유재산은 사회적 관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 사유재산은 위계구조 없이 조정될 수 있는가?

마) 공유재산의 사유화는 자유를 증가시키는가?

바)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국가를 반대하는가?
1) 자유시장경제의 정당성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2) 자유시장경제의 사회적 결말은 어떤 것일까?
3) 시장의 힘은 부유층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가?
4) 왜 이러한 방어적 연합체로서의 국가가 필요한가?
5) 그 외 어떤 영향을 자유시장경제의 정당성에서 논의할 수 있는가?

사) 자연법의 신화는 무엇인가?
1) 왜 자연법인가?
2) 자연법은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연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전제정치를 바란다.
3) 왜 자연법은 권위적인가?
4) 진정으로 자연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가?
5) 자연법은 발견된 것이지 발명된 것은 아니다!
6) 왜 발견의 개념은 모순적인가?

아) 국가는 자본주의의 출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1) 어떠한 사회적 요구가 자본주의의 형성 뒤에 놓여있었나?
2) 자유방임이라는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3) 자본주의가 탄생함에 있어 그 밖의 어떤 국가개입이 있었는가?
4) 엔클로저(enclosure)운동은 사회주의의 신화 아닌가?
5) 아메리카에서는 왜 엔클로저운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6)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출현을 어떻게 보았는가?
7) 왜 자본주의의 역사는 중요한가?

자) 중세의 아이슬랜드는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실례인가?

차)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안정적인가?
　　1) 은행의 사유화는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킬 수 있나?
　　2) 노동시장은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과거에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안정적이었나?

Section G :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자본주의적인가?

- 서론

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는 반자본주의자인가?
　　1)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평가할 때 사회적 상황은 왜 중요한가?

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왜 사회주의를 함의하고 있는가?
　　1)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는 자유시장을 지지하는가?
　　2)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는 사유재산을 지지하는가?

다) 토커의 방어 연합체의 아나코캐피탈리즘의 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 왜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의 생각에 반대하는가?

마) 벤자민 토커는 자본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인가?

바) 막스 슈티르너의 사상은 무엇인가?

사) 라이산더 스프너는 우익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인가?

Section H : 왜 아나키스트는 국가사회주의를 반대하는가?

- 서론

가) 아나키스트는 과거부터 항상 국가사회주의를 반대해 왔는가?

1) 맑시즘에 대한 바쿠닌의 비판은 무엇인가?
2) 아나키스트와 맑시스트와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3) 왜 아나키스트는 '하루 아침에' 국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가?
4) 아나키스트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를 대신하여 어떤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는가?
5) 왜 아나키스트는 현재의 국가를 이용할 생각을 안하는가?
6) 왜 아나키스트는 과거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가?
7)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읽어 보았는가?
8) 엥겔스는 「권위에 대하여」라는 그의 에세이에서 아나키즘을 반박하지 않았나?
9) '조직'은 자유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10) 자유연애와 결혼문제는 어떻게 엥겔스의 논리의 약점을 드러내는가?
11) 아나키스트는 공장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바라나?
12) 계급투쟁문제는 산업분야에서의 모든 자치는 나중 문제로 남겨두는 엥겔스의 이론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
13) 산업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적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가?
14) 왜 엥겔스의 에세이 「권위에 대하여」는 맑시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15) 왜 엥겔스의 말 "혁명은 존재하는 것 중 가장 권위적인 것"이라는 것은 잘못됐는가?

나) 맑시스트는 아나키즘의 어떤 부분을 특히 잘못 이해하고 있나?

1) 아나키스트는 혁명을 원하는가?
2) 아나키스트는 노동자 계급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3) 아나키즘은 과거로의 회귀를 희망하는가?
4) 아나키스트는 국가를 계급사회의 한 요소로 보기보다 주요한 적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5) 아나키스트는 사라진 사회주의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6) 맑시스트는 아나키스트의 상호부조에 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7) 아나키스트는 누구를 사회변화의 주요세력으로 보는가?

8) 아나키즘과 생디칼리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9) 아나키스트는 ‘자유로운 정치’를 믿는가?
10) 아나키스트는 리더쉽을 반대하는가?
11) 아나키스트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가?
12) 아나키즘은 강력한 노동운동이 사라질 때만이 가능한가?
13) 아나키스트는 정치적 투쟁과 행동을 반대하는가?
14) 아나키스트 조직은 비효율적인가, 엘리트주의적인가, 또는 좀 이상한 그 무엇인가?
15) 아나키스트는 훈련 또는 연습과 같은 학습을 찬성하는가?
16) 스페인혁명은 아나키즘의 실패를 보여주는 예인가?

다) 국가 사회주의의 신화는 무엇인가?
1) 아나키스트와 맑시스트는 똑같은 것을 원하는가?
2) 맑시즘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인가?
3) 레닌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인가?
4) 아나키스트는 맑시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5) 아나키스트에 대한 맑시스트의 생각은 변하여 왔는가?
6) 맑시즘은 단지 혁명적 정치이론인가?
7) 국가에 대한 맑시즘의 생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8) 국가에 대한 레닌이즘의 생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9) 국가는 단지 경제권력의 하수인인가?
10) 맑시즘은 항상 노동자의회를 지지하여 왔는가?
11) 맑시즘은 노동자 조직에 권력을 이양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12) 거대기업은 사회주의를 위한 필요조건인가?
13) 왜 국가사회주의는 국가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가?
14) 맑시스트는 노동자에 의한 통치를 믿는가?

라) 러시아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 볼세비키는 무엇인가?
2) ‘보이지 않는 혁명’은 무엇인가?
3) 왜 소비에트 연방은 힘을 잃었는가?
4) 노동자 통치에 대한 볼세비키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5) 반대편의 사회주의자는 탄압받아야만 했는가?

6) 러시아 내전 때문에 볼세비키는 권위주의자가 되었는가?
7) 러시아혁명의 변질에 대해 볼세비키 이념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마) 크론슈타트 반란은 무엇이었나?
1) 왜 크론슈타트 반란은 중요한가?
2) 크론슈타트 봉기의 당시상황은 어떠했는가?
3) 크론슈타트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
4) 크론슈타트 반란은 '격분한 농민의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는가?
5) 볼세비키는 크론슈타트에 대해 어떤 거짓말을 유포했나?
6) 크론슈타트 봉기는 혁명반동세력의 음모였나?
7) 혁명반동세력과 크론슈타트는 정말로 어떤 관계였는가?
8) 반란에 새로운 수병들이 가담했는가?
9) 크론슈타트는 정치적으로 다른 것이었는가?
10) 왜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은 크론슈타트 반란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11) 크론슈타트 봉기 때 반동세력의 힘은 컸나?
12)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나라의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나?
13) 크론슈타트 '제 3혁명'에 진정한 대안은 있었는가?
14) 현대의 트로츠키주의자는 크론슈타트 반란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나?
15) 크론슈타트 반란은 볼세비즘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바) 왜 마흐노 농민운동은 볼세비즘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1) 네스터 마흐노는 누구인가?
2) 왜 마흐노운동이라 부르는가?
3) 왜 마흐노를 '배트코'라고 하는가?
4) 마흐노 농민운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5) 마흐노주의자들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6) 마흐노주의자들은 적극적인 사회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가?
7) 그들은 그들의 사상을 실천에 옮겼는가?
8) 마흐노주의자들은 제정 러시아의 부농들이었나?
9) 마흐노주의자들은 셈족을 경멸하고 학살했는가?
10) 마흐노주의자들은 도시와 도시 사람들을 싫어했나?
11) 마흐노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인가?

12) 마흐노주의자들은 혁명반동세력을 지지했나?
13) 마흐노 농민운동과 볼세비키는 어떤 관계였는가?
14) 마흐노주의자와 볼세비키는 어떻게 다른가?
15) 현대의 볼세비즘 추종자들은 마흐노주의자들을 어떻게 비방하는가?
16) 마흐노운동의 교훈은 무엇인가?

사) 스탈린주의는 무엇인가?
1) 왜 레닌주의자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견해는 옳지 않은가?
2) 스탈린주의와 레닌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맑스 이론은 러시아혁명을 어떻게 폄하하는가?
4) 스탈린주의의 부상은 순전히 객관적인 조건 때문인가?
5) 아나키스트는 혁명에 직면하여 객관적인 요소를 무시하는가?
6) 좌파는 스탈린주의의 대안을 제시했나?

아) 전위주의는 무엇이며, 아나키스트는 왜 이를 거부하는가?
1) 왜 전위당은 반사회주의적인가?
2) 전위주의자의 이론은 합당했는가?
3) 왜 전위주의는 정당권력을 필요로 하는가?
4) 레닌은 전위주의를 버렸는가?
5) '중앙집권적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6) 왜 아나키스트는 '중앙집권적 민주주의'를 반대하는가?
7) 혁명주의자들의 조직구축방법은 중요한가?
8) 전위당은 효과적인가?
9) 전위당은 어떤 것에 효과적인가?
10) 왜 '중앙집권적 민주주의'는 '관료중심주의'를 만들어내는가?
11) 전위당의 단점을 드러내는 예는 있는가?
12) 러시아 혁명은 전위당의 역할을 증명하는가?

Section I : 아나키스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 서론

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모순 아닌가?

1) 루드빅 폰 마이세스의 ‘계산이론’은 사회주의는 불가능함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2) 마이세스의 이론은 ‘자유주의적 공산주의’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가?
3) 하여튼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 자본주의가 착취적이라면,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은가?

나) 아나키스트 사회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1) 왜 아나키스트 사회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가?
2)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아나키스트 사회로의 직접적인 이행은 가능한가?
3) 구상된 아나키스트 사회의 기본적 모습은 어떠한가?

다) 아나키스트 사회의 경제구조는 어떤 모습일까?

1) ‘신디케이트’란 무엇인가?
2) 노동자의 자주관리는 무엇인가?
3) 공동체는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4) 각각의 신디케이트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5) 신디케이트 연합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 신디케이트간의 경쟁은 어떠한가?
7) 신디케이트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8) 아나키스트는 ‘작은 생산 규모의’, ‘작은 자치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라) 아나키스트 사회의 경제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1) 아나키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요체는 무엇인가?
2) 왜 아나키스트는 노동폐지를 원하는가?
3) 아나키스트는 어떻게 노동폐지를 하려고 하는가?
4) 아나키 사회에서는 어떤 경제적 결정구조가 사용될 수 있는가?
5) ‘수요와 공급’ 원리는 어떠한가?
6) 물론, 공산주의적 아나키스트는 초과공급으로 가지 않을까?
7) 무엇이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를 고려하게 만들까?
8) ‘투자결정’은 어떠한가?
9) 기술적 진보는 반아나키즘인가?

10) 잉여분배의 이점은 무엇일까?
11)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가 ‘이윤동기’를 없앤다면 인간의 창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12)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기업의 재출현의 여지는 없는 것일까?
13) 누가 더럽고 즐겁지 않은 일을 맡을까?
14)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가?
15) 미래의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
16) 자유주의적 공산주의 사회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마) 아나키 사회의 사회구조는 어떤 모습일까?
1) 참여공동체는 무엇일까?
2) 참여공동체의 연합은 왜 필요한가?
3) 연합의 형태는 어떠한가?
4) 이런 회의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을까?
5) 참여공동체와 그 연합은 새로운 국가는 아닌가?
6)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하에서 다수에 의한 횡포의 위험은 없을까?
7) 만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8) 범죄는 어떤가?
9) 아나키즘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떠할까?
10) 정치정당은 어떠할까?
11) 이윤조직이나 기타 사조직은 어떠한가?
12) 아나키스트 사회에서는 건강이나 기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가?
13) 아나키스트 사회는 권력에 취약하지 않을까?
14) 어떻게 아나키스트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바) 공유재산의 문제는 어떤가? 공동소유는 재산의 남용이나 환경파괴를 낳지 않을까?
1) 아나키스트는 모든 사람의 소유인 공공재산의 사용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2) 어떤 형태든 공공소유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까?

사)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개인성을 말살할까?
1) 부족문화는 공동체가 개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나?
2) 이것은 과거숭배나 ‘고상한 야만성’의 미화는 아닌가?

3)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4) 그럼 자본주의는 개인성을 보호하는가?

아) 스페인혁명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가 현실 가능하다는 증거인가?
1) 스페인혁명은 농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산업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예가 아닌가?
2) 아나키스트는 어떻게 스페인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었는가?
3) 어떻게 스페인 산업노동조합은 결성되었는가?
4) 스페인 산업노동조합은 어떻게 일을 했는가?
5) 스페인 농업협동조합은 어떻게 조직되고 움직였는가?
6) 스페인 농업공동체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7) 스페인 시골의 농업공동체는 군대조직에 의해 만들어졌나?
8) 스페인의 조합은 혁신적이었나?
9) 그렇게 좋았다면 왜 계속 살아남지 못했는가?
10) CNT는 왜 국가에 협조하였는가?
11) 협조결정은 아나키즘 이론에 의한 것인가? 그러면 아나키즘은 가짜 아닌가?
12) 협조결정은 CNT 멤버들에게 강요되었는가?
13) 그 혁명으로부터의 정치적 교훈은 무엇인가?
14) 경제적 교훈은 무엇인가?

Section J : 아나키스트는 무엇을 하는가?

- 서론

가) 아나키스트는 사회투쟁에 참가하는가?
1) 왜 사회투쟁은 중요한가?
2) 아나키스트는 개혁에 반대하는가?
3) 아나키스트는 왜 개혁주의에 반대하는가?
4) 아나키스트는 단일 사안 중심의 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5) 아나키스트는 왜 사회투쟁을 일반화하려고 하는가?

나) 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

1) 왜 아나키스트는 변화를 위해 직접행동을 선호하는가?
2) 왜 아나키스트는 변혁의 도구로 투표를 거부하는가?
3) 투표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가?
4) 급진정당에 대한 투표는 정말로 효과적인가?
5) 왜 아나키스트는 선거거부운동을 지지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6) 선거를 이용함에 있어 급진주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7) 개혁정당을 주류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그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가?
8) 선거거부는 우익에 유리하지 않을까?
9) 투표대신에 아나키스트는 무엇을 하나?
10) 선거거부는 아나키스트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나?

다) 아나키스트는 어떤 조직을 구축하는가?

1) 연대조직은 무엇인가?
2) '통합'연맹이란 무엇인가?
3) 강령주의란 무엇인가?
4) 왜 많은 아나키스트는 강령에 반대하는가?
5) 어떤 종류의 아나키스트 연맹이 있는가?
6) 아나키즘 이론에서 이러한 그룹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가?
7) 바쿠닌의 '보이지 않는 독재'란 아나키스트가 권위주의자라는 증거는 아닌가?
8) 아나코생디칼리즘은 무엇인가?
9) 왜 많은 아나키스트는 아나코생디칼리즘이 아닌가?

라) 아나키스트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회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나?

1) 왜 사회투쟁은 좋은 징조인가?
2) 사회투쟁은 이익이 되기보다 손해는 아닌가?
3) 새로운 사회운동은 아나키스트에게 발전인가?
4) 경제구조위기란 무엇인가?
5) 왜 이 경제구조위기는 사회투쟁에 있어 중요한가?
6) 반정부, 반기업의 감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 통신혁명에 대해서는 어떤가?
8) 급격한 변화와 정보폭발의 의의는 무엇인가?

9) '네트전쟁'이란 무엇인가?

마) 아나키스트는 어떤 사회조직을 만들어 내는가?
1) 지역조합주의란 무엇인가?
2) 왜 아나키스트는 산업 노동조합을 지지하는가?
3) 기존 노조에 대해 아나키스트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4) 산업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5) 아나키스트는 어떤 형태의 신용거래를 지지하는가?
6) 상호신용거래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7) 많은 아나키스트는 상호신용거래만으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8) 근대적인 상호은행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9) 상호신용거래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10) 왜 아나키스트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가?
11) 노동자가 자주관리를 하고 싶다면 왜 생산자 협동조합이 좀더 증가하지 않는 것일까?
12) 자주관리가 효율적이라면 자본주의기업은 시장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압력받을까?
13) 근대학교란 무엇인가?
14) 자유주의적 자치공동체란 무엇인가?
15) 사회복지국가에 대해서 아나키스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16) 공동체적 자주협동의 역사적 사례는 있는가?

바) 아나키스트는 어떤 육아방법을 지지하는가?
1) 양육의 기본원리는 무엇이며 그러한 원리를 실현하는 데 주요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2) 막 태어난 영아에 대한 자유주의적 육아방법의 예는 무엇인가?
3) 청소년에 대한 자유주의적 육아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4) 아이들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가?
5) 처벌, 금지, 종교적 명령이 없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윤리를 배울 수 있나?
6) 자유로운 어린이는 어떻게 이타성을 배울 수 있나?
7)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 자유주의적 육아의 다른 이름은 아닌가?

8) 십대의 성해방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입장은 무엇인가?

9) 십대의 성해방과 같은 문제는 경제구조 개혁과 같은 더 중요한 문제로부터 아나키스트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사) 아나키스트에게 사회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모든 아나키스트는 혁명적인가?

2) 사회혁명은 가능한가?

3) 혁명은 폭력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가?

4) 사회혁명에서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5) 사회혁명에서 아나키스트의 역할은 무엇인가?

6) 아나키스트 혁명은 어떻게 그 혁명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가?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시리즈를 내면서

『환경과 反차별』 편집동인이, 『환경과 反차별』 이외에 이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시리즈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들 스스로의 갈증이다. 우리들 스스로의 정체성과 이름으로서 제기한, 생태주의(Ecology)와 아나키즘(Anarchism)은 스스로 우물을 파게 만들었다. 자꾸만 파면 팔수록, 그 갈증은 한편의 해갈과 또 다른 한편의 갈증을 불러일으켰다. 가령, 『환경과 反차별』5호에서부터 '非戰 ― 전쟁·군대없는 세계로!!'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덧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또 다른 직접적 동기는 주변의 친구들과 나누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어떤 원주민들은 숲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큰 소리로 함께 먹자고 소리친다고 한다. 이런 상호부조의 정신과 연대의식으로……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시리즈 2

오늘의 아나키즘

발행 : 『환경과 反차별』 편집동인

제작 : 2003. 3. 7

연락처 : http://cafe.daum.net/anarchism

E ― mail : butaband@yahoo.co.kr

■ 광 고 ■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시리즈 1

폭력론 노트 – 비폭력 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

무까이 꼬오(向井 孝)

목 차

발행 : 2003. 3. 7. 가격 2,000원

非戰 전쟁.군대 없는 세계로!!

환경과 反차별

3,000원